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2023-03

경남교육 아이좋아

2023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7권

요약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경남교육 아이좋아

경남을 넘어 세계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 육 정 책 연 구 소

발간사

왜, '연구'하는가?

교육은 복합적 현상이다. 변화에의 적응, 새로운 미래의 조형, 현실의 보전이 서로 포개져 있다. 고로 기왕의 교육실제를 진단하고, 변화 흐름을 읽고, 적확한 말과 실행 준거를 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 주체들의 이해를 고려한 정책 과제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치재(價値財)로서 교육의 고유성은 더 공고해지고, 주체들의 존엄은 더 확장되게 된다. 교육연구가 교육 대전환의 제 일선(一線)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가?

교육은 본디 사회구성원의 '공동의 기원'이자 '삶의 이상(理想)'이다. 그런 연유에서 교육연구(硏究)는 바로 '희망의 재구성'과 같다. 희망의 원리를 주창한 에른스트 블로호(Ernst Bloch)는 희망의 의미를 유토피아 사상과 연관 짓는다. 즉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불가능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해석한다. 절망을 부정하는 인식의 힘이자 굽힘이 없는 '실천의 의지'가 바로 희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바로 독자들을 '인식의 공동체', '실천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에 초대하는 일이다. 이 초대에는 경남교육의 질적 전환이라는 '절대적 염원'을 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더 해야 하는가?

연구는 발전(전환)의 밑돌이다. 경남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당대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연구, 현장 친화적 정책 연구, 주체들의 삶 연구, 이에 더해 다양한 교육 사상(事像)의 이론적·과학적 분석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한다.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의 비전과 실천 의지는 이처럼 광대하고 도전적이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이상(理想)과 연구 아우라(aura)를 꿈꾼다.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졸여, 말과 논리를 세공하고, 이를 정책 과제로 연결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특히 현업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공동연구진 선생님들께도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 덕분에 보고서의 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우리가 받는 찬사가 있다면, 그 상당 부분은 공동연구진의 몫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존엄'의 가치는 아직 낯설고 생경하다. 형이상학의 빈곤이다. 교육철학이 범속해지고, 기술·기능적 언어만이 무성하다. 이런 형이상학의 빈곤 상태에서는 교육 본질이 무화되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 앞에서 연구를 업(業)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적 부지런함이 답이다. 그 부지런함 속에서 교육의 새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이 보고서를 매개로 많은 교육 주체들과의 지적 대화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2023.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 이 수 광 드림

목차

1 교육정책연구소 비전 및 목표

2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

3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발간자료 목록

4 2023. 경남교육정책 포럼 활동

5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결과 요약보고서(52편)

6 경남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2015~2022)

교육정책연구소 비전 및 목표

비전 경남교육의 가치와 역량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목표 교육현장에 도움되는 교육정책 연구

경남교육정책연구

- 기본연구 (10편) — 책임연구원 파견연구교사
- 교원특별연수 연구 (23편) — 교원 특별연수 참여 교사
- 현장연구회 연구 (19편) — 연구 참여 교직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

1. 연구과제 선정
2. 보고서 심의
3. 정책 제안
4. 발간 심의
5. 연차보고회
6.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인력풀]
- 공동연구원
- 연구협력관
- 자문위원
- 심의위원

연구결과 공유

종단연구

- 대상: 제3차년도 경남교육종단연구 패널(초등학교 60교, 중학교 30교)
- 내용: 학생역량평가, 교육정책조사, 교과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준비	연구실행	결과분석
문항개발 및 검토	협력학교 설명회 및 실행	데이터클리닝, 학술연구

포럼운영

정책연구 수행형	교육현안 토론형	초청강연형
연구소 기본연구와 연동하여 의견수렴 및 쟁점 토론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주체 참여 활성화를 통한 토론	명사초청 강연 및 토론으로 교육정책 포럼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육정책자료발간

이슈페이퍼 '경남교육정책 지금'	오피니언페이퍼 '이슈+생각'	트렌드페이퍼 '경남교육정책 동향'	통계로 보는 경남교육종단연구
기존 연구 및 정책과제에 대한 리뷰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국내외 교육 동향 분석	2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학생 생활실태 분석

☑ 연구결과 공유 플랫폼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 교육정책연구 - 연구보고서&발간자료
-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 교육정책연구소 - 교육정책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

기본연구

연번	연구과제
1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개발 연구
2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3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 요구분석
4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5	교과보충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과제
6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7	생태전환교육 중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 연구
8	교사 행위자성에 기반한 에듀테크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9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및 추진 방안 탐색
10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 연구

종단연구

연번	연구과제
1	제3차년도(2023) 경남교육종단연구 패널 데이터 조사
2	제3차년도(2023) 경남교육종단연구 데이터 클리닝 연구
3	2023.경남교육종단연구(GELS) 3차년도 조사도구 개발
4	2023.경남교육종단연구(GELS) 3차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 학업성취도 검사 문항 개발
5	2023.경남교육종단연구(GELS) 3차년도 중학교 2학년 교과 학업성취도 수직척도화 점수 개발
6	2023.경남교육종단연구(GELS) 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학생역량 및 영향변인 분석
7	경상남도 교원의 교직수행 분석: 제3차년도(2023) 자료를 중심으로
8	통계적 해석 중심 경남교육 성과 분석: 3개년도 종단자료를 중심으로
9	다층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경남교육청 교육성과의 영향 요인 분석

☑ 현장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연번	연구과제
1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및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생성형 AI활용 사례
2	IB PYP에 기반한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구
3	기수역 환경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실천중심 학교환경교육 강화
4	학교의 효율적인 에듀테크 채택을 위한 교사 중심의 에듀테크 실증 방안
5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6	회복적서클활동이 행동형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U&I 성격유형에 기반 -
7	마을교육과정의 메타버스 연계 방안 연구
8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및 수업 사례
9	학년군별 생태전환교육활동을 통한 생태시민 성장 방안 모색 -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
10	IB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연구: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1	초등학교 구성원 간 협력UP, 갈등down, 통!하는 연수프로그램 연구 - 교원, 행정직원, 공무직원 참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12	영어과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평가도구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13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 지원체제 개선방안 - 다층지원체제를 중심으로 -
14	IB MYP, 과학교과에서의 현장 적용 사례 연구
15	학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확보방안 연구
16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 항공편 -
17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18	IB교육의 저변 확장을 돕는 IB체크리스트 제작과 적용
19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를 통한 우리글의 원형 계승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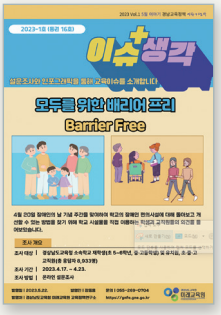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년)

연번	연구과제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연구 - 경남 일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중심으로
2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Positive Behavioral Supports) 활성화 방안 연구
3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4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와 문해력 관계 분석
5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방안 연구
6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7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 개발
8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방안 연구
9	배움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 분석
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11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안착 방안
12	미래형 학교 공간의 지속적 활용방안 사례 연구
13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 연구
14	대안(다양성)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방안
15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16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사례 연구
17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환경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8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연구
19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2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교육 놀배움 활성화 방안
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22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 활용 수업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23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발간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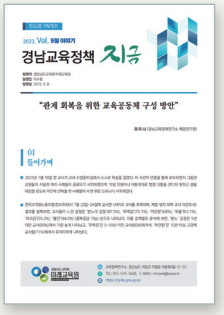
- **2023. 1월 이슈페이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쟁점과 시사점 탐색'
- **2023. 2월 이슈페이퍼** '경남지역 중학생의 핵심역량 및 영향 요인 탐색"
- **2023. 4월 트랜드페이퍼**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3년 1분기 경남교육'
- **2023. 5월 이슈+생각** '모두를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2023. 6월 이슈페이퍼**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생태계 강화'
- **2023. 7월 이슈페이퍼**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전환교육 논의'
- **2023. 8월 통계로 보는 경남교육종단연구** - 01호
- **2023. 9월 이슈페이퍼**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 방안'
- **2023. 9월 트랜드페이퍼** '생성형 인공지능과 교육에 관한 언론보도 토픽 분석'
- **2023. 10월 이슈페이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정책 방향'
- **2023. 12월 이슈페이퍼** '경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방안 탐색'
- **2023. 12월 이슈+생각** '학부모-교사 신뢰 관계 강화 방안'

2023. 4월
트랜드페이퍼



2023. 5월
이슈+생각

2023. 8월 통계로 보는
경남교육종단연구



2023. 9월
이슈페이퍼

2023. 경남교육정책 포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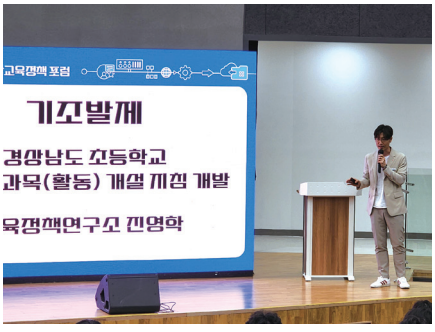
1. 2023. 제1차 경남교육정책 포럼

가. 일시: 2023. 7. 26. 14:00~16:10

나. 주제: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다. 대상: 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및 희망 교원 358명

구분	주제
발제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지침 개발
토론 1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새로운 과목과 활동, '너를 보여줘!'
토론 2	새로운 과목(활동)에 학생 주도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토론 3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신청과 승인 절차
토론 4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을 위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지원 사항



2. 2023. 제2차 경남교육정책 포럼

가. 일시: 2023. 10. 25. 14:00~16:10

나. 주제: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다.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100명

구분	주제
발제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 방안
토론 1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단위 학교의 역할
토론 2	따뜻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학교 체제로 나아가기
토론 3	교육공동체 상호존중의 새로운 경계 세우기
토론 4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부모

3. 2023. 제3차 경남교육정책 포럼

가. 일시: 2023. 11. 22. 14:00~16:10

나. 주제: 더 넓은 학교, 경남 마을교육공동체를 말하다.

다. 대상: 교직원, 학부모, 도민 130명

구분	주제
발제	우리의 마을교육공동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토론 1	마을은 가장 좋은 교육 자원이다.
토론 2	배움의 연속성을 위한 학교와 마을의 상생 방안
토론 3	지역에서 바라보는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발전 방향
토론 4	마을교사가 들려주는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

2023.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7권

요 약 보 고 서

목 차

기본연구

1.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개발 연구 ····· 3
2.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 13
3.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 ····· 21
4.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27
5. 교과보충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과제 ····· 39
6.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 47
7. 생태전환교육 중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 연구 ····· 55
8. 교사 행위자성에 기반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61
9.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및 추진 방안 탐색 ····· 69
10.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 연구 ····· 79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1. 학년군별 생태전환교육활동을 통한 생태시민 성장 방안 모색
   –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 ····· 87
2.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및 수업 사례 ····· 95
3. IB MYP, 과학교과에서의 현장 적용 사례 연구 ····· 101
4.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및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생성형 AI활용 사례 ····· 107
5. 회복적서클활동이 행동형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U&I성격유형에 기반 ····· 113
6.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 지원체제 개선방안 –다층지원체제를 중심으로- ····· 121
7. IB교육의 저변 확장을 돕는 IB체크리스트 제작과 적용 ····· 129
8.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를 통한 우리글의 원형 계승 방안 ····· 137

9. 학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확보방안 연구 ····· 145
10. IB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연구: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151
11. 기수역 환경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실천중심 학교환경교육 강화 ····· 159
12.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 165
13. 학교의 효율적인 에듀테크 채택을 위한 교사 중심의 에듀테크 실증 방안 ····· 171
14.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 177
15.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 항공편 - ····· 185
16. 마을교육과정의 메타버스 연계 방안 연구 ····· 189
17. 영어과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평가도구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 195
18. 초등학교 구성원 간 협력UP, 갈등down, 통!하는 연수프로그램 연구
- 교원, 행정직원, 공무직원 참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201
19. IB PYP에 기반한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구 ····· 209

교원 특별연수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연구 - 경남 일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중심으로 ····· 217
2.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Positive Behavioral Supports) 활성화 방안 연구 ····· 223
3.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29
4.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와 문해력 관계 분석 ····· 235
5.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방안 연구 ····· 241
6.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 247
7.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 개발 ····· 253
8.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방안 연구 ···· 259
9. 배움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 분석 ····· 265
1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 271
11. 경상남도 도시형 초·중 통합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안착 방안 ····· 277

12. 미래형 학교 공간의 지속적 활용방안 사례 연구 ····· 285
13.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 연구 ····· 291
14. 대안(다양성)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방안 ····· 297
15.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305
16.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사례 연구 ····· 311
17.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환경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317
18.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연구 ····· 323
19.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 329
2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교육 놀배움 활성화 방안 ····· 335
2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 341
22.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 활용 수업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 347
23.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 353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개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김민정 김해율하유치원 교사
박윤경 성산초등학교 교사
이현우 김해봉명중학교 교사
한민경 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위재원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추진단 장학관
노명화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추진단 장학사

자문위원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지연 마산구암고등학교 교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김도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김민정(김해율하유치원 교사), 박윤경(성산초등학교 교사) 이현우(김해봉명중학교 교사), 한민경(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위재원(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추진단 장학관) 노명화(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추진단 장학사)
자문위원	이재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지연(마산구암고등학교 교장)
주제어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 경남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며 인간에게 적응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착각했으나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현상에 대응하며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대문명의 효율성과 무분별한 개발의 추구로 자연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폭염, 미세먼지, 해양 플라스틱 등의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사회의 재난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대응할 도리가 없어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당혹감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지역의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노력으로 유네스코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ESD)의 국제 실천 프로그램(GAP)을 운영하였고, 2020년 이후에도 후속 조치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2030'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요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에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을 통해 매주 금요일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행동 단

체의 학생들도 현실적인 환경학습권과 채식 선택권 등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은 정부와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의 결과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7월 9일 교육부장관, 환경부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기후위기 환경 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교육의 요구가 반영되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1년 9월 1일에 교육기본법 22조 2항 '기후변화환경교육' 항목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담론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환경과 관련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분산적인 형태이며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다양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과 직접 연결된 가정, 학교, 마을, 지역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작은 실천 기회를 가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맞춘 지역적 생태전환교육의 성취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전환교육의 성취기준의 체계화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경남형 생태전환교육의 성취기준으로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유치원의 2019 개정 누리과정도 포함하여 학교 기관 이전의 기관부터 연계된 생태전환교육을 도모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생태전환교육을 고려하였으며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별, 학년군별 연계와 위계의 서열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경남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구체적인 생태전환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여 적절한 성취기준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 사례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생태전환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생태전환교육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

전환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둘째, 경남의 생태전환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경남 교원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경남 유치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경남 생태전환교육의 우수사례의 주제, 방법 등을 파악하여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경남에서 발간된 생태전환교육 교수학습 자료집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수업실천사례 대회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생태전환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경남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경남형 학년군별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을 작성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남의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 교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소속 교사, 자문위원, 2023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천나눔한마당(기후정의분과)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

3 연구 내용

첫째,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의 개념 및 관련 유사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생태전환교육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경남의 학교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의 유치원, 초・중・고의 학교 생태전환교육 운영 현황, 경남의 유치원, 초・중・고 교원의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경남의 학교 생태전환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전환교육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였고, '초등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학교에서 실천하는 푸른지구 만들기', '중·고등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학교에서 실천하는 푸른지구 만들기', 20~22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수업실천사례 대회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환경교육표준과 2022 개정 교육과정(유치원의 경우, 2019 누리 개정과정 참고)을 기준으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성취기준은 검토 과정을 통해 경남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을 포함한 현장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성취기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전환교육과 관련 높은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환경교육', '기후위기대응교육', '지속가능한발전교육', '생명존중교육', '위 모두다', '민주시민/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태전환교육이 '환경교육'과 관련 높다고 응답한 수는 많은 반면 '민주/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과 관련이 높다고 응답한 수는 매우 적었다. 생태전환교육이 길러내고자 하는 생태시민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성과 생태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의사결정과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민주/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까지 포괄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전환교육'의 운영 주체로 '교사라면 누구나', '외부 전문가 초빙', '전 교직원을 포함한 누구나', '환경 교사', '생물 등 관련 교사', '외부 기관 위탁', '학교관리자'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과거의 환경교육이 관심 있는 소수의 교사에 의해 이뤄진 교육이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생태전환교육의 운영 주체는 '전 교직원을 포함한 누구나'여야 한다. 생태전환교육에서 다뤄져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시 학생의 개인적 실천 뿐 아니라 학교 모든 구성원의 변화, 학교 문화의 변화, 학교 시스템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급 혹은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생태전환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0.40%,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9.60%이었다. 응답자의 약 50%만이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넷째, 현재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동아리활동 등)', '환경 관련 기관 및 시설 체험활동(견학·탐방 등)', '환경 관련 외부기관·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교과에서 운영', '환경행사(축제 및 홍보 운동 등)', '기타', '환경 관련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사들은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 시간에 교과 본연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면서 환경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을 개발한다면 정규 교육시간 내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운영 중인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구온난화·기후변화(해수

면 상승, 사막화, 탄소중립, 기후난민, 탄소발자국 등)', '자원순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산업 폐기물, 분리배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등)', '자연 생태계(숲, 강, 바다, 습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사들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의 1순위 주제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교육'을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취기준의 주제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환경 프로젝트 등 탐구활동의 구체적 활동 서술에서 '채식 식단 만들기', '나비 키우기', '텃밭교육', '기후위기 관련 도서 읽고 주장하기', '자원 재활용', '갯벌 생물 조사하기', '마을 중심 생태전환교육', '생물 도감 만들기', '학교 주변 생태 공원 탐방하고 그림그리기', '화분에 꽃씨 심기', '학교 주변 길고양이 분포 조사/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학교 인근 생태 숲 조사하기', '목화 프로젝트', '학급 기후행동 챌린지', '기후위기대응 캠페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업', '기후 난민 감정이입 역할극', '숲 체험활동' 등의 답변이 있었다. 현재 운영하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응답 1순위 주제가 지구온난화·기후변화였으나, 실제 운영한 교육사례 응답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교육 사례는 찾기 힘들었고 생태조사, 텃밭교육, 숲생태체험 활동 등 생물다양성 교육에 많이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교사들이 실천한 생태전환교육 형태가 교과 연계 교육이나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일회적 환경 캠페인이나 단순한 동·식물 재배 등의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태전환교육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 삶의 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학교와 가정 및 지역 연계 교육,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 학교 모니터링과 평가, 반성 및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성취기준에 담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생태전환교육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생태전환교육과정의 표준안 부재(학교급별 내용, 방법, 성취기준의 부재)'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중 '지역의 환경 특색을 반영한 체계적인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생태전환교육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 서술에서 응답자들은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인식 개선', '체계적, 실용적 표준안/교육과정 제시', '콘텐츠, 자료, 교구,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시간의 제도적 확보(교과 연계, 창체시간 활용 등)', '생태전환교육의 의무화, 필수 교과 지정', '환경 담당 교사 추가 선발 및 선택과목 확대' 등의 '교내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과 '교사의 업무 가중(전문성 부족 포함)',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의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교육 실현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외부 인프라 및 인력풀 활용'에 대한 의견과 '실생활과 연결된 지속적 생태전환교육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많은 교사가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의견으로 제시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생태전환교육 교재를 활용하는 비율이 17%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의 교재와 더불어 연구의 결과 역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급 및 정착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수업실천사례 대회 내용과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에서 실천하는 푸른지구 만들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적 분석 결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환경 정서 위주에서 환경 지식, 환경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자연환경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고등학교에서 환경문화의 주제를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 주제별로 보았을 때, 지구환경의 기후와 해양을 많이 다루고 있었고, 자연환경의 생물, 생활환경의 폐기물, 환경문화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활양식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방법을 분석해본 결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경우 놀이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프로젝트식 교육 사례가 많았다.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군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단계의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별 성취기준은 각각 자원순환, 생물문화다양성, 기후변화, 세계시민의식, 건강과 웰빙 5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은 작성 근거가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과 함께 학습활동 예시, 내용 요소와 범주, 환경 역량도 제시되어 있다.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성취기준 중 다섯 가지 각 주제별로 한 성취기준의 내용체계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로 담고 있는 각 주제의 위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학년군별 상황에 맞는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5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경남형 생태전환교육 학년군 성취기준을 활용을 비롯한 경남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교육청 수준, 단위 학교 수준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①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연수 및 콘텐츠 개발), ②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수 확보, ③ 온·오프라인 생태전환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언하였다.

둘째, 단위 학교 차원에서 ① 학교 전체적 접근을 위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 필요,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학교의 지속가능성 문화 개발을 제언하였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연구진

연구책임자
진영학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임현탁 유영초등학교 교사
성혜진 성산초등학교 교사
정민섭 곤명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성미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이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자문위원
안경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관
임수일 성주초등학교 교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연구책임자	진영학(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임현탁(유영초등학교 교사), 성혜진(성산초등학교 교사), 정민섭(곤명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성미(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이정은(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안경찬(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관), 임수일(성주초등학교 교장)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새로운 과목(활동)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교육과정 자율화 사항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경남 지역의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남의 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목적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분석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분석

-단위 학교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과정 분석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의 중점사항 분석

-과목과 활동의 구분을 위한 문헌 분석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분석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신청과 승인 절차 분석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을 위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역할 분석
○ 시기: 2023년 3월~9월

나. 정책토론회

○ 주제: 경상남도 초등학교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지침 개발
○ 목적
-학교자율시간 도입 배경과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의 방향 이해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관련 쟁점과 해결방안 토의
○ 날짜: 2023. 7. 26.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 대상: 경상남도 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 발제, 토론 주제
-발제: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 방향
-토론1. 과목과 활동, 너의 정체를 보여줘!
-토론2. 학생 주도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토론3. 새로운 과목(활동) 승인 절차
-토론4.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지원 사항

다. 전문가 협의회

○ 목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 대상: 교육과정 전문가
○ 시기: 10~11월

3 연구 내용

가.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 방향 모색

○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시사점 도출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탐색
○단위 학교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과정의 시사점 도출

나.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의 쟁점과 해결방안 탐색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의 중점사항 분석
○과목, 활동의 구분
-의미, 내용 구성, 의사결정과 실천의 단위, 시수 편성, 적용 기간, 특징 등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탐색
-학생 주도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교수·학습 원리와 전략, 운영 유형 등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신청과 승인 절차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을 위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역할

다.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방안 탐색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방안과 전략 도출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활성화 방안과 전략 도출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 간소화 방안과 전략 도출

4 연구 결과

가. 경남형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경남형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공동체가 학생의 주도적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색 및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교육과정'임. 여기서 자율은, 학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닌 실질적 교육과정 자율권을 바탕으로 학교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함.

2) 필요성

·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함양

- 단위 학교에서 새로운 내용(과목,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교육자치 실현
- 기존 교과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해서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발견하고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필요

나. 경남형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기준

①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공동체의 합의된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② 학교자율시간은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색 및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서 구성한다.
③ 학교자율시간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범위와 계열성을 갖춘다.
④ 학교자율시간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3~6학년별로 편성·운영한다.
⑤ 새로운 과목은 학교 내에서 활용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승인형과 도내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승인형과 교육감 승인형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⑥ 새로운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를 참조하여 구성한다.
⑦ 새로운 과목은 국가교육과정의 공통(기본) 교과(군)의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새로운 과목은 학교에서 선정·개발한 학습자료(교재, 활동지 등)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학습자료(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⑨ 새로운 과목은 17차시 이상의 내용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⑩ 새로운 활동은 학생의 실생활과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⑪ 새로운 과목과 활동은 학교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

① 경남형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도움자료 개발

이 연구의 결과를 보완해서 경남교육청의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경남형 학교자율시간의 의미와 특성, 편성·운영 절차, 새로운 과목과 활동의 구체적인 설계 과정과 워크시트를 포함

한 경남형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도움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남형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도움자료는 자료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활용 주체인 교사를 위해 적합한 내용과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②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 지원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새로운 과목(활동)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교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과목과 활동을 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정책으로써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과목과 활동이 학교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개설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연수를 운영해야 하며, 이는 학교자율시간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로드맵 설계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과목(활동) 설계·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주도성 반영과 새로운 과목의 설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과목을 설계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현장의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목과 활동 개설과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인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원을 강화하되, 학교 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 로드맵을 통해 연차적으로 관련 활동과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④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새로운 과목(활동) 개설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

새로운 과목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소통과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고승진 하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노은실 진양고등학교 교감
양영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
이기용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연구협력관

서미향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사무관
제수만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
김형자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과장

자문위원

강창대 백동초등학교 교장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전)교육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고승진(하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노은실(진양고등학교 교감), 양영삼(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무관), 이기용(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연구협력관	서미향(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사무관), 제수만(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 김형자(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과장)
자문위원	강창대(백동초등학교 교장), 정우석(창원교육지원청 (전)교육장)
주제어	교육행정기관, 행정기관 구조 개편, 행정업무 효율화, 직무분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와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많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조직 현황과 운영실태를 먼저 타시도교육청 조직 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운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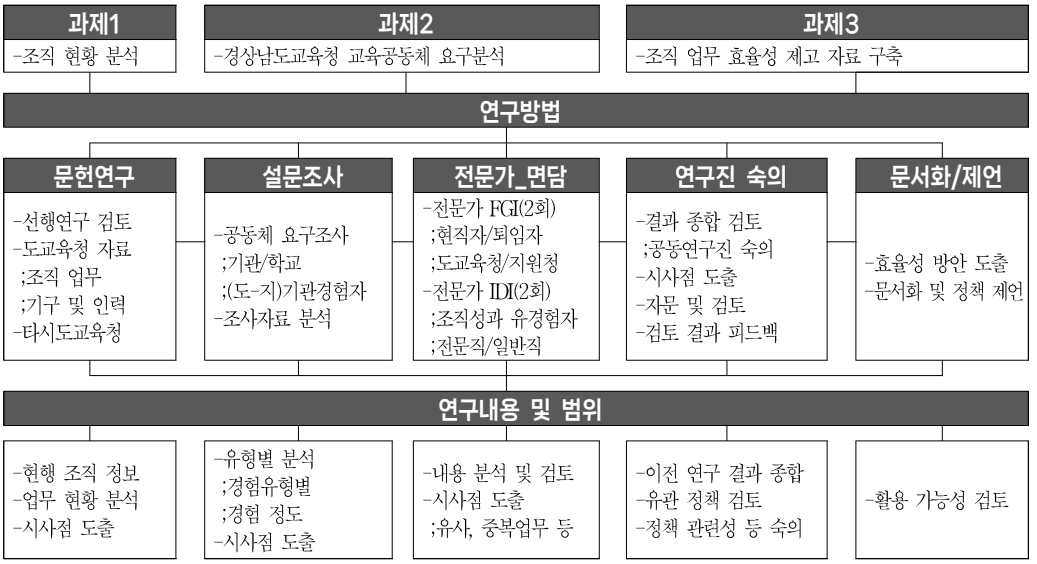
첫째, 경상남도교육청과 타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통한 조직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구조에 대한 교육공동체 요구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위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헌연구,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 내용

각 연구 방법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 내용
문헌연구	*** 선행연구 탐색** - 법/제도, 정책, (학위,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 요약 및 문서화 *** 업무효율화 관련 이론 검토** - 교육행정기관 관련 법·제도 - 조직 및 직무 관련 이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조직분석** - 경상남도교육청과 유사한 시도교육청 선정(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 - 조직 비교(부서 수, 담당 수, 국과장 수, 담당별 인원 수 등)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기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 - 대상: 학교(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교육행정기관(교육전문직, 6급이상 일반직) - 일정: 2023. 5. 18.(목) ~ 25.(목) *** 내용:**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에 대한 제안·요청 의견
면담조사 (IDI/FGI)	*** 면담조사 개요** - 참여자: 조직성과 담당 유경험자 및 전현임 교육행정기관 근무 유경험자 ; IDI-2명(조직성과 담당 경험자: 교육전문직, 일반직) / FGI-8명(장학사, 교장, 과장, 기관장) - 일정: IDI-2023.6.16.(금), 7.10.(월) / FGI-6.23.(금), 6.28.(수) *** 내용:**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에 대한 전문적 의견
자문·검토 협의회	***요구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

4 연구 결과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 등을 통한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적용 시사점</th></tr>
<tr><td>문헌
연구</td><td>
• 조직 개편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조직 변동 추이(2014. 1. ~ 2023. 3., 10년간)
-'과, 담당': 각각 10개, 53개(2015. 3.) → 15개, 81개(2023. 3.), 약 50%, 52.8%가 증가
• 교육행정기관 조직 비교(경상남도교육청 vs. 경상북도교육청)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7">경상남도교육청</th><th colspan="7">경상북도교육청</th><th>비고</th></tr>
<tr><td rowspan="3">현황</td><td rowspan="2">실무자</td><td>장학관</td><td>장학사</td><td>서기관</td><td>사무관</td><td>주무관</td><td>기타</td><td>계</td><td>장학관</td><td>장학사</td><td>서기관</td><td>사무관</td><td>주무관</td><td>기타</td><td>계</td><td rowspan="2">총 담당수
-경남: 82
-경북: 58</td></tr>
<tr><td>29</td><td>110</td><td></td><td>53</td><td>313</td><td>88</td><td>593</td><td>17</td><td>87</td><td>3</td><td>40</td><td>298</td><td>19</td><td>464</td></tr>
<tr><td>국과장</td><td colspan="6">28</td><td>621</td><td colspan="6">19</td><td>483</td></tr>
<tr><td rowspan="3">분석</td><td>담당별 인원수</td><td colspan="7">7.23</td><td colspan="7">8.00</td><td>소계 인원/담당 수</td></tr>
<tr><td>담당별 총인원수</td><td colspan="7">7.57</td><td colspan="7">8.33</td><td>총인원(국과장 포함인원)/담당수</td></tr>
<tr><td>국·과장 비율(%)</td><td colspan="7">4.51</td><td colspan="7">3.93</td><td>국·과장 수/총 인원 수*100</td></tr>
</table>
</td><td rowspan="3">-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직에 비해 과대</td></tr>
<tr><td>설문
조사</td><td>
•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관련 의견(서술식)
- 설문 문항: 조직 개편 및 조직 개선 관련 의견
- 학교 교육활동 지원 중심 조직 개편, 도교육청 축소 및 지원청 역할 강화
* 세부 의견 요약
관행적 업무의 폐지, 불필요 업무나 전시행정, 관행적 또는 중복 사업 폐지, 교육정책 비전 공감대 부족, 교육청 장학 역할 체계화,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본청 부서별(또는 기관별) 업무 공유 및 협업, 불분명한 업무 책임 미루기 자제, 업무 연속성 확보, 직군별 소통강화, 기관(부서) 신설시 신중한 검토, 행정기관 통합, 업무의 정실 처리 지양 등
</td></tr>
<tr><td>면담
조사</td><td>
•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인식 및 방안
<table>
<tr><th>구분</th><th>FGI</th><th>IDI</th></tr>
<tr><td rowspan="2">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인식</td><td>○ 도교육청 조직 비대화</td><td>○ 도교육청의 비대화</td></tr>
<tr><td>○ 조직구조 개편 중심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td><td>○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증가</td></tr>
<tr><td rowspan="4">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td><td>○ 본청 조직 축소 및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도교육청 슬림화와 교육지원청 지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역할 재정립</td><td>○ 도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축소</td></tr>
<tr><td>○ 기관 통·폐합 및 관련 법령 정비
-부서/기관 통·폐합 및 거점교육지원청 운영
-조직 업무 효율화 관련 법령 정비
-감사업무의 효율화</td><td>○ 업무 재구조화(업무 빼기)</td></tr>
<tr><td>○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전문성 부족
-전문인력 업무 담당 기간 확보</td><td>○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td></tr>
<tr><td></td><td>○ 예산 운영의 효율화</td></tr>
<tr><td></td><td>○ 학교장의 역할 강화</td></tr>
</table>
</td><td>-도교육청 슬림화
-학교 교육 지원 중심 조직 개편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목적사업 축소 및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td></tr>
</table>

5 정책 제언

앞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효율화 방향과 교육행정기관 운영체제 정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분	방안 및 제언
교육행정기관 업무 효율화 방향	1)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 -조직개편 방향 설정의 적절성 -목적사업의 축소 및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업무처리 간소화 2) 도교육청 역할 축소 및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기관 간 업무 및 권한 위임 등 검토와 조정(고교학점제, 인사, 감사 기능 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책임감 강화(신뢰성 확보) -기피 업무에 대한 업무 연속성 향상 방안 마련: 임기제 장학사 제도 도입 검토 3)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업무수행 -민주적 의사결정, 직무분석에 근거한 업무 배치, 자율적 사업 평가와 조정 -사업영향평가제 도입, 업무 총량제, 불필요 사업 일몰제 시행, 담당 수 관리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체제 정비	1) 조직성과 업무의 체계화 -업무별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처리 및 체계적 자료 관리 -T/F를 통한 기관별 업무 정비 2) 교육행정기관 간의 역할 명료화 -기관별 비전 설정 및 가치 공유 -기관별 중복 또는 유사 업무에 대한 가름 3) 교육행정기관 관련 관행적 업무, 조례 등 정비 -정부 정책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의 일치성 검토 -정책 방향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정비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이정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구사
송태은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사
오혜진 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설우진 웅남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형남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장학사
전진양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서행련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장
강형천 호암중학교 교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도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이정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송태은(고성중앙고등학교 교사), 오혜진(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설우진(웅남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형남(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장학사), 전진양(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서행련(김해삼문고등학교 교장), 강형천(호암중학교 교장)

주제어	자기관리 역량, 고등학생, 역량 강화, 핵심역량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능력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 시기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처하고, 삶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역량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학교 교육에서 역량 개념이 널리 확산되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개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개의 핵심역량 중에서 특히 자기관리 역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스스로 학습 시간을 확인하여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자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기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기관리 역량은 학습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 중 다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자기관리 역량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삶에서 자기관리 역량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학교의 교육계획서 상에는 다른 핵심역량과 더불어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학업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자기관리를 힘들어하고, 자신의 진로나 목표 설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 입시에 대비한 방대한 양의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의 서열화를 위한 평가의 과정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관리 역량은 개개인의 타고난 역량이라 교육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관리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과 실제 학교 일선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나 지도의 경험을 조사하여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미래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전 마지막 준비과정이며, 학생들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전체 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자신의 장기적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계획을 세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과정을 통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핵심역량 관련 이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의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둘째, 경남 고등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측정하고,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 학생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경남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교육 활동 운영 경험과 요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 및 교과 교사,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기관리 역량이 높은 경남의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이 높은 학생의 평소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법, 자기관리 역량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 경험 및 생각, 교사가 생각하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법,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연구진과 함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내용

첫째, 역량 및 핵심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 자기관리 역량 및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경남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수준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수준,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자기관리 역량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 및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경남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및 학생 자기관리 역량 교육 활동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자기관리 역량에 관한 인식, 학생 자기관리 역량 교육 활동 운영 현황 및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양적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통해 경남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남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운영 사례와 운영의 어려움, 요구 사항, 개선 방법, 경남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법 및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고등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한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을 성별과 학교 유형별 차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자아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의식의 하위 요소인 자기이해와 자아정체감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하위 요소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관리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확신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요소인 진로계획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관리 역량 측정 문항이 자기 보고식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적적 자아의식, 자기확신, 진로계획성 등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은 순서를 정해서 일을 처리한다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는 일과 같이 섬세한 자기관리 면에서는 남학생보다 높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 유형에 따른 자기관리 역량을 분석했을 때 긍정적 자아의식에서는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자아의식의 하위 요소인 자기이해에서는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성과 그 하위 요소인 성취동기에서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서는 학교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요소인 진로독립성에서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목고의 학생이 전반적인 면에서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자기관리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과 비교했을 때 실습이나 전문 교과 수업 등 학교에서의 특성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자신의 관심사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17.96%), '그렇다'(33.77%)로 응답한 교사는 약 50%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의 성장에 자기관리 역량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생의 약 57%, 교사의 약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경우,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 중 '자신감 획득'이 자기관리 역량과 가장 관련이 높고, 그다음으로 '자기 이해 및 정체성 확립', '기초 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순으로 관련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자기 이해 및 자아정체성 확립',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순으로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자기주도적 자기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은 자기관리 역량을 전통적인 자기통제 및 조절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6%였으나, 학생은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81%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방법 중 '프로젝트', '과제 수행', '교과 시간 외 상담' 순으로 경험을 이야기한 반면, 교사는 '교과 시간 외 상담'이 약 31%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과제 제시', '프로젝트'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실시 주기도 학생들은 '학기별로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육 활동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사와 학생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보인다. 즉, 교사 응답자가 자기관리 역량 강화는 상담, 훈육, 강의로 이뤄진다고 본 것에 비해 학생 응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 응답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 여부와 자기관리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세 하위 요소와 각 요소의 세부 문항 모두에서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자기관리 역량이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도움 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자기관리 역량(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꼭 실시해야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이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한 179명에게 자기관리 역량 강화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 32.76%가 '교육 활동의 방법이 그다지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상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교사가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해 왔던 상담, 훈육의 방법을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상관이 없는 활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자기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관리 역량 교육 활동이 지속적이지 않아서', '시험과 관계없어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입시 위주의 현재 사회문화적 환경'과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었고 그 외에 '구체적인 활동 설계의 어려움', '주변 동료나 학생, 학부모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입시 위주의 현실은 곧 소위 말하는 '진도'에 쫓겨 일제식 수업으로 달려가고 있고, 입시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습 진도의 이유로 활동을 실시할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42.31%)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관리 역량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기 이해와 성찰', '성실함과 꾸준함', '진로 설정과 계획 수립', '건강 관리', '정서 관리', '교외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인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보급', '가정과의 연계',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실시가 어려운 교육 현실'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타났다.

면담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면담조사 대상자인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자기관리를 긍정적 자아관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통제와 성찰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설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과 시간의 관리, 책임감과 집중력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자기관리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실천의 과정에서 자기 이해 및 성찰, 자기 통제 및 절제, 신체적·정서적 건강, 본인의 의지와 노력, 기본 생활습관

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관리 역량의 개념이 유사하고, 앞선 설문조사에서 교사는 '자기 이해 및 정체성 확립'과 '자기 통제 및 절제'가 자기관리와 가장 관련이 높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은 '자신감 획득'과 '자기 이해 및 정체성 확립'이 자기관리와 관련이 높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면담조사 대상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 10가지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자기관리 역량 요소로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를 제외한 8개의 요소가 응답으로 나왔다.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습관 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은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부모 등 가정 환경'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외에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참여형 수업 등 학교에서의 활동', '개인 성향', '친구의 영향' 등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학교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학교에서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은 꼭 실시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넷째, 면담조사 대상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관리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플래너나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시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통제된 환경을 찾아 스스로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신체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거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면담조사 대상자인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내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프로젝트, 학생 참여형 활동, 토의·토론, 상담, 훈화 등의 방법으로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들은 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참여 등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나 동아리활동, 학급활동, 학생회 활동 등이 도움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진로 탐색과 진로 발견을 위한 진로 활동과 멘토링 활동 등을 도움되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으로 꼽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자가관리 역량 교육 활동을 설계할 때 프로젝트나 학생 참여형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관리에 도움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특정 역할을 맡아 모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량과 함께 길러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기관리 역량 교육 활동 운영 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 획득 등의 긍정적 변화를 나타냈으나, 학생들의 개인 차에 따라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꼭 있어야 하겠고, 의욕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 방법이나 유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학생 자기관리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학생의 인식, 태도, 참여 부족, 1:1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시간 부족, 주변 동료 교사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을 때,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움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일된 매뉴얼이나 체계적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여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통일된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기적, 장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교육 공동체가 토의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학생들의 동기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학교 규모 축소, 교사 1인 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업무량과 학생의 학습량 경감을 통해 시간적 여유 확보, 예산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귀찮음, 나태함으로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나 의지 부족, SNS나 전자 기기, 친구 등의 유혹의 요소, 목표 부재, 체력 부족, 주변의 분위기, 압박감 등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학교에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수업, 진로 행사, 교사의 도움, 학생 간 교류, 환경 개선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현재

의 창체수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유의미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교과 수업도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이나 발표, 질문,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직업인 초청이나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진로 관련 행사도 지금보다 더 증가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전자기기 사용이나 학업 분위기 조성 등에서 교사의 통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넷째, 학생들 간의 자발적 교류를 통해 학업이나 자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운동장이나 학습 공간 등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5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고등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단위 학교 수준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연구, ②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제언하였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①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 ②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전학공 지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 학교 차원에서 ①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계획 수립, ②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경험을 위한 환경 조성, ③ 가정과의 연계 활동 노력을 제언하였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교과보충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과제

연구진

연구책임자
진영학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류주완 감계초등학교 교사
박준성 금산초등학교 교사
김지은 김해부곡초등학교 교사
노연실 월산중학교 교사
우혜림 신반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최진수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정선미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이영주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강성희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자문위원
신경초 감계초등학교 교장
오재숙 신어중학교 교감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교과보충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과제

연구책임자	진영학(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파견연구교사)
공동연구원	류주완(감계초등학교 교사), 박준성(금산초등학교 교사), 김지은(김해부곡초등학교 교사), 노연실(월산중학교 교사), 우혜림(신반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최진수(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정선미(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영주(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강성희(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신경초(감계초등학교 교장), 오재숙(신어중학교 교감)
주제어	학습복지, 학습격차, 누리교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 교육결손이 확인되었고, 교육결손이 학생 개인의 생애 전반과 국가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교과보충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보충 누리교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5학년도까지 5년간 지원되는 국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합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체계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 현장의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을 개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 계획서 분석

○ 학습결손 회복,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분석

○ 학습결손 해소에 관한 주요 학술연구 분석

나. 설문조사

○ 2023학년도 경상남도 교과보충 누리교실 기본 현황 자료 분석
○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 대상 설문조사
- 교과보충 누리교실 운영 실태
- 교과보충 누리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견과 요구

다. 면담조사

○ 초·중학교 교사 대상 면담조사를 통한 누리교실 운영 내실화 방안 도출

3 연구 내용

가. 교과보충 프로그램 동향

○ 교과보충 프로그램 개요: 추진 경과, 목적, 개념, 운영 현황
○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나.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실태

○ CIPP 평가 모형을 통한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의 다면적 실태 분석
- 상황평가 영역: 정책 목적, 사업 방향
- 투입평가 영역: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책 지원
- 과정평가 영역: 수업 준비, 수업 실행
- 산출평가 영역: 사업 관리

다.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 과제

○ 실태 분석 결과와 면담조사 의견을 종합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4 연구 결과

교과보충 누리교실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2,880명과 교장·교감 499명이 응답하였다. 향후 누리교실 사업의 방향에 대해 교

사의 83.0%, 교장·교감의 61.5%는 '사업 유지 또는 확대', 교사의 17.0%, 교장·교감의 38.5%는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93.4%와 교장·교감의 80.0%는 교육청의 누리교실 사업 운영·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교사의 96.9%는 학교의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장·교감의 85.6%는 누리교실 지도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누리교실 참여도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77.3%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7.1%에 불과하였다. 누리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인식'과 '학생의 낮은 참여도'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볼 때, 누리교실의 목적과 대상 등을 재고해서 학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낮은 누리교실 참여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낙인효과'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낙인효과 방지와 프로그램 참여도 제고를 위해 '학생에게 누리교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누리교실 사업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강사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누리교실 사업 시행 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활동도 강사수당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누리교실 사업이 다른 교육활동 강사수당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2만 원 내외로 유지된 시간당 교육활동 강사수당에 대해 교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강사수당 적정성에 대해 학교급별, 직급별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직급별로 강사수당의 적정성에 관해 인식 차이가 있는 주요 원인은 교사의 교육활동 강사수당에 관한 명확한 지급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동안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강사수당은 학교 상황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 왔으나, 그 지급 기준과 근거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했으므로, 차후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강사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과보충 누리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와 학습결손 누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누리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학력 향상 정책은 학업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하지만 누리교실은 2025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교육복지 관점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기회와 과정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 정책 제언

① '모든 학생'을 위한 누리교실 프로그램으로 인식

학생과 학부모가 누리교실을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과학습이 더 필요한 '모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누리교실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설문과 면담에서 제시된 교사 의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누리교실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보충수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그램 선택을 전제하지 않고 운영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참여 대상자를 '실패자(loser)'로 낙인찍는 오류를 가진다. 누리교실과 같이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학생 스스로 참여할 프로그램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② 누리교실과 두드림학교 간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 필요

학교 현장에서 중복 사업으로 인식하는 누리교실과 두드림학교 간 목적과 대상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누리교실과 두드림학교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학습격차' '보충' 등과 같은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는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교육복지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구조화된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또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담론을 바탕으로 누리교실과 같은 사업에서 다룰 주요 용어를 선별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해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목적을 설정한 후에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③ 학년 단위 운영 방식 확대

중·고등학교의 누리교실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초등학교는 학년에서 누리교실 프로그램의 주제와 수준을 계획하는 '학년 단위 운영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학급 단위 운영 방식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상황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어렵게 하지만, 학년 단위 운영 방식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주제 선정과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을 보장하므로 학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④ 누리교실 운영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 모색

누리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운영사례를 공유해야 하며, 사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설문과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누리교실 프로그램이 학교의 상황과 여건, 교사의 역량, 교사-관리자 간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누리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계획이나 당해 공문을 참고할 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 운영사례를 포함한 누리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학교에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관련 정책과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⑤ 학교 안과 학교 밖 누리교실의 비중 조정

학교급별 상황과 여건, 학생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밖 누리교실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누리교실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수요는 학교 안 누리교실에 비해 많지 않다. 또한 학교 밖 누리교실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기에는 학생 관리 측면에서 흔히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생은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고 학생 관리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급별로 학교 안과 학교 밖 누리교실의 사업 비중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문경화 월영초등학교 교사
최진태 대아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박시동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현정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이민희 희망숲심리상담센터 소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문경화(월영초등학교 교사), 최진태(대아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박시동(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현정(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이민희(희망숲심리상담센터 소장)
주제어	마음챙김, 직무스트레스, 소진, 주관적 행복,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팬데믹 이후 학교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복지와 학습 지원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교육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웰빙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교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적 차원의 일로 여겨왔으며 정신적 피해 발생 시 힐링 연수와 같이 주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 대상의 힐링 체험 지원은 일시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한 부적 자극에서 떨어져 휴식을 제공하는 외적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교사 스스로 스트레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직무스트레스, 소진에 시달리는 교육 현실 속에서, 교사 자신의 마음관리를 통해 심리정서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마음챙김 기반의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의 심리정서적 자원을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마음챙김 기반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교원의 스트레스 및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교원 마음챙김 교육 및 마음챙김 기반 중재 프로그램의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및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뇌과학적 증거, 그리고 명상수련의 교육 개념모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챙김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교원 대상의 마음챙김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심리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사 마음챙김과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남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원 대상으로 매주 3시간 총 8회기로 2달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처치를 가한 실험집단과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전과 후(사전-사후)의 종속측정치들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뿐만 아니라 실험집단 내 프로그램 측정시기(사전-사후-추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양적 분석 외에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나 효과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제출한 활동일지 및 주간 피드백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및 소감을 적은 내용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첫째, 교원 대상의 마음챙김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심리치료 및 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SC(Mindful Self-Compassion)의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학생용 프로그램으로는 L2B(Learning to BREATHE), MindUP 프로그램을, 교사용 프로그램으로는 MBWE(Mindfulness-Based Wellness Education), CARE(Cultivating Aware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laxation Techniques)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사 마음챙김과 직무스트레스, 소진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예방변인으로 마음챙김에 주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에 있어 마음챙김이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 마음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일정 부분 경험될 수밖에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마음챙김 기반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마음챙김 및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교사 마음챙김과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심리정서적 자원을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4 연구 결과

□ [연구 1] : 교사 마음챙김과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

본 [연구 1]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

에서 마음챙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소진의 관계 및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마음챙김이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소진 및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마음챙김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마음챙김이 조절하여 교사소진을 어느 정도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마음챙김은 직무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하여,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이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에서 떨어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자신의 마음관리를 통해 내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ㅁ [연구 2] :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마음챙김 기반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교원의 스트레스 및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된 종속변인별 점수가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사전-사후)에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자기수용'과 '긍정정서'를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사전검사의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자기친절' 외에 모든 종속변인에서 사전검사의 점수와 사후검사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기친절'의 경우는 반대로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은 우울, 분노, 신체적 반응과 같은 스트레스 및 주관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부정정서는 감소시키고, 현재의 경험에 대한 주의 및 마음챙김적 알아차림, 자신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연민, 감사, 공감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비록 '자기수용'과 주관적 행복의 하

위요인인 '긍정정서'에서는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어느 정도 향상된 경향성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은 교원의 스트레스 및 부정정서는 감소시키고, 공감능력, 연민, 감사 등과 같은 긍정적 사회정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지속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내 프로그램 운영 전 사전검사, 8회기 종료 후에 사후검사,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의 추후검사 시기에 따라 종속측정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수용,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들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평균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마음챙김 기반 교원 웰빙 증진 프로그램이 우울, 분노, 신체적 반응과 같은 스트레스 및 부정정서는 감소시키고, 현재의 경험에 대한 주의 및 마음챙김적 알아차림, 자신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연민, 감사, 공감능력,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전, 사후, 추후의 각 측정시기별 평균 변화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측정시기별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응비교를 통해 시기별 종속변인들의 평균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경험에 대한 주의 및 마음챙김적 알아차림, 우울, 분노, 신체적 반응과 같은 스트레스, 감정조절력, 자기친절, 감사하기의 경우는 사전-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추후 시기까지 프로그램의 처치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 훈련의 과정변인이라 할 수 있는 마음챙김, 연민, 감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변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울, 분노, 신체적 반응을 포함하는 스트레스 및 감정조절력에 미치는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 4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능력, 자기비판, 삶의 만족도, 부정정서의 경우에는 8주 과정의 프로그램 처치 기간 동안에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프로그램 종료 4주 후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을 포함한 대인관계력,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를 포함한 주관적 행복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축적됨으로써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원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마음챙김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효과가 누적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교원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 지원 방안을 교원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방안과 심리적 웰빙 증진 방안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교원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으로는 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대, ② 교원 대상의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및 마음건강 관리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교원의 심리적 웰빙 증진 방안으로는 ① 마음챙김 훈련을 통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다양한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② 교원의 마음챙김 교육을 위한 직무 연수 과정 개설 및 의무연수화, ③ 교원의 마음챙김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및 마음챙김 전문가 양성을 제안하였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생태전환교육 중심의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구혜미 주촌초등학교 교사
박윤경 성산초등학교 교사
이헌수 양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다운 진영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배경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박시동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박연주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송호찬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문위원

김지연 마산구암고등학교 교장
조규갑 대방중학교 교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생태전환교육 중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구혜미(주촌초등학교 교사), 박윤경(성산초등학교 교사) 이헌수(양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다운(진영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배경환(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박시동(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박연주(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송호찬(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문위원	김지연(마산구암고등학교 교장), 조규갑(대방중학교 교장)
주제어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 학생수련기관,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체험활동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자연훼손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의 발생은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유엔 산하 기구를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위협은 여전히 걷히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영역에서도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여러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도교육청 산하의 학생수련기관(학생교육원)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정책 당국은 학생교육원 재구조화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생태전환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에 대한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수련기관 운영 재구조화'의 방향을 잡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교육원 비전, 역할, 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교육원이 생태전환교육 중심 수련·체험 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의 설정과 운영 시스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시도교육청별 생태전환교육 및 학생수련기관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둘째, 생태전환교육 및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요구분석

셋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재구조화 방안 도출

2 연구 방법

앞의 과제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헌연구,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

3 연구 내용

연구 방법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 내용
문헌연구	* **선행연구 탐색** - 법/제도, 정책, (학위,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 요약 및 문서화 * **타 시도교육청별 사례 조사** - 생태전환교육 관련 정책 - 학생수련기관 운영 실태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1차: 기관 및 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 - 2차: 유·초·중·고 교원 * **내용:**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요구(1차),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인식(2차)
면담조사	* **면담조사 개요** - 참여자: 1차(FGI): 학생교육원 운영 실무자, 2차(IDI): 생태전환교육 기관 책임자 - 일정: FGI- 2023. 8. 24.(목) / IDI- 2023. 8. 30.(수) * **내용:**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 생태전환교육 방향
전문가협의회 (T/F)	* **생태전환교육 중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안(비전, 추진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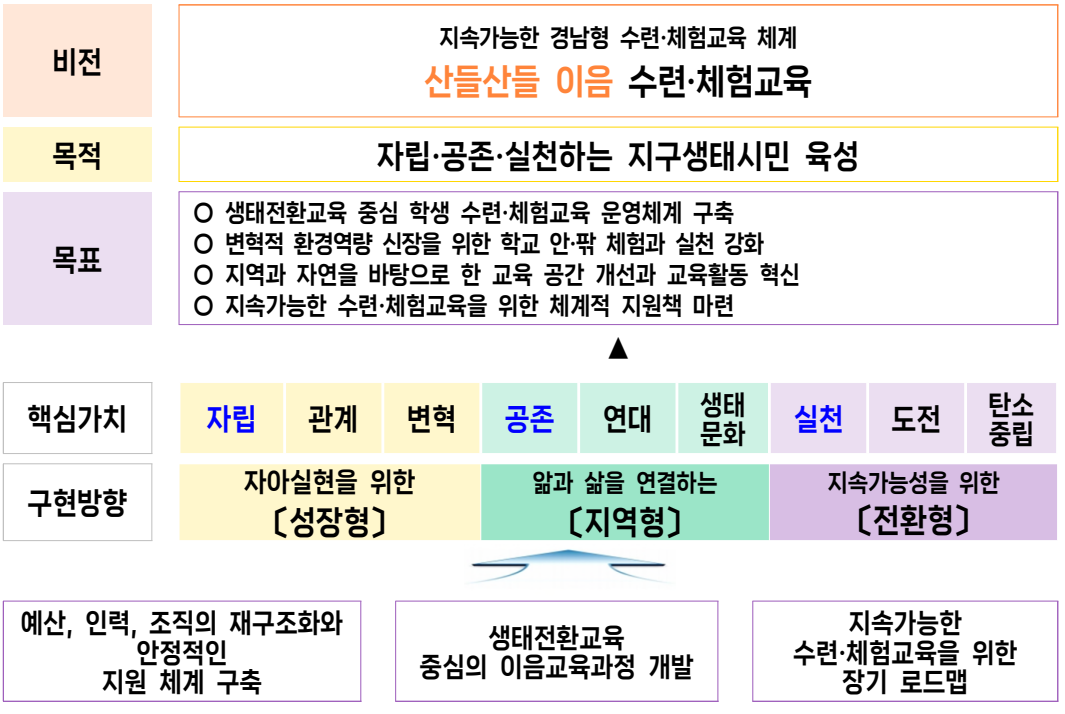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 등을 통한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문헌 연구	✓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 요구 - AI 등 기술의 진보,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 증대 ✓ 생태전환교육 실시 법·제도적 근거 출현 - 환경교육법, 교육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수업 혁신 요청 - 생태·환경교육에서 수련·체험교육의 중요성 대두 ✓ 해외 생태-아웃도어교육 사례 - 정규 교육과정의 아웃도어 교육: 싱가포르, 덴마크 등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속발전교육: 프랑스, 영국 등	①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추진 - 학생수련기관 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 - 실천 중심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원 ② 수련·체험교육 확대 - 지식 중심에서 경험 중심 교육 - 반성과 성찰이 있는 수련·체험교육 ③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활동 전개 - 사람-자연-사회 간의 관계성 학습 - 공동체성 습득, 변혁적 환경역량
설문 조사	✓ 전체적으로 인식도 낮음 - 생태전환교육을 환경교육/기후위기대응교육과 동일시 - 생태전환교육 담당은 '교사 누구나', '외부 전문가' 선호 ✓ 생태전환교육 실천 정도 - 응답자 1,451(50.4%)명이 실천한다고 응답함 - 실천 교사 중 871명(60%)이 주당 1시간 미만 실천 - 유치원>초등(저)>초등(중)>초등(고)>중학교>고등학교	①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 교사 대상 연수 - 홍보 ② 실천 중심의 생재전환교육 - 체험 및 실천 기회 증대 -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 전체적으로 학생수련기관 인식도 낮음 ✓ 학생수련기관 이용률 낮음 - (대상)교육전문직> 교원> 행정/공무직> 학생/학부모 - (이유)정보부족> 대상아님> 결정안함> 접근부족 ✓ 생태·환경교육 역할 수행 유무는 보통 ✓ 학생수련기관 이용경험별 운영 선호 유형 - 무경험자: 학교방문_당일형, 수련기관_당일형 순 - 유경험자: 수련기관_2박3일, 수련기관_1박2일 순	① 플랫폼 구축 및 홍보의 강화 ② 학교와의 연계성 강화 - 교사 대상 연수 - 홍보 및 접근성 제고 ③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양질 제고 ④ 학생수련기관 운영 유형 다양화 - 무경험자: 당일형 프로그램 선호 - 유경험자: 숙박형 프로그램 선호
면담 조사	✓ 학생수련기관 인지도 및 이용률 낮음 ✓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 생태전환교육 실천력 강화 ✓ 학생수련기관 생태전환교육 실행 ✓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태전환교육 중심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방향	① 학생수련기관 홍보 및 기관 역량 강화 ② 주변 자연환경 활용 방안, 투자 확대 ③ 개념 명확화, 홍보, 연수, 분위기, 대입 ④ 생태전환의 가치 공유, 수혜 폭 확대 ⑤ 경상남도 네트워크 연계, 환경체험학습 ⑥ 프로그램 지향점 명확화, 프로젝트형 ⑦ 기관 간 차별화 및 협력, 전문인력 확보
전문가 협의회 (T/F)	✓ 현, 학생수련기관 문제점 - 학생 수용력 및 숙박 시설 한계 - 시설 및 프로그램 노후화 ✓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의 범위와 순서 - 수련기관 재구조화시 본원-분원 체제 고민 - 학교, 수련기관, 지역 연계 및 역할 설정 - 생태전환교육의 점진적 또는 급진적 도입 유무 - 기후환경추진단과의 역할 설정 ✓ 학생수련기관과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지원 강화 -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 - 생태전환교육의 지속성 확보	①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범위 - 학생 수용력 확대를 위한 시설 - 지구위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② 학교와의 연계성 강화 - 수련기관 독립성 확보, 플랫폼 운영 - 유기적인 연계, 소통/협력 - 기존 프로그램에 생태적 가치 반영 - T/F는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활동 ③ 학생수련기관 운영 유형 다양화 - 교육의 확장(자연, 네트워크 등) - 지원단 구성하여 지속 지원

5 정책 제언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경남 학생수련기관 재구조화 비전체계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 영역별 세부 과제를 방안으로 도출하였다. 정책 당국에서는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추진 영역	세부 과제	
1. 기반 조성	1-①	이음교육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조화
	1-②	협력적 네트워크(MOU)와 기반 조성
	1-③	'아이좋아! 산들산들 이음 수련·체험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2. 체계 구축	2-①	환경역량과 핵심 가치에 근거한 교육 체계 구축
	2-②	산들산들 이음 교육과정 모형 개발
	2-③	기후행동 '모두모두' 생활교육 실시
	2-④	사계사색 및 지역 연계 특색 프로그램 실시
	2-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유형 다양화
3. 환경 조성	3-①	자연 속 저탄소 친환경 학생교육원 환경 조성
	3-②	초·중·고 이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교육원 설립
	3-③	수련·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4. 확장 지원	4-①	지역 자원 활용한 학습생태계 확장
	4-②	이음교육을 실현하는 모두의 역량 강화
	4-③	지속가능한 이음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교사 행위자성에 기반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문지훈 삼천포고등학교 교사

박병준 창원용호고등학교 교사

윤명희 에듀벤처 교육트레이너

윤태영 오봉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이진숙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관

김인철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백기열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진양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오재숙 신어중학교 교감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교사 행위자성에 기반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문지훈(삼천포고등학교 교사), 박병준(창원용호고등학교 교사) 윤명희(에듀벤처 교육트레이너), 윤태영(오봉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이진숙(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관), 김인철(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백기열(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진양(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오재숙(신어중학교 교감)
주제어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새로운 교사 전문성, 교사 행위자성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지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들은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교사 학습공동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성과가 어떻게 공유되고 확대·재생산되는지 등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사 행위자성 발현의 장이자 매개로서 교사 학습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며, 향후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사례 조사, 면담조사, FGI(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학교 교육 변화와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성을 알아보고, 해외와 국내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교사 학

습공동체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았다. 사례 조사에서는 교사 학습공동체 네 곳을 대상으로 활동 목적과 내용, 운영 방식, 특징 등을 알아보았다. 이후 면담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경험을 알아보고, FGI(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 및 행위자성 함양을 위하여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의 운영 방향과 필요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기존 연구에서 교사 행위자성, 교사 학습공동체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활동 경험을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교사 학습공동체의 연구모임에서 교사들이 수업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어떻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생산하는지 그 성과가 확산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 학습공동체 경험이 교사의 성장과 교사 행위자성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의 성과를 확대·재생산하고 교사들의 행위자성을 발현하기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교육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성은 무엇이며 교사들은 이런 전문성 함양을 위해 어떻게 학습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교사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중 교사가 주체가 되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그 성과를 자율적으로 공유하고 성과를 확대·재생산하는 교사 학습공동체에 주목하게 되었고,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를 수행하며, 먼저 해외와 국내의 디지털 교육정책을 알아보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EDAP 사업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정책 및 사례를 통해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4개의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해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이 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들은 기존의 지역 기반, 대면 모임의 전통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기반, 온라인 모임으로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며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하여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10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자가 연수'나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듀테크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학습하고 있었다. 에듀테크 학습공동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자료 공유', '특강(연수) 수강', '정보 공유'가 있었다.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로는 '새로운 에듀테크에 관심 증가', '에듀테크 관련 지식 & 기능 획득',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로 수업에 만족', 활동을 통한 '교사로서의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 등이 있었다.

면담조사를 통해서는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학습과 성장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최근 학습공동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는 향후 학습공동체의 운영 전략 구축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면담조사를 통해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의 배경 요인, 촉진 요인, 장애·방해 요인,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배경 요인으로는 '전문성 향상의 욕구'와 '높은 참여 준비도', '도전을 즐기는 성향', 촉진 요인으로는 '스스로의 필요', '뚜렷한 공동의 목표', '자율성', '허용성과 유연성', '유대감 & 동료 의식', '공동체' 의식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장애·저해 요인**은 내부와 외부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내부요인으로는 '보수적·칸막이식 교직 문화', '변화 거부 & 매너리즘', '구성 & 운영의 어려움', '동기부여의 어려움', '낮은 기대치와 만족감', '리더 부재/역량 부족', '낮은 준비도 & 부족한 전문성', 외부요인으로는 '열악한 여건', '우선순위에서 밀림', '성과주의 문화', '많은 요구 & 부재한 보상'이 도출되었다. **정착 요인**으로는 '가치 공유 & 규범 설정', '자발성 촉진', '공유문화', '반성적 실천', '다양한 기회 제공', '정서적 만족감', '수평적 리더십'이 도출되었고, **활성화 요인**으로 '인정 & 보상', '조직문화 형성', '변화 추구', '주변인 참여 촉진을 통한 외연의 확장', '차세대 리더양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행위자성 발현을 위한 에듀테크 교사 학습공동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경력별·학교급별 교사**

맞춤형 지원',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지원 방안'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는 학습자와 교수자 이중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들은 학습에서도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참여의 '자발성',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학습공동체가 '교사의 행위자성이 발현'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습·활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교사들의 학습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느슨한 형태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도 더욱 왕성해질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전화에 힘입어 변화하고 있는 교사 학습공동체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정책 제언

교사 전문성 개발, 협력적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교사 학습공동체는 ① 실행연구를 통한 실천의 공동체 역할, ② 교사 학습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 활용, ③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④ 활동 활성화 플랫폼 & 교사 활동 인정 및 보상 시스템 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1> 실행연구를 비롯하여 연구, 개발, 실천의 공동체 역할 수행

실행연구는 교육실천상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실천 개선을 위하여 현장 교사가 추진하는 연구이다. 지식의 실제적인 가치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지식이 만들어지는 맥락과 그 지식이 활용되는 맥락이 동일하여야 한다(김한별, 2012). **교사 학습공동체 내에서 교사들은 이런 실행연구를 실천함으로써 수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형성·총괄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평가하여 다시 수업에 피드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과 학습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그 고충을 덜어주고 장애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제안 2> 교사 학습공동체 프로토콜 활용

교사의 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 학습공동체의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교사 학습공동체의 리더나 구성원들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거**

나 모임을 만들 때 구성원들의 합의로 형성된 프로토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제안 3>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① 네트워킹 허브 공간에 대한 지원
②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③ 교사 학습공동체 리더의 지속적 양성
④ 교사 학습공동체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동료의 성장을 촉진하는 마음, 유연한 운영 등의 리더십

<제안 4> 활동 활성화 플랫폼 & 교사 활동 인정과 보상 시스템 구안

교육청 단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습공동체의 활동과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킹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연동하고, 사용 교사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 학습공동체 참여 교사의 활동 인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양한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세분화하고 영역별 역량 트리나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교사는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 관련 포트폴리오 관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보상 차원에서는 교사 학습공동체와 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 기록 및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 차년도 예산을 추가 지원하거나 해당 교사 학습공동체가 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줄 수 있다. 참여 교사의 경우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 사항을 플랫폼에 탑재된 교사 성장 포트폴리오에 기록하면 교육청의 관련 정책 TF팀, 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및 추진 방안 탐색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강노윤 창원남산유치원 원장
김영주 통영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애주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교육연구사
황영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곽규태 외간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유강민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김성경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희숙 무동꿈유치원 원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및 추진 방안 탐색

연구책임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강노윤(창원남산유치원 원장), 곽규태(외간초등학교 교사) 김영주(통영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애주(경상남교육청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교육연구사) 황영옥(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연구협력관	유강민(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김성경(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김대욱(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희숙(무동꿈유치원 원장)
주제어	유보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교육, 교사통합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래된 난제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유아학교로의 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및 3단계 유보통합 추진 방안 마련 등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출생부터 책임 교육 및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보통합은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왜 유보통합은 실현되지 않았는가? 향후 유보통합 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된 쟁점 중 교사의 자격과 처우 문제는 이견이 많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다양한 측면

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부모의 정책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향후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방안을 탐색하였다.

2 연구 방법

첫째, 유보통합 관련 국내·외 경향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역대 정부별 유보통합 정책 및 OECD 주요국의 유보통합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주요 쟁점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교사통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언론에 나타난 유보통합에 대한 주요 논점 및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한 박근혜 정부 시점부터 국정과제로 채택한 현 윤석열 정부까지 총 10년간(2013. 2.~2023. 5.)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경남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특수교사 포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3급, 2급, 1급)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내용

첫째,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분석 및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검토하였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유보통합 정책 사례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현 정부의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의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유보통합을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래 현 정부의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 내용 및 추진 경과를 검토하였다.

둘째, OECD 주요국의 유보통합 동향 분석 및 교사통합 관련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OECD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유보통합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중 영유아 교사통합과 관련하여, 교사 자격체계, 양성과정, 처우 개선, 신분 및 신분보장의 4가지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영유아 교사통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경남 영유아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남의 영유아 인구 현황 및 유아교육과 보육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경남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추이, 18개 시군별 영유아 장래인구추계, 경남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및 이용 아동 수 추이,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원 추이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먼저, 유보통합에 대한 주요 논점 및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기사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교사통합 방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의 격차 인식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역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및 OECD 국가의 유보통합 동향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분석 등을 종합하여,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중심의 유아교육·보육 통합모델 구축 방안 및 영유아 교사통합 방안을 제언하였다.

4 연구 결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탐색

언론에 나타난 유보통합에 대한 주요 논점 및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 관련 키워드에 대한 TF(Term Frequency) 분석 결과, TF에서는 '보육'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 반면, 핵심어 및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에서는 '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보통합에서 교사 변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키워드 가운데 '보육, 유치원, 어린이집, 자격증, 취득'은 TF와 TF-IDF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TF-IDF 분석에서는 '교육, 아이, 자격'이 10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의 영유아 책임교육, 아이들의 행복한 삶, 교사의 자격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유보통합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교사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추출된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군집 1은 영아, 유아, 정부, 교육, 정책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영유아교육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이 묶였으므로 '국가의 영유아교육 정책'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교육부, 교육청, 추진, 논의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인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 구조에서 이제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부처로서의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된 단어로 묶였으므로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자격증, 학점은행, 취득, 급수, 대비, 과목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이는 유보통합 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단어들이므로 '보육교사의 자격'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정교사, 아이, 교육과정, 자격, 문제, 방안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과 관련된 단어들로 해석 가능하여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가의 영유아교육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제고 관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의 격차 해소 및 교사자격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 분석

경남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자격취득 경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원의 자격취득 기관은 2, 3년제 대학이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 20.5%,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대학 17.1%, 4년제 대학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4년제 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및 법인단체 어린이집 교사의 대략 70% 이상은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서 최초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대부분은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70% 이상은 4년제 대학에서 최초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서의 취득 비율이 대략 반반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자를 제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교직 경력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에는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경력 10년을 기점으로 교직경력자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여,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10년~15년 미만부터 경력자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는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나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 비율이 엇비슷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5년 미만의 교사 비율이 가장 많고 점점 감소하여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의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사의 신분에 대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아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육아휴직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경력 교사의 비율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그리고 고경력 교사의 근속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병설 유치원은 혼합연령 학급운영이 60.4%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 1인당 처리하는 업무 과중, 방학 중 급식 지원 등 여러 제반 조건이 단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단설 유치원의 경우도 저출산으로 유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같이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행사나 특별활동의 추가된

일과 운영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아들의 쉼이 있는 놀이시간 부족 등을 호소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국가수준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교육 여건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집 교원은 대체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 교원은 유보통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교원들은 유보통합을 하면 유치원에서 0~2세 영아를 담당해야 한다거나 또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하여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 인식이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인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교사 신분과 관련된 이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사 한 가지 자격으로 통합'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유치원의 경우는 관리자와 교사 간의 차이가 있어, 관리자는 '영유아교사로 통합, 연령별 구분,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구분' 등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나누어졌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교사자격을 구분'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사자격 체계 및 직위 구분과 관련해서는 기관에 상관없이 현 유·초·중등 체제인 '2급교사-1급교사-원감-원장'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린이집 교원은 '교사 처우'에서의 기관 간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반면, 유치원 교원은 교육과정 및 수업 측면에서 '교사 전문성'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 교원은 어린이집 교원에 비해 '학력, 자격,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보수교육'에서 교사 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교원은 유치원 교원이 크게 인식하는 '학력이나 자격'에서의 차이 인식보다는 '교사 처우'에서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였다.

일곱째, 유치원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효과(예: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 기여, 학부모의 부담 감소,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질적 제고)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시대적 당위성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질적 제고 등과 같이 유보통합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남의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교원들은 '교사의 처우 및 복지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 및 질적 제고,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 강화, 영유아의 행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교사의 처우 및 복지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 및 질적 제고, 영유아의 행복' 순으로, 유치원은 '영유아의 행복,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전문성 강화, 교사의 처우 및 복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행복'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직위별로는 차이가 있어, 관리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 및 질적 제고,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지역의 특수성 및 요구 반영 등과 같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요인을 중요시하는 반면, 교사들은 처우 및 복지 개선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역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및 OECD 국가의 유보통합 동향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탐색,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분석 등을 종합하여,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의 기본 방향, 통합모델 구축, 교사통합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① 영유아 최우선의 원칙, ②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질 제고, ③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서비스의 질적 격차 해소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중심의 유아교육·보육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모델 구축 방안으로는 ① 영유아기 교육 및 보호에 대한 통합적 개념 정의 및 교원의 인식 전환, ② 영유아학교 체제 기반의 통합모델 구축, ③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극대화한 통합, ④ 교사 간 격차 해소 및 교사통합, 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현장과의 소통, ⑥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및 지방 단위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의 6가지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사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① 자격 및 양성제도, ② 신분 및 신분보장, ③ 처우 및 복지, ④ 연수 및 전문성 제고의 4가지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 연구

-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책임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상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파견교사
이문향 대흥초등학교 교사
정현철 하일초등학교 교사
차형률 외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성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홍기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강 정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기본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 연구

-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상호(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파견교사, 이문향(대흥초등학교 교사) 정현철(하일초등학교 교사), 차형률(외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성미(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홍기표(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자문위원	강 정(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주제어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공간, 공유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관례로 적용되어 온 표준화되고 견고한 학교 교육체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은학교를 학생 수 감소의 위기 상황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다양한 형태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좀 더 유연한 운영 방식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작은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FGI(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작은학교, 학교군, 공동교육과정 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및 타 시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정책과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2023년 작은학교 지원 계획안」

과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경상남도 18개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변화 추이와 작은학교 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지역 유형별 작은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경험과 향후 개선사항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사례조사와 면담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작은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경남의 작은학교 지원 정책, 실효성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미래학교로서의 작은학교 공간 구성 방안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내용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현재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작은학교 지원 현황을 살피기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전반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남의 18개 시·군을 3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속하는 지역의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통해 해당 교사들 운영 경험을 알아보고 향후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미래학교는 학습센터, 학습공유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이러한 기능 수행에 적합한 학교 공간과 시설을 그려보았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의 다양한 교육적 실험·시도의 장으로서 작은학교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탐색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작은학교로 구분하고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큰 학교와의 차별화를 두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주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전입생을 늘리고 있다. 2023학년도부터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정책을 강화하여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경남의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작은학교 지원 현황 조사결과 지역과 연계, 협의회, 학교간 네트워크, 교육과정 워크숍 및 컨설팅 등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전체 인구 수, 작은학교 분포 및 규모, 학생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지역마다 상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 방식이 다양한데 이는 각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가장 적

합한 형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이다.

작은학교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작은학교가 규모의 한계로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고,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문헌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3가지 지역 유형별 작은학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제안일 뿐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변형되어야 하며, 각 모델의 다양한 요소가 새롭게 조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학교로서 작은학교는 개별 학생의 종합 학습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 마을, 이웃 학교, 온라인·메타버스(온·오프라인 융합) 등 다양한 곳에서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정서·문화 소양·협업 경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형태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더욱 나은 학교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때이고, 작은학교는 큰 학교에 비해 변화에 보다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기에 미래학교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5 정책 제언

지역의 인구, 사회적·문화적 자원, 작은학교 규모 및 분포, 학교 간의 연계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유형별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유형 1-주요 시 지역: 창원, 진주, 양산, 김해, 밀양, 사천, 거제

주요 시 지역의 경우 다양한 자원과 교육·문화 인프라가 농산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또한,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곳이 많다. 인근에 학교도 많고, 작은학교의 비율은 낮지만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유형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 학교공간의 경우 복도, 강당 등에서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근 학교와 공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확장형 교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의 물적자원**: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센터, 야구장, 축구장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의 인적자원**: 마을 연계(마을교과서 공유학교[1]), 마을교육공동체 활용(마을해설사 활용 교육활동), 지역예술교육자원 연계(HUB 프로그램 실행 예술이음학교[2])
- **지역의 문화자원**: 지역의 역사/문화 등의 테마 공동 교육과정 (예) 진주 형평운동
- **공동교육과정**:
  · 지역의 다양한 시설 활용,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인접학교와 공동수업 가능
  · 지역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마을교과서를 기반으로 지역의 학교들이 함께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교공간 재구조화**: 창의·융합 학습공간 마련-학교 강당의 학습공간화, 확장형 교실(프로젝트 결과 나눔 행사 등)

② 유형 2-농산어촌 I유형: 거창, 고성, 함안, 창녕, 하동

농산어촌 I형의 경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행복교육지구 연계 사업(교육과정 아카데미,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유형에서 캠퍼스형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년군 단위로 거점학교, 지역 학교로 운영을 할지 공동수업, 개별수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점학교와 협력학교로 운영할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용이를 위해 온라인 수업 활용이 필요한데, 이 유형의 경우 공동수업에 있어 오프라인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수업은 이를 보완하는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 **지역의 자원**: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 활용
- **공동교육과정:**
  · 인근 학교와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주로 하되, 온라인 보완적 활용(오프라인 70%, 온라인 30%)
  · 거점학교-지역학교 (캠퍼스형)
  · 거점학교-협력학교 (협력형)
- **학교공간 재구조화**
  · 멀티 협동학습 공간 / 지역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3](지역민 학습터전)
  · 거점교: 학습지원센터 개념(다양한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행)

---

1) 봉림동 마을교과서(마을탐사 5개 워크북)-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한들초, 봉림초, 유목초
2)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 지역에 있는 예술 관련 기관의 시설이나 전문가를 통해 예술 교육을 받고, 연주회나 전시회 등 교육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 예술에 소질이 있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예술 심화학습 제공
3) 학교부지 내 신축, 증·개축시 문화 및 체육시설·복지관·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범정부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복합시설을 갖춘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녀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 체력단련 등 자기계발과 보육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학생들은 수준 높은 체육수업,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혜택과 보육시설을 통한 봉사체험 경험

- **학교시설복합화**
  · 거점교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마련
  · 거점학교는 지역의 학교들의 전체 학습지원센터 역할

③ 유형 3-농산어촌 II유형: 통영, 남해, 함양, 의령, 산청, 합천

농산어촌 II형의 경우 인구가 적고 학교분포도 낮은 군지역이다. 거의 1면 1교이고 주변 학교와의 거리가 멀거나 섬 지역에 위치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편이다. 학교 및 학습의 규모 또한 작으므로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공동수업을 자주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주변에 중학교가 있는 경우 통합학교 운영이나 학교급 간 연계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요즘 이러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 관광 사업을 하기도 한다. 자연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학교 시설을 교육 및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의 자원**: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 활용
- **공동교육과정:**
  · 인근 학교와 온라인 네트워킹을 주로 하되, 오프라인을 보완적 활용(온라인 70%, 오프라인 30%)
  · 거점학교-지역학교 (캠퍼스형)
  · 거점학교-협력학교 (협력형)
  · 초·중 통합학교, 학교급 간 연계교육과정
- **학교공간 재구조화**
  · 교실 내 다양한 체험 가능: 실감형 학습 도구 활용, 메타버스 상에서의 학습/교류 활성화
  ·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학교시설복합화**
  · 마을 연계: 자연생태 체험관광(농산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농어촌인성학교)

<작은학교 정책과 공동교육과정 관련 네 가지 정책 제안>

① 작은학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작은학교에 대해 학생 수 증가의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작은학교와 큰 학교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② 작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확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가치의 교환이 가능한 온-오프라인상의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각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환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생성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이 마련되면 이런 가치교환이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③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교육과 설계·운영

: 지역의 작은학교가 연대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상의 고민을 나누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④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바탕이 되는 공유교육 체제로의 정책 개선

: 미래 사회에 있어 학교 교육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큰 학교'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작은학교와 큰 학교,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연결을 통하여 학교와 시설, 자료가 공유되며 나아가서는 학생이 공유되는 공유교육은 현재, 규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학교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학년군별 생태전환교육활동을 통한 생태시민 성장 방안 모색

-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책임자

구자영 해운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도시은 해운초등학교 전담사서
박고운 토월초등학교 교사
장지혜 토월초등학교 교사
채민희 해운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노명화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년군별 생태전환교육활동을 통한 생태시민 성장 방안 모색

-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구자영(해운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도시은(해운초등학교 전담사서), 박고운(토월초등학교 교사) 장지혜(토월초등학교 교사), 채민희(해운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노명화(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생태전환교육, 생태시민, 생태감수성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생명의 위협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러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화 시대가 가속화되었다. 생산과정이 기계화되면서 대량으로 상품이 생산되었고, 이와 더불어 등장한 대표적인 신물질이 '플라스틱'이다. 산업화와 동시에 세계 전체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고,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재화의 소유로 인한 소비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소비가 곧 성장'이라 인식하며 우리는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듯 소비했다.

나.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국의 위험을 수중 연설을 통해 알렸다(한겨레, 2021.11.10.).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고 외치는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 장관의 발언과 행동은 절실하다. 자신의 삶,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투발루 주민의 어려움으로만 비칠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 생존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양식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삶의 양식을 전환하려는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전기차 이용,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 개인의 노력과 실천을 통한다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명수정, 2022, 16). 즉, 개인의 삶의 양식의 전환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및 삶의 전환을 위해 생태전환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한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해결을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 관련 주제의 교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2) 학년별 수준에 맞는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3)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미친 영향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 절차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태시민성 변화 확인을 위한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활동 전, 후 비교분석을 한다. 측정도구는 박우용(2022)의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중 생태시민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나. 연구의 검증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를 활용한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찰과 소감문을 활용한 결과 분석을 통해 양적 및 질적 연구 분석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의 검증방법

연구방법	대상	분석도구	결과분석	시기
양적연구	연구대상 96명	생태시민성측정 도구	대응표본 t검증	사전 2023.04. 사후 2023.10.
질적연구		관찰 및 프로젝트 참여 소감문	관찰 및 소감문 분석	수시

3 연구 내용

가. 연구 주제 선정 이유

생태전환교육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보고 이를 연구주제로 선정한다.

나. 연구주제 중점사항

학년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발·운영한다.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은 ①이해하기 ②전환하기 ③살아가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관련 주제는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내용은 학년별 관련 교과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며 환경도서 및 환경부에서 제작한 '환경일기장'을 추가로 활용한다.

〈표 2〉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내용

단계	[1단계] 이해하기	[2단계] 전환하기	[3단계] 살아기기
활동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인식의 전환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환경 문제 탐색 및 해결 방법 찾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지속적인 실천, 삶으로 내면화
영역	환경문제 환경의 구성	환경 현상의 탐구 환경문제 해결	환경 감수성과 배려 환경보전 실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을 파악하여 학년별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에 활용될 주제 및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출한다.

〈표 3〉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학년별 주제 중점사항

학년	더불어함께 프로그램 주제	중점 사항	비고
4학년	생물다양성 이해 및 환경감수성 기르기	과학교과의 '식물의 한 살이' 주제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이해, 생물다양성, 스마트파밍, 치유농업 등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하며 환경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둠	더불어함께 프로그램의 2단계에 해당되는 학년별 주제임
6학년	쓰레기 실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과정, 해결을 위해노력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둠	

4학년의 경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환경감수성을 기르는 프로젝트로, 6학년의 경우 기후 위기의 원인의 파악 및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큰 틀로 구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시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4 연구 결과

첫째,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을 교사가 먼저 인식하고, 학생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아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넘어,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은 기후 위기가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전 지구적 문제이며 스스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교육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 투기가 어떻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 직접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실천하는 교육활동 구성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 위기를 말하는 나의 목소리가 학교, 가정, 사회에 영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친구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무기력한 태도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후 위기에 대한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넘어, 극복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나의 친환경 행동이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론해 보며, 실천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정책 제언

① 생태전환교육활동으로 기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제고

다양한 교과목의 기후 위기와 관련된 소재를 넘어, 실제적인 기후 위기 상황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변화가능하다는 인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와 연계된 생태전환교육활동의 구성 및 실천

같은 지역구에서 유-초-중등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생태전환교육활동을 구성한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지역의 특색에 따른 생태전환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생태전환교육 실습활동에 지역 전문가 지원

생태전환교육활동에 지역 전문가를 지원이 자유롭다면, 교사 및 학생이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궁금했던점,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④ 아이톡톡활용 학습자 참여형 친환경 실천기록도구의 개발

아이톡톡 내에서 친환경 활동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수업시간 중 손쉽게 활용하고, 친환경활동의 공유로 실천의지를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이다.

⑤ 생태전환교육활동을 가정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려는 노력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연계한 교육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의 실천으로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움직이고자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및 수업 사례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하정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강명철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김은주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박민지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정예주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최주연 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인철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및 수업 사례

연구책임자	전하정(무지개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강명철(무지개초등학교 교사), 김은주(무지개초등학교 교사) 박민지(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정예주(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최주연(무지개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인철(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메타버스, 융합 수업, 실과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메타버스는 학생들에게 활발한 참여와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함.

나. 메타버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격차 해소함.

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 향상시킴.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문헌 연구

1) 메타버스의 뜻과 종류

2)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

나. 메타버스 기반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학생 인식 조사 -관련 교과 및 단원 -성취기준 분석 -미래 역량 탐색	- 플랫폼 선정 - 학습 목표 - 학습 단계 - 학습 과정	- 교수학습과정안 - 수업 자료 - 평가 자료 - 교수 학습 활동	- 실행 및 적용	- 학습자 면담 - 상호 피드백 - 장단점 분석

다. 학습자, 교수자 심층 면담

1) 학습자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만족도, 개선 사항 등 점검
2) 교수자 심층 면담을 통해 교수 학습 시 유의점 점검 및 상호 피드백
3)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의 장단점 도출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교수자 심층 면담, 교수자 간 유의점 점검 및 상호 피드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도와 소속감을 높임.

나.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다.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은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교육 정책방향과 부합함.

4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 제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가. 메타버스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관련 연수 활성화

1) 메타버스의 중요성 이해
2)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
3) 디지털 및 안전 윤리

나. 메타버스가 교육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1) 인프라 및 기술 지원
2) 교사 및 관리자 교육
3) 컨텐츠 개발 및 자원 확충

다, 메타버스 기반 융합 교육에 관한 후속 연구 지원

1)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
2) 학습 경험의 품질 평가
3) 다양성과 평등 고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IB MYP, 과학교과에서의 현장 적용 사례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성민 개양중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희정 진성초등학교 교사
최기영 문산중학교 교사
박진아 진동초등학교 교사
노민엽 대암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류수목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IB MYP, 과학교과에서의 현장 적용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박성민(개양중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희정(진성초등학교 교사), 최기영(문산중학교 교사) 박진아(진동초등학교 교사), 노민엽(대암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류수목(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IB MYP과학, 템플릿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AI시대의 학생역량에 대한 요구

AI시대에 과학교과에서는 알맞은 지식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전달하려는 교과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심화해가며, 지식의 수준이 깊어지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과 핵심역량들이 강조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지식전달과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일관적인 시스템이 없었기에, 교사 개인 또는 소규모의 연구회를 통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따라서 IB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춘 과학과에서 적용가능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적용사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2. 핵심역량의 수업적용

현재 본 연구를 적용할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내용이기 때문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핵심역량을 수업중에 IB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 맞도록 변형하여 수업가운데 적용해보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면 활용기간에 있어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2022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하려고 한다.

3. 공립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찰

IB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위해서 기존의 교수자-학습자의 관계로 표현될 수 없고,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Facilitater)와 코치(Coach)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시대에 맞게끔 과학교육과정이 변화되었지만, 요즈음에는 문제기반학습(PBL)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주의를 통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IB의 교육과정과 유사점이 있어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현장적용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론 및 실천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IB MYP교육과정, 2022개정교육과정, 이해중심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4 연구 결과

1.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템플릿 제작

2. 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작

3. 장기적으로 개념기반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위한 방법 제시

5 정책 제언

1. 더 큰 개념과 맥락이 필요하다.

2022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2015교육과정보다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항목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IB MYP에서 말하는 주요개념, 관련개념, 세계적맥락을 통한 '탐구 진술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개념적이해에 도달하게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두 가지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교과에서 전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념의 제시가 부족하다. IB에서는 주요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여러교과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점이 아쉽다.

둘째,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실제성'이라는 측면에서 IB MYP에서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 반면, 2022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학생이 현재 접할 수 있는 삶의 맥락정도에서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점이 다소 아쉽다.

2. 이해중심교육과정 템플릿 개발이 필요하다.

GRASPS를 활용하여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했지만, 추후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1단계(학습결과 확인), 2단계(다양한 이해의 증거 결정하기), 3단계(학습활동 계획하기)에 맞도록 템플릿을 설계하여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템플릿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 평가 루브릭이 필요하다.

GRASPS를 활용하더라고해도, 학생들을 구체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밀한 루브릭이 필요하고, IB의 ATL에 해당하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을 수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루브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및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상태 사천곤명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정훈 양산초등학교 교사
옥지혜 용산초등학교 교사
장송이 반송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지홍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 실태 분석 및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

연구책임자	정상태(사천곤명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정훈(양산초등학교 교사), 옥지혜(용산초등학교 교사) 장송이(반송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지홍(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초등수학교육, 인공지능, 생성형 AI, 수학학습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똑똑! 수학탐험대', '톡톡 수학' 등 수학교육과 관련된 인공지능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맞춤형 학습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또한 수학 교과를 소재로 일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굴하고 수학교육 지원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과 아울러 정의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실태와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수업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수학학습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얻은 학생의 반응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등수학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는 크게 조사연구와 수업사례연구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조사연구는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의 동향, 교사의 인식 측면에서 요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또한 수업사례연구는 초등학생의 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생성형 AI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그 반응을 살핀다.

3 연구 내용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조사
   가. 수학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나.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관련 실태는 어떠한가?

2.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설계 및 적용
   가. 초등수학교육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설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 설계한 교수·학습 방안의 적용에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 연구 결과

1.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
   가. 수학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 결과
      1) 선행연구는 문헌연구에 치중하여 연구이론, 논문 등을 대상으로 삼아 발전해왔다.
      2) 생성형 AI(ChatGPT, 뤼튼, 클로바X 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보여주는 연구는 드물다.

나. 초등수학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관련 실태

1)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2) 높은 관심도에 반해 연수 이수에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다.
3) 다수의 교사가 수학을 제외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본 경험은 있으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니다.
4) 초등수학교육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본 경험은 있으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니다.
5) 인공지능의 초등교육활동과 초등수학교육 활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6) 다수가 초등수학교육에서의 정의적 성취, 학업 성취에 인공지능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7) 다수가 생성형 AI의 초등수학교육 활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8) 다수가 생성형 AI가 앞으로의 수학교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하였다.
9) 수학 과목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 설계·적용 및 학생 반응

가. 기존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검색을 연계한 능숙한 정보탐색을 수행한다.
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다. 생성형 AI 활용과 수학적 의사소통 동시 활용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라. 계산과정에서 생성형 AI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마. 관심 있는 세부 주제에 치우친 활동을 한다.
바. 생성형 AI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 활동이 필요하다.

5 정책 제언

① 인공지능의 초등수학교육 도입에서 실제적인 수행을 수반하는 연구에 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떠한 실행을 통해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나 인공지능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제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선정하고, 교실에서의 효과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수학교육에서 인공

지능 활용에 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고, 그 실천 전략들을 수립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② 인공지능에 대한 교원 연수 강화가 필요하며 인공지능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범위가 아주 넓고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수주제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경험이 적은 교원들의 인식이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임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괄적으로 '해마다 특정 시간 이상 이수'와 같은 조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실질적이고 흥미 있는 연수나 체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의 '코딩-로봇-인공지능'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떠나 각 교과나 주제, 영역별 연수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로 수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초등수학교육과 인공지능을 연계할 구체적인 교수학적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생성형 AI의 초등수학교육 활용을 위한 자료개발과 안내가 필요

이미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선행 자료나 도서를 살펴보면 전 과목이나 영역을 다루었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에 그치고 있어 세부 주제까지 탐구한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생성형 AI를 각 과목에 적합한 주제에 적용한 사례 등을 간단히 제시해 놓았을 뿐 초등수학교육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생성형 AI를 다루기 위한 과목별 탐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초등수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인공지능의 초등수학교육 도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회복적서클활동이 행동형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U&I성격유형에 기반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동휘 아림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권옥진 아림초등학교 교사
박경리 아림초등학교 교사
배은실 아림초등학교 교사
류향미 아림초등학교 교사
김대중 아림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박민규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회복적서클활동이 행동형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U&I성격유형에 기반 -

연구책임자	김동휘(아림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권옥진(아림초등학교 교사), 박경리(아림초등학교 교사) 배은실(아림초등학교 교사), 류향미(아림초등학교 교사) 김대중(아림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박민규(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회복적서클, 행동형학생, U&I성격유형, 학교적응력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행동형 학생의 성격특성은 정해진 규범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지시와 통제받는 것에 반항심이 크다.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교사나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엄기란, 2023). 이에 따라 행동형 학생들과 학급구성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수업 방해로 인해 많은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 지도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형학생들은 병리적인 부분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ADHD 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행동형학생들은 기질적인 특성과 활발한 성향으로 인하여 수업방해행동이나 관계갈등이 있는 것이지 병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꾸준한 생활지도나 집단활동을 통해 행동 변화가 가능하고 공동체에 대한 적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생활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회복적서클활동은 행동형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회복적 서클은 행동형 학생들에게 평등한 대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급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킹스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클규칙을 지킴으로써 공동체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배우게 되고, 경청과 공감훈련을 통해 소통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상호존중을 배울 수 있다. 회복적 서클에서 제공하는 평화감수성훈련들은 행동형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수정의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	대상	분석도구	결과분석	시기
양적연구	연구참여자 10명	학교적응력 검사지	대응표본 t-test	사전 2023. 4. 사후 2023. 7.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통계	2023. 7.
질적연구		학생관찰 및 학생소감,	학생관찰 및 소감문,	2023. 4.~7.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교 적응력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사전-사후검사의 분석 결과는 빈도분석과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차이 검증인 대응 표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 회기별 학생관찰과 학생 소감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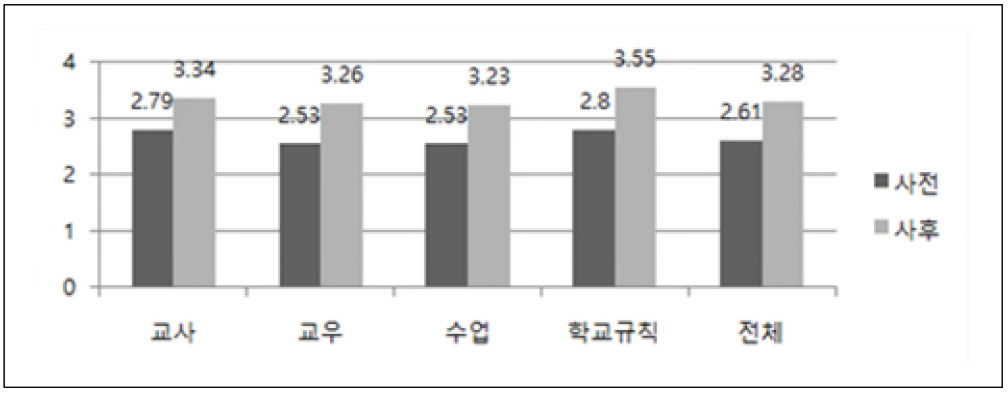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거창 아림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U&I성격유형 검사에서 행동형으로 나온 학생 중 교사의 추천과 학부모동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23. 5. 24.~2023. 7. 19.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 1회로 운영되었다. 10회기 회복적 서클활동의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회기	제목	주요 활동
존중의 약속	1회기	존중의 약속 정하기	▪ 회복적 서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존중의 약속 활동을 정해본다.
신뢰서클	2회기	나의 꿈	▪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회기	나는 내가 소중해	▪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을 소개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화 공동체 서클	4회기	우리 학급 주인 찾기	▪ 우리 학급의 주인 찾기와 우리 학급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도움행동찾기 활동을 통해 학급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5회기	학급에서 나의 역할 찾기	▪ 학급에서의 나의 역할 찾기와 앞으로 우리 학급에서 해보고 싶은 역할을 표현해봄으로써 학급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6회기	다시 교실속으로	▪ 사례를 통해 학급 내에서의 나의 갈등 경험과 관계 회복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7회기	마음 근육 키우기	▪ 변화시키고 싶은 나의 행동 1가지와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대화를 나눈다.
	8회기	우리 모두 함께	▪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소개하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9회기	나의 자서전 만들기	.▪ 나의 자서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고, 미래 나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10회기	나에게 주는 선물	▪ '바른 마음 상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회복적서클활동이 U&I성격유형에 기반한 행동형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교적응력의 경우 사전 평균(M=2.61), 사후 평균(M=3.28)로 사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 표본 t-test 검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실험 후에 상대적으로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에서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80~100%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행동 관찰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프로그램 규칙을 지키고, 또래 관계 개선, 의사소통 능력향상 등이 개선되었다.

학생관찰 및 학생소감

• 전체 회기를 통한 학생관찰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분위기였다. 존중의 약속을 정해서 매 회기 존중의 약속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에서 시작하자 규칙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였다. 명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모습이 보였고, 센터피스만들기를 통해 서클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 차례가 올때까지 경청하고 기다릴 수 있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향상되었다. 공동연구자 모임에서도 학급 내에서의 수업 태도가 향상되고, 과제수행이나 모둠활동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학교적응력이 향상되었으며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회복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생 소감

- 친구들과 함께 서클을 하면서 재밌었고, 앞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1)
- 서클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섭섭하고 2학기에도 서클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학생2)
- 저는 오늘 상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학생3)
- 바른 마음 상을 받으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서클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보겠습니다. (학생4)

5 정책 제언

① 회복적서클활동의 활성화

회복적서클활동은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지혜를 통해 학급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집단활동이다. 행동형 학생들에게 회복적서클활동은 토킹스틱이라는 도구와 명상, 존중의 약속 등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서클이라는 대화모임을 통해 한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평등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서클활동은 학급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침 활동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복적 서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복적생활교육의 이념이 학교 교육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② 행동형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행동형학생들은 병리적인 부분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ADHD 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행동형학생들은 기질적인 특성과 활발한 성향으로 인하여 수업 방해 행동이나 관계갈등이 있는 것이지 병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꾸준한 생활지도나 집단활동을 통해 행동 변화가 가능하고 공동체에 대한 적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U&I검사를 통해 학생을 분류한다는 의미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서 적절한 도움 활동을 제공하자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행동형 학생들을 단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과 장점이 있는 학생들로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행동형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U&I성격유형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이번 연구는 U&I성격유형중에 행동형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서클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의 성향에 맞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본 것이다.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게도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활용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생도 교사도 행복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 지원체제 개선방안

- 다층지원체제를 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원영 거제양정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은혜 거제위센터 교사
박성혜 양산위센터 교사
황아영 거제상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이수정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 지원체제 개선방안
- 다층지원체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원영(거제양정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은혜(거제위센터 교사), 박성혜(양산위센터 교사) 황아영(거제상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이수정(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자해, 자살, 위기학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최근 5년 동안 경남 자살사망 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해·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권재기, 2019). 사안 발생 전 가정과 학교 단위의 적극적인 교육적·상담적 예방이 필요하며, 위기 발생 시 다각도의 개입이 필요하다. 타 시·도에서는 학생 자살 현황 및 관련 요인 분석, 자해·자살 예방 사업과 사안 발생 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있다. 특히 다층지원체제의 접근으로 '단위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체계적인 대응관리 정책은 제주, 충북, 서울, 대구, 그리고 경기도 등에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학교 위기개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 차원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자해·자살 현황,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 체계적인 학생 자해·자살 예방과 위기학생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 자해·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위기학생 지원 관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자해·자살과 관련된 여러 선

행연구와 위기학생 지원에 성과가 나타난 타 시·도 교육청의 정책을 검토하여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 지원체제 개선방안을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첫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해·자살 예방과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남교육계획, 학생 생명존중(자살예방) 업무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시·도(경기, 전북, 충북, 서울, 세종, 제주)의 학생 자해·자살 예방 및 위기지원 정책 중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도입 가능한 부분을 탐색하였다.

둘째,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현장에서 학생의 심각한 자해와 자살시도 또는 자살사망 사안을 경험하였던 교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31명)와 개인(3명)/집단면담(12명)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객관식 응답은 SPSS 21.0을 활용해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과 면담결과는 코딩 후 질적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학생 자해·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 결과

첫째, 학생 자해·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이 '가정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보호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한 '정서적 지지'였다.

둘째, 위기학생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협조적인 학부모로 인한 학생 상담 중단 및 전문의 치료기관 미연계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파악된 비협조적인 학부모는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유형은 우선 정신의학 전문의에 의한 진단 및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 유형'과 다음으로 부모가 지쳐있고 우울감을 나타내는 불안정한 심리·정서 상태로 상담 및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위기 유형'이었다.

나.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 결과

첫째,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을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효과적·통합적 지원 및 지속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에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안되었다.

둘째, MOU 기관 확대 또는 병원형 위센터의 도입으로 연계할 정신건강의학과(병)의원 수를 확보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간 소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심각한 자해·자살 관련 위기학생 중 장기적인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병원형 학교가 도입되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위기학생의 1차 안전망으로서 단위학교 내 예방적 지원 및 위기관리 체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특히 위기 사안 발생 이후 추후 개입을 논의하기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자해·자살 위기학생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학교 내 협력체제가 우선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위기사안 발생 이후 효과적인 학교응급심리지원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학교응급심리지원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넷째, 위기업무는 위기학생 지원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인원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위기업무 담당자 수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상황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위기관련 업무 및 학교응급심리지원 담당자의 구성과 배치 인원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또한 1학교 1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통해 자해·자살 위기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정책 제언

경남 자해·자살 위기학생의 다층지원체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학생', '가정' 그리고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차원에서 특히, 경남 학생들의 현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해·자살 관련요인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사안의 관련요인으로 위험요인 및 촉발사건 그리고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학생 자해·자살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가정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위기학생과 관련된 '보호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한 '정서적 지

지'였다. 신뢰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등 개인 내적인 보호 요인을 향상하게 한다. 이로 볼 때 위기학생이 가시적으로 드러낸 단편적인 자해·자살시도 사안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공동체를 생태체계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태도가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경남 학생 자살(시도)사안 보고서 분석 연구와 경남 지역 내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된 변인연구를 실시하여 경남 학생들의 현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자해·자살 관련요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 차원에서는 가정이 학생 자해·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면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적인 접근과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기학생의 전문의 치료에 대한 학부모 거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러 유형의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정서적 위기가정인 경우에는 학생상담 및 치료 지원 뿐 아니라, 가정상황 및 위기 발생 원인별 부모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다양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우선,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업무 총괄 그리고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간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청 내 위기학생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활동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위기 지원체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MOU 상담기관 및 병원 확대이다. 이를 통해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학생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전문기관 연계 후 전문의가 파악한 학생 상태 및 치료적 개입 정도를 공유받고, 유관기관은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상호 효과적인 위기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의)원에 병원형 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형 위센터는 병원학교 기능도 하여 심각한 자해·자살 관련 위기학생의 치료로 인한 학업중단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식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직원 대상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이 의무연수로 지정되어야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의 목적이 학교의 정상화임을 교육하고,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의 조기 발견 및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육공동체 전반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위기업무 담당자 인원 확보이다. 치료적 개입을 위한 외부기관 연계도 필요하나, 학생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사례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1학교 1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통해 자해·자살 위기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기상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IB교육의 저변 확장을 돕는 IB체크리스트 제작과 적용

연구진

연구책임자

진윤호 수남중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정다운 진영고등학교 교사
최경순 수남중학교 교사
정유정 수남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류수목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IB교육의 저변 확장을 돕는 IB체크리스트 제작과 적용

연구책임자	진윤호(수남중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정다운(진영고등학교 교사), 최경순(수남중학교 교사) 정유정(수남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류수목(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IB교육, 학술포럼,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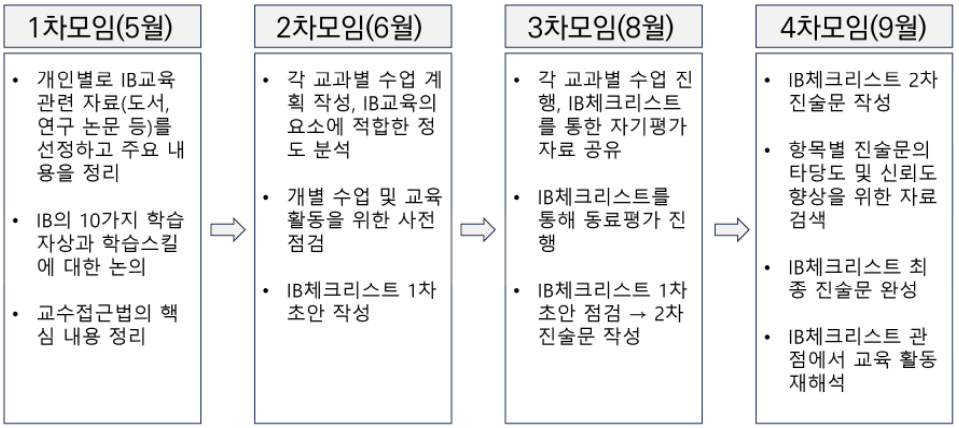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IB교육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교과 수업 및 포럼 활동 속에 IB교육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IB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미래 직업의 불명확성이 확대되는 현실은 현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B교육이 각지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경상남도교육에서 IB교육을 도입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관심은 IB교육에 대한 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무턱대고 IB교육을 도입하는 데는 큰 부담이 존재한다. IB교육을 화두로 던지면 이내 따라오는 주제가 'IB교육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무겁고 거대한 담론인 것만 보아도 '교육과정'으로써 IB교육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부담스런 존재다. 그러나 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IB교육의 우수한 점을 모두 무시하고 떠나 보내야 할까? 본 연구는 마치 기존의 교육 활동을 모두 청산해야 도입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 프레임에서 벗어나 IB교육이 현 교육과정 속에서 언제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교육 철학임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간단한 척도표 한 장을 보면서 교사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해 왔던 교육 활동 곳곳에 IB교육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이 척도표를 'IB체크리스트'라 이름 지었고 한 눈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떤 교육 활동이든 이를 통해 IB교육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교육 현장 곳곳에 IB교육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2 연구 방법

먼저, IB교육의 특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교 수준의 IB MYP교육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교육 취지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요 항목별 IB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주요 특징이 정리되면서 IB교육의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IB교육의 기준에서 교실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IB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었다. 연구원은 IB체크리스트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네 번에 걸쳐 타당도 점검 회의를 가졌다.



[그림 1] IB체크리스트 타당도 점검 모임 및 제작 과정

타당도 점검 모임에서 IB체크리스트 초안은 각 연구원의 교실 수업과 교육 활동에 적용한 경험에 비추어 수정과 보완을 거쳐 보다 면밀하고 세련되게 거듭났다. 최종 IB체크리스트는 교육 활동 경험을 구성할 때 그 방향성을 알기 쉽게 돕는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었고, 교육 활동을 마무리한 후 그 활동이 얼마나 IB교육의 철학을 담아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다.

3 연구 내용

선행 연구를 통해 IB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B교육은 세계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글로벌 맥락 속에 제시되는 교육의 내용이 자신의 삶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자질을 익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평생학습자의 전형을 10가지 학습자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사항을 '능력(skill)'으로 보여준다. 교과 간의 통합보다 각 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보장하되 모든 교과를 관통하는 가치를 '핵심개념(key concept)'으로 설정해 두었다. 평가는 경쟁보다 협력을,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경험 제공의 취지부터 평가 방법까지 대부분의 교육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교육 활동 항목을 IB특징과 결합하여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다섯가지 항목은 아래 <표 1>과 같이 IB교육 경험 구성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담아 완성하였다.

〈표 1〉 IB체크리스트

항목	IB교육 경험 구성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기획취지	• 세계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존재하는가? • 평생학습자에게 요구되는 10가지 학습자상 중 특히 강조되는 세가지는? ☑배려 □도전 □열린 마음 ☑소통 □원칙 □탐구 □사고 ☑성찰 □균형 □풍부한 지식 • 가장 강조되는 학습자상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기르게 되는 기능(skill)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기능(의사사통) □자기관리 기술(조직화, 감성, 성찰) □사회적 기술(협업) □사고 기술(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전이) □연구 기술(정보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핵심개념	• 각 교과 개념의 통합적 사고를 돕는 핵심개념(key concepts)은 무엇인가? □심미 □연결 □형태 □관점 □변화 □창의성 □글로벌 상호작용 □의사소통 □공동체 □문화 □정체성 □관계 □시간 • 공간 • 장소 □발달 □논리 □체계 •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맥락	• 구체적인 상황으로 주어지는 글로벌 맥락은 무엇인가? □정체성과 관계 □공간과 시간의 방향 □개인 및 문화적 표현 □과학과 기술 혁신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공평성과 발전 •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활동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가? •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다양한 맥락 속에 적용하고 전이하는 경험을 제공하는가? •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발언이 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 실제 삶과 국제적 맥락(사실, 문제)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할 기회가 있는가? • 학습자는 포용성과 다양성,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가? •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판단한 것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하는가?
목표도달 확인	•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알고 이해하기 □탐구와 기획하기 □적용하고 수행하기 □성찰하기 • 주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관찰 □지필평가 □개방형 과제 □수행평가 □프로세스 저널 □포트폴리오 • 경쟁보다 협력을, 산출물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가? • 단편적인 지식 암기가 아닌 고차원의 사고력이 요구되는 평가 방식인가?

4 연구 결과

IB교육의 특징을 담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가지 수준의 학술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하였고, 이에 맞는 4개 교과의 교실 수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각각의 교육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IB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진행한 교육 활동은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본 연구원의 IB교육 활동 요약

항목	학습 내용(주제)	학습자 주요 활동
학술포럼 (고)	•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을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의 허용 범위 • AI 발달로 인해 인간이 키워야 할 고유 역량 •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 방안 •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	• 주요 정보에 대한 발표와 주요 논쟁거리에 대한 토론 • 열린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
학술포럼 (중)	•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중심으로 오늘날 가장 대두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논의 • 슬로우패션을 통해 학교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패스트패션 문제 논의 • 인간의 탐욕과 동물권리에 대한 찬반 토론, 동물실험의 대안 모색 •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방식과 윤리적 소비 • 뉴랄링크 뇌과학 발전의 기대와 우려 • 크리스토퍼 유전자가위의 작동원리와 비윤리성	• 글로벌 맥락 속에서 배움의 내용에 접근 • 열린 질문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 • 해당 주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공유 • 참가 소감문을 작성함으로써 파지력 향상
영어교과 교실수업	• 윤리적 소비 방법, 공정 무역 • 세계 시민성 함양	• 공적 가치를 담은 포스터 제작 • 자기평가를 통한 성찰
도덕교과 교실수업	•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과 보편적가치 추구 •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윤리의식 함양	• 희망하는 키워드 및 주제 탐구 • 학습 내용에 대해 다른 학생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미술교과 교실수업	•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불평등 사회의 문제점 • 제작할 문구의 캘리그래피 서체 스타일 정하기	• 양성평등 주제의 전시물 제작 • 비난하지 않는 피드백
과학•영어 통합수업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개념 • 지구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이해	• 성찰적 글쓰기 활동 • 공동체 차원의 주변 환경 이해

IB체크리스트에 따라 구성된 교육 경험들은 세계 시민성을 강조한다는 점, 사회 변화 속에서 인권, 평화, 다양성 존중,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 자신을 맥락 속에 연결된 개체로 인식하도록 안내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학생 활동은 적극적인 탐구 활동을 보장하고 타인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철학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자질을 키우고 세계 시민성을 키운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5 정책 제언

“교사 자신의 교육 활동을 IB교육 차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IB교육 체크리스트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하고 배포”

IB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IB교육을 새로운 교육 사조로 이해하는 경우 기존의 자신의 교육 신념과 교육 활동 모두 부정당한다는 감정을 불러 올 수 있다. IB교육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추구해 왔던 교육 활동들, 예를 들어 학생중심교육, 배움중심교육, 구성주의 교육 철학 등과 결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해 시키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점을 보여준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IB체크리스트는 그러한 의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유용한 제작과 배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1) IB교육을 교실 현장에 ‘접목’시킨다는 취지가 아니라, IB교육의 지향점이 우리 교실 현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교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마음으로 자료가 제작되어야 함

2) 간단한 카드 형식으로 1장~2장 이내로 이해 자료가 제작되어야 하고, 교사 스스로 체크와 기입을 통해 부담없이 자기 수업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IB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함

3) IB교육이 평생학습 및 초연결 사회에 대비하고 있고 세계 시민성 강화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은 교육과정 차원에서 도입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IB교육의 저변 확장을 꾀할 것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를 통한 우리글의 원형 계승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서석만 위천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동섭 가조초등학교 교장
정은현 가야초등학교 교장
이혜영 위천초등학교 교사
민영단 위천초등학교 교사
김보라미 창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홍기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를 통한 우리글의 원형 계승 방안

연구책임자	서석만(위천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동섭(가조초등학교 교장), 정은현(가야초등학교 교장) 이혜영(위천초등학교 교사), 민영단(위천초등학교 교사) 김보라미(창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홍기표(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훈민정음, 한글, 세종대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 민족이라면 현대 국어의 원형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임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역사는 교과서 속에 나오는 '어제 서문'의 학습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훈민정음 해례'에 기반하여 '훈민정음'이란 글자를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을 아는 교사와 학생은 거의 없다. 이러한 현행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과 방식은 점차 우리 국어의 원형에서 후세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으므로 민족적 언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글의 원형인 '훈민정음 해례'에 기반한 읽고, 쓰기 방법을 후세에 전승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국어의 원형인 '훈민정음'을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함으로써 '훈민정음'이 후세에 길이 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하위 운영 목표는 아래와 같다.

가. 교사: 해례본(간송본) 연구를 통해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 방법을 익혀, 학생 지도 내용 및 방안을 자료로 구안하여 적용한다.

나. 학생: 개발된 '훈민정음' 학습 자료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이해하고, 짧은 글을 '훈민정음'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 연구 방법

훈민정음의 지도 방안 마련에 앞서 훈민정음에 담긴 사상, 제자 및 조음 원리, 교육과정 분석,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 등 4개 영역의 선행 연구물들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가. 훈민정음 지도 실태 파악

연구원 소속 학교 교원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에 문답하는 형식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훈민정음 관련 지도 내용과 교사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읽고, 쓰기 실태를 조사하였다.

나. 훈민정음과 한글의 차이점 분석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한글어문규범(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의 비교를 통해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과 현행 한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다.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를 통한 창제 원리 분석

훈민정음의 해례본(간송본)을 언해본과 비교하여 학습하고 향토전문가 초빙 연수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와 소리를 분석하였다.

라. 초등학생 훈민정음 지도 내용 선정 및 자료 개발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른 읽고 쓰기 지도의 범위와 내용을 선정하고, 한글의 창제 배경과 의의를 알 수 있는 계기교육용 기초 지도 자료와 고학년을 대상으로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학습이 가능하도록 심화 자료를 개발하였다.

마. 개발 자료의 학생 적용 및 효용성 평가

계발된 자료는 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물과 설문지 형식의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자료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 내용

가. 훈민정음 지도 실태 파악

1) 2022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정의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과정 속에서의 훈민정음 지도 실태 파악을 위해 본 연구회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3개교의 지도 시간 및 내용 편성과 학생 지도 자료를 살펴본 결과 훈민정음과 관련된 지도 시간은 1시간 이하이며, 지도 내용은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및 과정과 의의를 나타내는 1쪽 분량의 계기교육 자료가 전부였으며 직접 해례본의 훈민정을 지도하는 내용 편성은 없었다.

3) 초등교사들의 훈민정음 이해도와 지도 역량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조사 대상 초등학교 교사들은 훈민정음과 한글 및 해례본과 언해본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 했으며, 훈민정음의 우수성 또한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훈민정음이란 책을 읽은 경험과 지도 역량이 낮은 편이었으나 지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연간 10시간 이하를 지도하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초등학생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정도는 훈민정음의 반포일과 글자 수는 정확히 알지 못 했으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와 우수성은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훈민정음과 한글의 차이 및 한글에서 배제된 4글자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 반포 및 우수성, 한글과의 차이점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 지식과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능적인 지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훈민정음 지도를 위해 필요한 요소 분석

1) 훈민정음과 한글의 차이점은 첫째, 훈민정음은 28글자로 연서와 병서 규칙을 따른다. 둘째, 훈민정음은 소리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 음성문자로 일자일성(一字一聲)의 원칙과 언문일체(言文一體)의 특성이 있다. 반면, 한글은 음소문자(音素文字)로 훈민정음식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셋째, 훈민정음의 표현 가능한 음절의 수는 약 399억 음절로 한글의 약 11,172 음절에 비할 바가 아니다. 넷째, 한글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훈민정음의 아래아(ㆍ), 반치음(ㅿ), 옛이응(ㆁ),

여린히읗(ㆆ) 네 글자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민정음에는 중국의 4성과 비슷한 성조(높낮이)가 사용되었으나 한글은 성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성리학과 훈민정음의 관계 이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자음인 초성은 발음 기관의 상태와 작용을 오행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으며, 모음인 중성은 천지인(天地人)과 삼재(三才)를 본떴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훈민정음에는 세상의 창제 원리인 정중동이라는 우주만물의 이치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그리고 삼재(三才)로 발현된다고 믿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3) 훈민정음 해례의 발음에는 상형의 원리, 음절 합자의 원리, 종성부용초성 원리, 성조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다. 초등교육과정의 훈민정음 지도 수준 및 내용 선정

1) 지도 수준 및 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훈민정음 원형 보전을 위한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 지도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단계	적용 학년	성취 목표	지도 내용
기초	1·2 학년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목적 및 창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을 발표 연도 및 창제자 알아보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의의 알기
기본	3·4 학년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따라 28자를 읽고 쓸 수 있다.	·훈민정음의 글자 조합 방법 알아보기 ·훈민정음 28자 쓰고 읽어보기
심화	5·6 학년	훈민정음식 읽고 쓰기를 우리나라 대표글에 적용할 수 있다.	·애국가 4절 훈민정음식으로 쓰기 ·애국가 4절 훈민정음식으로 읽기

라. 훈민정음 읽고, 쓰기 지도의 실제

1) 교사의 훈민정음 지도 역량 계발

교사의 훈민정음 지도 역량 계발을 위해 훈민정음의 창제의 역사적 배경과 제자의 원리가 된 성리학에 대한 이해 학습을 거친 후 해례본과 언해본의 비교 읽기와 향토학자 초빙 연수를 통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합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졌다. 또한 훈민정음의 기초적 지식 학습 이후 우리나라 대표 글들을 훈민정음식으로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 훈민정음 사용 역량을 향상시켰다.

2)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과 적용

학생 지도 자료는 기초, 기본, 심화 자료로 구분되며, 기초 자료는 1·2학년 대상, 기본 자료는 3·4학년 대상, 심화 자료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각 단계 별 2시간 시간을 배정하였으며, 상위 학년의 경우 기초, 기본, 심화 내용을 한 번에 학습할 수도 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우리 국어의 원형인'훈민정음'을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함으로써 '훈민정음'이 후세에 길이 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교사의 훈민정음 지도 역량 강화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체계적인 연수와 교사 이해 자료 적용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및 제자 과정 이해와 읽고 쓰기 역량 강화를 통해 현대어를 훈민정음으로 변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에 대한 훈민정음 지도 과정 설계 기량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학생의 훈민정음 28글자 활용 능력 배양

교사들이 개발한 '학생 학습 자료'적용을 통해 훈민정음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훈민정음의 과학적 창제 원리를 이해하고, 자음과 모음자 28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훈민정음 보전 의지가 내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정책 제언

① 교사 대상 훈민정음 지도 방법 연수 및 자료 개발 프로그램 도입

우리글의 원류인 훈민정음의 정확한 읽고 쓰기 역량을 갖춘 초등교사가 거의 없으므로 훈민정음 해례에 기반하여 훈민정음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연수 과정 및 이해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 훈민정음 지도 영역 신설 및 지도 자료 개발

현행 교육과정 내 훈민정음 관련 지도 내용은 창제 배경, 의의 정도의 제적 지식 지도 외에 실제적인 훈민정음 이란 문자 자체를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적 지식 관련 활동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훈민정음 해례에 기반하여 실제적으로 훈민정음을 읽고 쓸 수 있는 지도 영역의 신설과 다양한 지도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학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확보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명윤관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공동연구원

양재우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정명훈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하지현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류규상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연구협력관

조재광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확보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명윤관(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공동연구원	양재우(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정명훈(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주무관) 하지현(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류규상(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연구협력관	조재광(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매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설업·제조업 등 산업 현장과는 다른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특징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령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상 용어 또한 산업 현장에 맞춘 용어로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명확한 설명 등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나타나며, 더 나아가 역할분담 등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의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확보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검토 및 분석하여 학교 현장과 공감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주된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통계자료와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수행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정책의 타성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현장 적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 정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내용

① 중대재해 통계 분석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주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경상남도교육청 내 산업재해 발생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교육 현장의 특징을 확인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구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법령상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교육 현장 맞춤의 재해예방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③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학교관리자 및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4 연구 결과

① 중대재해 통계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36.8%), 부딪힘(10.5%), 끼임(10.3%)의 순서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2018년 이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산업재해는 2022년 105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었으며,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32.7%), 이상온도노출(19.4%), 무리한작업(16.7%)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다.

위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교육 현장은 일반 산업 현장에 비해 중대재해 위험도가 낮고, 업무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 재해 발생의 주된 유형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체와 구분되는 교육 현장 맞춤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항 연구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연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안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 요소(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 및 개선) 기준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학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산업 현장과 구분되는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의 어려움이 있어 교육 현장을 고려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 및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사항 연구

2023년 5~6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도내 931개 공립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이행 점검 결관 이행률은 98.7%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교육 실시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등 현장 위주의 재해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안전보건에 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학교관리자는 ①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연수 확대 운영 ②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예방조치 등 관련 기준(매뉴얼) 마련 ③학교의 안전보건 정착을 위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현업업무(시설관리, 청소,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①직종별 맞춤 교육 운영 ②현장의 산업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재해예방 조치 방안 ③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등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5 정책 제언

① 안전보건 인식 정착 노력

교육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 개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운영, 많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율 연수 운영 등 학교 업무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친숙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② 학교 맞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학교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을 행정적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형식적인 행정업무로 처리 및 불완전한 재해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며, 위험성 평가 등 학교에서 부담을 가지는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현장 맞춤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재해예방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맞춤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③ 안전보건 법령 및 규정의 정비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해예방과에 관한 별도의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법령의 개정 또는 별도의 안전보건 기준 확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범주에 해당하나, 교육 현장과 맞지 않은 안전보건 조치로 인한 업무 증가와 구성원 간의 갈등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맞춤의 안전보건 기준을 제안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IB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 연구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차형률 외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구다정 구암초등학교 교사
서무근 진영대창초등학교 교사
손태등 우암초등학교 교사
최은지 화양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재광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IB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 연구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차형률(외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구다정(구암초등학교 교사), 서무근(진영대창초등학교 교사) 손태등(우암초등학교 교사), 최은지(화양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재광(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IB교육과정, 교육과정-수업-평가, 확장적에세이, 아이톡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변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교육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 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사고력과 창의력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이혜정, 2019). IB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주된 문제점인 주입식 교육, 결과 중심의 평가,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 서열주의, 교육의 양극화와 같은 문제점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이혜정, 2019). 또한 IB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실험, 실습, 토론, 토의 수업 등 수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 교육과정 내에서 유·초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PYP (Primary Years Program)의 프로그램 원리를 기반으로 IB 교육과정 내에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실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김현기, 2022). 구체적으로 IB교육과정의 유·초등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원리로서 초학문적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개념·기능·태도·행동의 5가지 요소와 6가지의 초학문적 주제들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상당히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유나 외, 2018).

이를 바탕으로 IB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설계하여 적용해보고 시사점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IB 교육과정 내의 PYP 프로그램의 가치와 방향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실제 현장 교사의 특정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에서 계획해보고 실천함으로써 IB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사례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의 사례를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IB교육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조사 및 참여관찰을 통해 구성하고자 한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IB교육과정의 적용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학반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IB교육과정 적용사례 연구대상 참여 학생 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면담을 시행하고자 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면담 질문 내용으로는 학습에 대한 흥미도, 이해도, 다른 학습과의 차별점 등을 포함하였다. 참여관찰은 IB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IB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내 B 초등학교의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IB교육과정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교육과정을 실제 공교육 내에서 적용해보며 IB교육과정 내의 여러가치와 활동 중 공교육 내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활동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미래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활용하여 IB교육과정 내의 중심 활동인 '확장적 에세이'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확장적 에세이는 에듀테크와의 접목은 뚜렷하게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과의 연계성 속에서 IB교육과정을 접목해보고자 한다. 이는 IB교육과정의 확장과 앞으로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면에서 하나의 사례 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IB교육과정 내의 모든 가치 및 활동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공교육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IB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이러한 본고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분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IB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는 이미 우리의 공교육 과정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B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 평가가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또 다른 학습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등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 자리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와 그 가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IB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활동의 가치와 맞닿아 있어, IB교육과정의 도입이 우리의 현 공교육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현장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는 상쇄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IB교육과정과 미래교육의 연결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IB교육과정 내에 '확장적 에세이' 활동을 중심 활동으로 수행해보았다. 다만 확장적 에세이를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연계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다. IB교육과정은 확장적 에세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심 활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이 확장적 에세이는 현장의 학생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 있고, IB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점 중 하나인 난해함이 들어가 있었다. 일례로 IB교육과정을 속칭해서 '귀족교육과정'이라고 일컫는 속설도 있었다. 왜냐하면 확장적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여 학습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인지적 정서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속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큰 격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확장적 에세이를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었다. 다만 그보다는 현장의 학생들은 에세이라고 하는 형태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에세이 활동의 도구로 활용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막연히 갖고 있던 글쓰기에 대 정서적 결함을 어느 정도 극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가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IB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매뉴얼 제작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

던 것은 연구회 내에서도 IB교육과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관한 의미 탐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IB교육과정내에서도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되어 있으면서, IB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미 파악 및 이해의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IB교육과정을 적용할 교사들의 실행 의지와 적용사례를 경감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IB교육과정의 공교육 내에서 확장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된 각종 IB 교육과정 사례 및 철학을 다시금 재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IB 교육과정 매뉴얼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매뉴얼에는 IB교육과정은 이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의 학생 중심 활동 및 과정 중심 평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IB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한 현장의 정서적 반감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IB 교육과정 사례 나눔에 대한 협의체 구축이다. IB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고, 그 사례 나눔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해 보인다. IB교육과정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고 있고, 개인의 교사 이해보다는 여러 교사가 함께 모여 '집단 지성'으로서의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 나눔을 한다면 IB교육과정의 적용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도 더 다양한 교과에서 IB교육과정이 지닌 가치와 활동을 체험해보고 더 고차원적 사고력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정책 제언

① IB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적용 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IB교육과정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IB 실행의 턱을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IB교육과정의 실제적인 적용 틀을 마련한다.

② IB교육과정의 모든 구조나 기능을 다 전수하려는 것을 주저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여도 괜찮다. IB에서 추구하는 확장적 글쓰기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서·논술형 평가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③ 경남교육청의 미래형 교육플랫폼 '아이톡톡'과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이톡톡을 활용하여 IB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여러 교수 학습 계획안을 개발한다면 미래교육과 IB교육과정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기수역 환경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실천중심 학교환경교육 강화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수호 외간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용환 하청초등학교 교사
구병인 숭덕초등학교 교사
이슬민 오량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노명화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기수역 환경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실천중심 학교환경교육 강화

연구책임자	이수호(외간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용환(하청초등학교 교사), 구병인(숭덕초등학교 교사) 이슬민(오량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노명화(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기수역, 생태전환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교육의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존 환경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혁신과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기수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식물플랑크톤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기수역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을 통해 환경핵심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의 방안으로 학교 인근 환경인 기수역을 활용한 실천 체험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수업 등에서 활용하여 학생들의 환경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교육을 분석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해양생태계보전과 관련된 생태 전환교육의 실천 체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한다.

셋째, 환경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전, 후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핵심역량의 향상 정도를 검증한다.

3 연구 결과

첫째, 기수역 속 생물다양성 탐구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환경 감수성 역량에서 특히 큰 증진을 보였으며, 60% 이상의 향상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플랑크톤을 통한 기수역의 생물다양성 탐구 프로그램은 적극성, 실천 마음가짐, 협동심, 배려심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 체험적 생태전환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내다보고 학교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적용방안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4 정책 제언

① 생태전환교육의 적용을 위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촉구

우리의 삶에 지속가능발전은 때놓을 수 없는 시급한 시안이다. 이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의 그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의 적용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학교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학교의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범용성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③ 초, 중, 고 연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초등학교를 넘어 초, 중, 고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고 연계한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④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환 필요

기수역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의 학교에서도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기수역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희진 창원남산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박영실 창원자유학교 교사
박현석 도동초등학교 교사
조묘령 거제제일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수정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이희진(창원남산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박영실(창원자유학교 교사), 박현석(도동초등학교 교사) 조묘령(거제제일중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수정(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인권, 권리구제, 실태조사, 학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년 이래, 해마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 연구로 이루어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도교육청의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0년의 조사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 연구에서 얻어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고서를 생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2022년에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들은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게 하고 실태조사로 얻게 된 시사점들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내년, 즉 5년차가 되어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경남 학생인권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2024년을 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가 교육 현장에 기반을 둔 전통을 계승하고, 이후 더 질 높은 조사와 정책 반영 및 개선 권고, 모니터링의 환류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경상남도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 이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경남 교육인권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23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일간 온라인으로 설문하였다. 척도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조금 그렇지 않다(2), 조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Jamovi 2.3.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난 연도까지의 실태조사와 일관성있는 비교를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학교 초등학고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응답 규모는 17,917명이다.

3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성적에 따른 차별 반대, 인권 침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해결과정에 개입하겠냐고 묻는 질문에서 초등과 중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나 실제 실천 의지를 묻는 질문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평균 3.6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3.32, 3.52로 학생들 중 일부는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체벌과 폭언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덜 경험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기숙사 생활 유무에 따라 안전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외에 모든 문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낮은 안전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범죄와 성폭력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에서 사립학교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서 특히 차이가 큰 것은 정규 외 교육과정 선택권과 대체 식단 제공이었다. 고등학교에서의 대체 식단 제공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별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정책 확대가 필요함을 나타내 보였다.

다섯째, 생리공결제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과거의 조사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된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리공결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역시 네 명 중 한 명 꼴로 있어 생리공결제의 홍보 및 정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 결과였다.

일곱째,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의 향유가 학교별, 학생별 편차가 크고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 응답이 매우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여덟째,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경남지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응답자의 55.01%, 중학생 응답자의 76.84%, 고등학생 응답자의 55.84%가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문화적,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아홉째, 초등학교의 14.73%, 중학교의 47.95%, 고등학교의 47.31%가 상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 폐지 선언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에서 상벌점제 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인권친화적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준다.

열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초등학교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과 혐오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학교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응답 결과라 할 수 있다.

2023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종합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학교 특성이 인권 실태에 끼치는 영향이었다. 인권 인식,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신뢰, 안전감 등 전 영역에서 행복학교, 장애 통합학급, 국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권리인 바,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에서 인권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 증진의 수준이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립학교, 기숙사 등 격차가 발견되는 부분에 교육청와 학교, 교육공동체 및 시민들의 인권 증진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4 정책 제언

① 안전감을 주는 학교 문화 조성

체벌, 폭언, 상벌점제 등 인권 침해적 관행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안전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요청된다. 현재 안전 및 권리 침해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신고 방법에 집중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고 이후 단계별로 보장받는 권리와 지원 제도들을 step-by-step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인지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②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정보접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이다. 조사 결과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참여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등에 초등학생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해설자료 및 활동자료가 개발되어 배포되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의 인권 실태 증진

권리 침해를 겪었을 때 학교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더 높은 기대를 받고 있었다. 다른 문항들의 조사 결과에서 사립학교의 권리 침해 실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권리 구제에 대한 낮은 기대치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삶의 질, 행복감, 인권 보장 수준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사립학교의 인권 실태 증진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상남도 전체 학생의 인권 보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학교의 효율적인 에듀테크 채택을 위한 교사 중심의 에듀테크 실증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병준 창원용호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오태훈 함안초등학교 교사
전인수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최시경 경상사범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하호용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의 효율적인 에듀테크 채택을 위한 교사 중심의 에듀테크 실증 방안

연구책임자	박병준(창원용호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오태훈(함안초등학교 교사), 전인수(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최시경(경상사범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하호용(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에듀테크, 실증, 디지털전환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가 새로운 교육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과다한 에듀테크 솔루션의 범람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에듀테크 실증을 통해 현장에 맞는 에듀테크를 선별하고, 증거기반의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실증 기획 단계에서 현장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수업 사례 나눔 콘서트를, 20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수요 조사를 하여 에듀테크 실증을 위한 문항 추출 및 에듀테크 실증 대상 기업 선정의 근거로 삼았다. 교사들은 개별화 학습, AI 활용, 게임 학습 기반 에듀테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증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33개 문항의 정량평가 및 3~4개 가량의 정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정량 평가는 리커트 척도에 기반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이 직접 에듀테크 기업 4종에 접촉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에듀테크 기업들이 경남에듀테크연구회와 함께 실증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

참여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은 체험용 계정으로 에듀테크 및 디지털전환교육 전문가 교사 24명이 1-3개월간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계량화된 평균값을 매겨 에듀테크 평가의 객관적 근거로 삼았다.

3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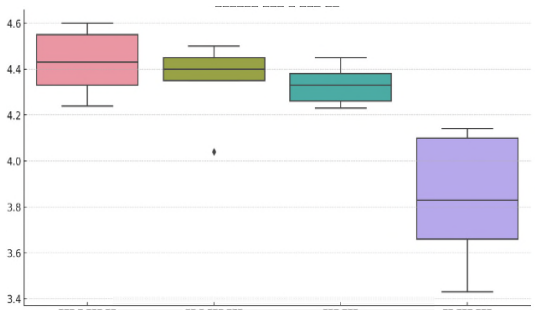
연구에 있어 주요 개념은 에듀테크, 에듀테크 실증,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다. 에듀테크 실증은 사용자가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밝혀 에듀테크 개선의 근거로 삼는 과정을 의미한다. 소프트랩은 에듀테크 기업-학교-연구자 간 협업 공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요조사, 수업사례나눔을 통해 나온 수업 사례에 근거하여 도출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에듀테크 실증, 결과 피드백 및 개선, 수업 사례 배포 등의 프로세스를 다루는 것이다. 더불어 에듀테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간의 필요성을 다루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콘텐츠 실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테크 실증 단계를 참고하여 실증 기획, 준비, 수행, 결과 공유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경상권 지역 교원 60-70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수업 사례 발표회를 열고, 개별화 학습,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의 수요를 발견하였다. 이후 현장 참여 교원들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실증 시 고려되어야 할 것, 에듀테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원 수요 조사를 통해 실증 기준 도구를 개발하고, 직접 에듀테크 기업을 접촉하여 현장 실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연구 결과

각 에듀테크 솔루션 별로 전문가 교원들이 에듀테크의 접근성 및 디자인 직관, 사용 및 지원상 안정성, 교육적 효과성, 책정 가격의 적절성 4개 영역을 5단계 리커트 척도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값 및 시각화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대영역 / 에듀테크	접근성 및 디자인 직관	사용 및 지원상 안정성	교육적 효과성	책정 가격의 적절성
에듀테크 A	4.55	4.04	4.38	3.43
에듀테크 B	4.6	4.45	4.45	4.14
에듀테크 C	4.24	4.4	4.26	3.66
에듀테크 D	4.33	4.5	4.23	4.1
평균	4.43	4.35	4.33	3.83
표준편차	0.15	0.18	0.09	0.3



접근성 및 디자인 직관, 사용 및 지원상 안정성, 교육적 효과성 영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구성원들이 주었다. 하지만, 책정 가격의 적절성 영역에 있어서는 표준편차 정도가 높음과 동시에 평균 점수가 여타 대영역에 비해 약 0.6점 가량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타 결과를 정리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에듀테크 솔루션의 책정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영역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 배경에는 현장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는 에듀테크 기업의 요인, 유료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결제하는 문화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교육계의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에듀테크의 교육적 효과성과 에듀테크의 접근성/디자인 직관 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띤다. 두 대영역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에듀테크의 교육적 효과성이 종속변수에 해당하고 에듀테크의 접근성/디자인 직관이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에듀테크의 접근성과 디자인 직관이 높을수록 그 교육적 효과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적 안정성의 부분에서 높은 표준편차가 드러났으며, 이는 에듀테크 솔루션 간 기술 격차 및 적절한 표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기술 안정성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관련 기술 표준의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교수-학습 설계의 적절성과 평가-기록 간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에듀테크의 교-수-평-기 일체화 솔루션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의미한다. 교수, 학습, 평가, 기록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섯째. 구매 절차 편리성이 높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해석이 도출되었다. 과도한 구매 절차의 편리성은 자칫하면 에듀테크 서비스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거름망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여섯째. 에듀테크 구독/구매 등급과 학교 예산 구매 부담의 저감 정도 간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은 학교 예산 맞춤형 차등 요금제가 에듀테크 솔루션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정책 제언

첫째, 에듀테크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고려, 이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견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에듀테크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조성이 필요하다. 에듀테크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등급화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높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에듀테크 구매자 및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에듀테크의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 교사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페다고지(Pedagogy)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에듀테크 기업에서는 교육 현장 적합도가 높지 않은 에듀테크 솔루션을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엄연히 공직자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겸직 허가에 대한 허들이 높을 것이며, 관련 활동의 수행에 있어 얼마나 자유로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교육청은 교사와 기업 간 연계를 해주고,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의 사업 일환임을 보증해주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앞선 내용에 근거하여 디지털 혁신, 디지털 대전환 교육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도 증거 기반 에듀테크 생태계의 조성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기관이 있어야 한다.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실증을 의뢰하고, 이를 현장 교사들이 사용해 보며, 연구자들이 에듀테크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허브 기관의 생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희경 교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이대송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사
홍숙희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정 화 경남혜림학교 교사
유혜숙 김해은혜학교 교사
박순옥 양산희망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한경화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연구책임자	홍희경(교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이대송(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사) 홍숙희(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화(경남혜림학교 교사) 유혜숙(김해은혜학교 교사), 박순옥(양산희망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한경화(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특수교육, 발달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인공지능, 미래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는 “전국민 AI. SW교육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전 국민을 위한 AI. SW교육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 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기본 소양을 기르게 하였고, 교육대학원을 통한 현직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AI 소양 교육을 포함하고, 정보 교과와 연계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특수교육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통해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나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을 성취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필수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 인공지능 선도학교는 5개교(2022년 기준)에 불과하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연구나 교수학습자료도 거의 없어 특수교사들이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적절한 내용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적용을 위한 수업 설계 틀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인공지능 교육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내용

연구과제1	특수교육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특수교육 정책 속 인공지능 교육

가.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2023-2027) 분석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형 에듀테크 보급

○ SW/AI 교육자료 개발 (‘23) 2종 → (’25) 6종 → (‘27) 10종

○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확대 (‘23) 5교 → (’25) 17교 → (‘27) 34교

나. 교육부 2023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

○ 신기술 기반(AI)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지원

○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 AI교육 전문가 양성, AI교육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실시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AI 등) 연수 확대

○ 지역・민간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SW・AI)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체험・실습 중심의 SW・AI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중 장애학생 SW・AI캠프 운영

다.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25) 1종 → (’26) 2종 → (‘27) 3종 → (‘28) 2종

2. 특수교육 인공지능 시범 및 선도학교 운영 현황

○ 2020. AI 시범학교 2교 → 2021. AI 선도학교 11교 → 2022. AI 선도학교 18교 → 2023. AI 선도학교 24교

3. 특수교육 인공지능 관련 선행연구

○ 학술논문 사이트에서 ’인공지능‘, ’교육‘, ’장애‘ 검색 후 관련 학술 논문만 선정한 결과 총 6편, 교육 관련 내용보다 시스템 구축 또는 동향, 치료에 관한 연구

4.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개발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2종, 충청남도교육청 2종, 총 4종 개발

연구과제2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1. 특수교육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 2022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취기준 해설 제시(국어, 사회, 음악, 미술,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창의적 체험활동)

2. 인공지능 교육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교육 내용 설계

가. 인공지능 교육 관련 문헌 분석

○ 인공지능 교육 관련 도서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활동 도구, 교과, 활동 내용 등을 표로 분석하여 제시

나. 인공지능 교육 도구 선택 틀 개발

○ 수업 설계 시 인공지능 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틀 개발, 교과, 활동, 인공지능,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다.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 ASSURE 수업 설계 모형과 특수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른 수업 설계 틀 개발

○ ASSURE 수업 설계 모형에 따른 수업 설계 틀과 인공지능 교육 도구 선택 틀을 활용해 음악, 미술 교수-학습 과정안 각 1편씩 샘플 제시

4 연구 결과

1. 특수교육 인공지능 교육 현황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2023 특수교육 운영계획',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등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과 충남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된 자료는 4종 정도로 매우 적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환경이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많아 관련 자료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 설계

개정되는 2022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국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 음악에서는 인공지능 음악 저작도구 활용,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등이 활용된 음악회나 공연을 경험, 미술에서는 인공지능 앱 활용, 생활영어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와 앱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교과인 정보통신활용에서는 인공지능을 이해 및 생활 속 인공지능을 탐색하고 경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관련 인공지능 교육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지능 교육 관련 책 중 수업사례를 다루고 있는 책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형 AI는 국어, 영어, 과학, 정보, 사회, 실과, 예술, 진로 수업에 활용되었으며, 이미지 생성형 AI는 국어, 미술 수업에 활용하였다. 블록코딩인 엔트리는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하여 국어, 실과, 사회, 체육, 미술, 창체 수업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를 음악, 미술, 과학, 체육, 실과, 음악, 영어, 국어, 수학, 도덕, 창체 수업에 활용하였다.

기존 수업 사례와 장애학생 인공지능 교육 개발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교육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였다. 틀은 교과, 활동, 인공지능 도구, 해당 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수업 설계 시 본 수업에 활용할 인공지능 도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ASSURE 모형과 특수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통합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ASSURE 수업 설계 모형에 따른 수업 설계 틀을 개발하였으며, 인공지능 도구 선택 툴과 수업 설계 틀을 활용해 작성한 음악, 미술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시하였다.

5 정책 제언

① 경남 도내 특수학교 인공지능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

부산, 경북 등 인근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현재 경남 도내 11개 특수학교 중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특수교육 인공지능 교육 온·오프라인 연수 개설

일반교육 사례 관련 인공지능 교육 온·오프라인 연수는 많으나, 특수교육 사례를 다룬 연수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사례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온·오프라인 연수를 개설하고 확대해야 한다.

③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경남 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의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④ 인공지능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운영

현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통합교육' 관련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

⑤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특수학교(급)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구 등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 항공편 -

연구진

연구책임자

민현수 증산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임성훈 팔용중학교 교사

박상범 가촌초등학교 교사

정순태 양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윤현삼 신기초등학교 교사

장희선 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연구협력관

서유진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 항공편 -

연구책임자	민현수(증산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임성훈(팔용중학교 교사), 박상범(가촌초등학교 교사) 정순태(양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윤현삼(신기초등학교 교사) 장희선(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연구협력관	서유진(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드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코딩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아두이노 드론, 코드론Ⅱ, tello edu 등 코딩 드론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를 활용한 학습안내자료의 제작 및 보급도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연구회는 인공지능 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업에서 주택편의 커리큘럼은 완성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항공편의 커리큘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도에는 드론이 미래의 인공지능 도시에서 어떤 역활을 하는 지에 대한 학습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에 목적을 가진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회의 연구위원은 초등·중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미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업경험이 풍부하여 초·중·고의 위계를 고려한 학습자료 개발하였다. 특히 학교 급별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년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학습자료를 제작하였으며, 2023년 11월에서 12월 동안 중등에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4차 산업혁명 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3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여러 역량 중 드론과 코딩을 큰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코딩을 핵심요소로 자료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자료를 적용할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

첫째, 드론을 활용한 역동적인 수업과 블록코딩을 활용하여 코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제언

가. 교육자료 보급

연구에서 개발되는 자료가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연수 등을 통해 개발된 자료의 보급이 필요하다.

나. 교구 확보

코딩교육이 2015개정 교육과정부터 적용되면서 코딩을 통해 제어 가능한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었다. 코딩을 통해 제어 가능한 드론도 여러 가지 개발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드론의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와 가격에 매력적인 드론이 없다. 기업체와 협업하여 코딩 수업에 사용가능한 드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후속 연구

본 연구의 팀(친구야)는 인공지능도시건설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마을교육과정의 메타버스 연계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명화 진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강지원 진동초등학교 교사
김아영 진동초등학교 교사
서유진 진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인철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마을교육과정의 메타버스 연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명화(진동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강지원(진동초등학교 교사), 김아영(진동초등학교 교사) 서유진(진동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김인철(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마을교육과정, 메타버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겹치며 학교 교육 현장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에듀테크,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방법들이 막을 수도 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래교육은 시작 단계이다보니 에듀테크부터 메타버스까지 대부분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기술 변화만으로는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없으며 미래교육의 역량인 4C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기초기능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염두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것이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며 그중에서도 앎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마을교육과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을교육과정과 메타버스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또, 교사들에게 마을교육과정은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고 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중 하나이다. 메타버스 역시 현장의 교사들이 손쉽게 도전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진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쉽게 도전해 볼 만한 사례들이다. 실행연구를 통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좀 더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2 연구 방법

① 선행연구 분석 및 실태분석

마을교육과정과 미래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실행연구 대상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② 실행연구의 연구과제 설정 및 실천

마을교육과정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마을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실천함으로써 프로그램 적용 이전과 이후의 마을 이해 및 긍정적 인식, 디지털 사용 능력, 메타버스 활용 능력의 변화와 4C의 질적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교육과정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필요성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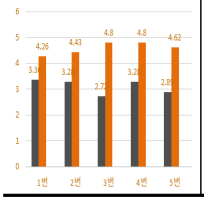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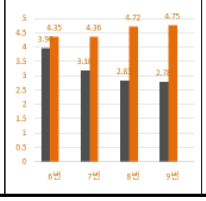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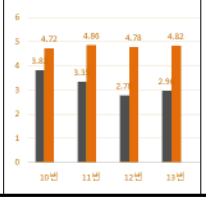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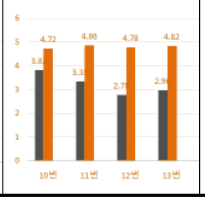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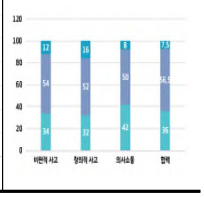
3 연구 내용

마을교육과정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마을버스」 프로그램의 연구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연구과제에 실천과제 3개를 설정하여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연구과제의 실행이 종료될 때마다, 연구원들이 모여 피드백하고 다음 연구과제 실천을 위한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제 1	연구과제 2	연구과제 3	연구과제 4	정책제안
마을, 버스를 타다	마을, 이야기하며 놀다	마을, 메이커 되다	마을, 세상에 알리다	실천 연구를 통한 마을교육과정과 메타버스 연계 방안 정책 제안
마을 탐방 마을 이해	이야기와 놀이로 알아보는 마을의 역사	메이커 활동으로 마을 알리기	메타버스 홍보를 통한 우리 마을 알리기	

4 연구 결과

「마을버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왼쪽이 사전, 오른쪽이 사후 결과 그래표이며 각 영역이 모두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이해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디지털 활용 능력	메타버스 이해 및 활용	4C 역량 질적 측정 결과
				

이를 통해 마을교육과정과 연계한 메타버스는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현장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정책 제언

①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금 지원

현재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거나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무료 사용의 경우 동시접속자 수가 제한되어 학급 단위로 사용하려면 유료 구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려는 학급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마을교육과정과 연계한 메타버스 활용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역교육청 단위의 메타버스 기본 맵 구축 및 지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ZEP과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교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맵을 지역교육청에서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사진이나 영상만 바꾸면 쉽게 마을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맵이나,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퀴즈를 해결할 수 있는 맵과 같은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아이톡톡 자료방을 통한 지역화 사진 제공

교사들이 마을교육과정을 위한 메타버스 자료나 수업 자료를 제작할 때 우리 지역의 사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톡톡 자료방에 지역화 사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메타버스나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사진을 찾느라 드는 시간과 노력을 매우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수업 자료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메타버스 관련 학부모 연수 및 교육자료 배부

메타버스를 적용할 때 큰 걸림돌이 되는 학부모의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부모 연수 및 교육자료 배부가 필요하다. 특히 메타버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실 현장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연수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 되도록 많은 학부모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전문가를 초빙한 주기적인 연수가 교육 현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영어과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평가도구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승현 창원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현우 웅상고등학교 교사
하종형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김정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차수진 창원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전형남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영어과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평가도구 제작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승현(창원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김현우(웅상고등학교 교사), 하종형(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김정란(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차수진(창원고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전형남(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성취평가제, 지필평가 선다형, 최소 성취수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에 따른 학생 내신 변별 우려

2025년까지 성취평가제가 확대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내신 부풀리기)으로 인한 내신 변별도 하락,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성취평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내신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성취 수준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나. 교사의 평가 역량 요구 증대

성취평가제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성취평가에 대한 단위 학교나 교사의 이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이다. 성취평가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과목 담당 교사가 각 학생의 성취수준(A, B, C, D, E)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평가의 중점이 내신 변별에 있어 상위 등급 변별을 위한 난도 높은 문항 개발에 몰두하였으나, 성취평가제에서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모든 성취수준(A-E)을 변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실효성 제고

성취평가제의 평가적 중점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세밀한 평가계획'과 '학생 책임 지도'에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는 등 학생의 실제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진정한 의미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판정이 가능한 문항을 내신 평가 문항에 적용하여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I) 학생 판별 기준에 있어서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지필평가 선다형 문항 개발 시 실제로 적용가능한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성취기준·성취수준 기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자료집 개발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	대상	분석 도구	결과 분석	시기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영어 1」 성취기준·성취수준 분석		~ 2023.07.
연구회 협의	-	성취기준별 모든 성취수준 판별을 위한 「공통영어 1」 지필평가 선다형 문항 개발		~ 2023.08.
양적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160명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검사지 문항반응률 분석	~ 2023.10.

3 연구 내용

가.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개발 방향

성취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분석 및 연구회 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공통영어 1」 이해 영역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문항의 내용과 수준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수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부합하는 선다형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모든 성취수준(A-E) 판별을 위해 각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을 1문항씩, 총 5문항으

로 구성하고, 성취수준별 문항 난도는 문항 유형, 어휘 수준, 구문 복잡도, 내용 추상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셋째, 선다형 평가 문항 자체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문항 출제 및 검토상의 원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읽기 문항을 위한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활용하여 각 성취수준에 맞게 지문을 변형한다.

나.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적용 및 결과 처리 방향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적용 및 문항반응률 분석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의 성취도'와 '성취수준별 문항에 대한 정답률'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문항 정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인은 통제한다. 따라서 검사지 적용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설정하고, 검사지 응시 시기와 응시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둘째, 검사지 적용에 앞서 각 문항별 '전체 학생 예상 정답률'과 '학생 성취도 그룹별 예상 정답률'을 추정하는 과정을 통해 문항 난도를 세부 조정한다. 이때,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은 각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약 2/3가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셋째,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가 각 성취수준 변별 도구로서 타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실제 정답률', '성취도 그룹별 각 문항의 실제 정답률,' '성취도 그룹별 전체 문항 정답률' 등을 분석하고, 성취수준 'E(40%이상 6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과 성취수준 'I(40%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답률을 구분한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를 개발·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기준·성취수준 기반 평가 문항 및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I) 판정 문항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공통영어 1」 이해 영역(읽기)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별 대표 문항으로 검사지를 구성하고, 정답률 추정을 통해 난도 조정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지 문항반응률 분석 결과, 단어 수가 많아질수록, 구문이 복잡해질수록, 문항 유형 난도가 높아질수록, 선택지가 영어일 때 정답률이 낮아졌다. 특히 성취수준 'A', 'B' 판별 문항은 성취도 'A', 'B' 그룹 학생의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이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 문항 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적용이 타당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검사지의 예상 정답률보다 실제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성취수준

'D'와 'E' 대표 문항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검사지에서 제시한 성취수준 'D' 판별 문항이 성취수준 'E' 문항, 즉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I) 판정 문항 난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취수준 판별 검사지 개발 모델을 단위 학교에서 학기 초 학생 수준 진단검사지 개발 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검사지 문항반응률 분석 결과를 지필평가 문항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성취기준·성취수준 기반 평가 문항 개발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정책 제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의 필수 역량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보완·강화하기 위한 실습형 연수 및 문항 개발 자료집 보급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계획을 교수·학습과 잘 연계하여 평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필평가의 계획과 시행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지필평가 계획·시행 시 적절한 비율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을 구성 및 제작하는 능력과 평가 후 문항 반응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지필평가 문항 제작에 대한 평가 전문성 및 역량 제고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필요한 평가 수행 능력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행평가 구성과 시행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수행평가는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및 화상 콘퍼런스 등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수업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해'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 영역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타당도 높은 평가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초등학교 구성원 간 협력UP·갈등down, 통!하는 연수프로그램 연구

- 교원, 행정직원, 공무직원 참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순금 성산초등학교 교감

공동연구원
김미애 영천초등학교 교사
서정화 양산교육지원청 파견교사
차성미 충무여자중학교 주무관
최보라 원동초등학교 교무행정원

연구협력관
정광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초등학교 구성원 간 협력UP·갈등down, 통!하는 연수프로그램 연구

- 교원, 행정직원, 공무직원 참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연구책임자	조순금(성산초등학교 교감)
공동연구원	김미애(영천초등학교 교사), 서정화(양산교육지원청 파견교사) 차성미(충무여자중학교 주무관), 최보라(원동초등학교 교무행정원)
연구협력관	정광미(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교원,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갈등 완화, 상호협력, 통!하는 연수프로그램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경상남도교육청이 철학으로 내세우는 '자립'과 '공존'의 교육 가치에 기반한 민주적 학교는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현장의 세 주체(교원,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가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며 학교 운영에 참여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주체는 서로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이 꿈꾸는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세 교육주체의 소통 부재와 업무에 따른 갈등 심화로 학교교육의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와 업무재구조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직급에서의 단절된 시도로 세 주체 모두가 수긍하고 함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등학교 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지원하는 주 구성원인 교원,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교원,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원, 방과후학교실무원, 사무행정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통의 교육적 관심을 공유하면서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고 즐겁게 일하는 학교문화를 위해 세 교육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 내용	
문헌 연구	자료수집	▪ 단위학교 내 조직문화, 조직구성원의 갈등 상황 및 각 구성원별 연수 내용 문헌 자료 고찰 ▪ 선행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수립	▪ 단위학교 내 구성원간의 갈등 상황 원인과 해결방안 분석 ▪ 기 개발 된 연수 프로그램 분석 및 적용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		
조사도구 개발	도구 개발	▪ 설문 및 FGI 질문 방향 설정 및 문항 개발
	전문가 자문	▪ 전문가 검토를 통한 조사 도구의 타당성 및 적절성 검토 ▪ 조사도구 수정 및 조사문항 확정
↓		
실태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 교원,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FGI	▪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방안 탐색 (FGI -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 실태 분석 및 현장 변화를 위한 요구 분석
↓		
프로그램 개발	연수프로그램 개발	▪ 심리적 영역,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연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반영
↓		
후속 연구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투입 및 실시 ▪ 피드백을 통한 활동 정리
	프로그램 확정	▪ 수정 프로그램 투입 후 확정
	검증 및 보고	▪ 설문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질적 평가 및 결론 도출

위의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계획단계와 중간보고단계에서 미래교육원 협력지도관의 전문적 지도와 자료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정·보완하면서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세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해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주제에 맞춰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각 직종별 학교 문화 및 구성원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수 내용, 방법, 형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세 구성원의 업무책무성 및 긍정적 상호작용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 책무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내에서 업무 중심의 관계와 소통이 우선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직종간 업무 이해 및 소통을 위한 연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업무효율 〉 학교문화 〉 학생중심교육 순으로 나타난다. 다만 교육행정직의 경우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직종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행정직이 업무적인 소통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종간 업무 이해 및 소통을 위해 선호하는 연수 내용은 소통 및 힐링 연수 〉 직종간 업무 이해 연수 〉 직무관련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적인 친밀감과 소통의 기반 위에 업무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타직종의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의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연수 시간과 시기는 2시간이 선호도가 가장 높고 연수 시기의 선호도는 새학년 맞이 주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일과 중 연수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이며 연수 시기는 연수의 주제 및 효과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성원들의 첫 관계 맺기가 시작되는 학년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연수 주제 특성상 대면 연수-체험, 실습 형태의 연수를 선호하고 있다. 연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GI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학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요구되는 연수 필요 정도와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공동체 안에서의 소통과 협력 사례로는 서로의 업무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지원, 협조했던 경험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개인의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일로 인식하고 지원, 협조했던 경험을 매우 인상 깊게 이야기하였다. 반면 타직종에 대한 낮은 이해, 존중의 결여, 공동체가 아닌 나만을 내세우는 태도 등은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언급되었다.

둘째, 응답자 전원이 직종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연수를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직종에 따른 서로의 역할과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소통한다면 개인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업무 효율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연수 운영 형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 동아리 등을 활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학교 모임들이 주로 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세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연수 시간을 2시간 내외로 하여 일과 중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와 내용으로 편성된 연수나 워크숍 등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상의 설문 조사와 FGI 분석 결과 이외에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의 연수 자료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연수 시간으로 구분하여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1박2일) 형태로 다양화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업무 이해적인 면에서는 학교 회계의 전반적인 이해 과정과 교무학사 부분에서의 학교 연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세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두 개의 큰 축으로 삼았다. 6시간으로 개발한 연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일형 _ 6시간 연수 프로그램 계획안

고려사항
- 학교 및 기관에서 연수 시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서로를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활동 가능
- 학교 밖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편안하고 소통 중심 분위기 형성 가능
- 행복마을학교 시설 및 마을강사 활용시 운영의 수월성 확보(지원체계 구축 필요)

<table>
<tr><th>시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6시간
(300분)

쉬는시간
10분*2회</td><td>▶ 아이스브레이킹 (20분)
- 아젠다 소개 및 확인을 통해 오늘 활동의 목적 구체화
-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MBTI로 서로를 알아가기 (60분)
- 성향에 따라 업무 및 소통, 생각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 관계맺기, 대화법, 타인 이해 등의 큰 주제 속에서 학교 상황 및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주제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업무이해강의 (40분) _ 학교 회계 및 업무 흐름의 이해
- 예산 이해 및 항목별 주의 사항, 단가 목록, 회계 YES or NO
: 전문적 소양이 아닌 전체적인 회계 흐름과 맥락 이해에 초점
▶ 톡!으로 통!하자. (50분)
- 연간교육과정 속 우리의 역할과 소통 (예시_아래 참고)
<table><tr><td></td><td colspan="3">( )월의 교육활동</td></tr><tr><td>구분</td><td>교사</td><td>교육행정직</td><td>교육공무직</td></tr><tr><td>역할</td><td></td><td></td><td></td></tr></table>▶ 활동!으로 통!하자. (110분)
- 소그룹별 체험 및 실습 활동
예) 금속공예, 아로마, 도자기, 목공, 캘리 등</td><td>●따뜻하고 열린 분위기 조성
●기관 및 구성원 요구에 따라 강의 주제 변경 가능
●월별 활동 및 하나의 행사에서 각 직종별 역할과 소통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
●그룹리더 사전 선정
●학생 성장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강조</td></tr>
</table>

- 활동시 소통 주제: 어려운 점, 감사한 점, 칭찬할 점 나누기
: 체험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리더가 주제에 맞게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마무리 및 쉼 (10분)**

- 전체가 모여서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공동체를 위해 실천할 점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4 정책 제언

앞서 제시한 단위학교 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개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체질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 조직으로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직무에 대한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우수 강사들을 발굴·양성하여 강사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시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나. 학교 밖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외부연수기관 및 시설 확보가 요구된다. 지역의 교육체험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 장소, 장비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발굴한 지역 자원을 프로그램화하여 단위학교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단위학교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종 간 업무 이해 연수 등 과정 특성상 온라인 연수가 적합한 내용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다. 개발한 연수프로그램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새학년 맞이 주간 및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단위학교에 적용 및 피드백을 통해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단위학교 대상 공동체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구성원간의 갈등 완화와 소통 및 상호협력에의 기여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존의 업무 효율화 중심의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학교행정 조직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상호협력을 기초로 하여 단위학교의 실제적인 내·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보고서

IB PYP에 기반한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효림 북면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박송은 대암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교동초등학교 교사
이현화 북면초등학교 교사
최민지 용남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재광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2023. 현장연구형 전문적학습공동체

IB PYP에 기반한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구

연구책임자	김효림(북면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박송은(대암초등학교 교사), 이경미(교동초등학교 교사) 이현화(북면초등학교 교사), 최민지(용남초등학교 교사)
연구협력관	조재광(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장학사)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주제어	IB PYP, 개념 기반 학습, 교사 교육과정 설계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학교 현장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교육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삶의 맥락을 제공하면서 학생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학습 경험에 대한 학생 참여와 참여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설계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학교 현장의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현장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능력을 강조하며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총론과 각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과정 문해력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계열성, 연속성, 각 학문의 특성, 학생들의 삶의 맥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수업 설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을 계획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B PYP의 수업과 평가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 주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생 주도권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PYP가 지향하는 탐구 학습은 지식과 이해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지닌 현재의 이해 수준에서 새롭고 더 깊은 수준의 이해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IB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YP의 교육과정 실행 전체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탐구를 강화하는 형태의 교육과정 설계나 단원 개발, 수업과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경남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IB PYP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수업과 평가의 방법적 측면이 아닌,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IB PYP가 지향하는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에서 IB PYP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의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IB PYP에 기반하여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 PYP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IBO와 관련있는 문헌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보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IB 기초, 후보, 인증 학교의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분석하여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형태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서는 IB PYP가 지향하는 탐구학습을 토대로 경남의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교육부에서 말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요구와 같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 기대하는 수업의 변화도 함께 제시하는데 깊이 있는 학습,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에 대한 학습을 주요 방향으로 함께 제안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 수업 방법,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개념이 학생 주도성이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고 결국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역량은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BO에서는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 IB 학습자상, 협력적 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접근 방법과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4가지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교육을 실행한다. 특히 PYP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를 구성하는 탐구에 중점을 두고 실제 생활과 연결된 예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습득하는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에서 교사 간의 협력과 학생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이는 POI와 UOI의 설계, PYP의 Unit planner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IBO(2014)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IB 철학을 반영한 탐구 과정이 POI(Programme of inquiry)와 단원 계획(Unit planner)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교사의 협업과 성찰을 통해 POI, 각 탐구 단원 및 세부 주제의 범위와 순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습은 IB 학습자상을 함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현된다. 평가의 과정은 IB 평가 철학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계획이 교수-학습과 통합되어 실현되며, IB 학습자상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특히, PYP 프로그램의 마지막 학년의 PYP 전시회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과 배움의 여정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다. 전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탐구 학습 단원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탐구, 학습 개념, 학습 기능, 태도, 행동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 능력의 강화, 학생 주도성 강조를 위한 수업과 평가의 변화는 PYP가 지향하는 협력적 교육과정 설계라는 프레임워크와 개념에 기반한 탐구 수업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는 PYP 프로그램이 각 국가의 교육과정이나 성취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경남 초등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설계 방안으로 PYP Unit planner를 활용한 템플릿의 개발은 PYP 교육과정 설계, PYP planner의 문헌 조사 내용과 Carla Marschall & Rachel French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계획과 실행, 성찰의 과정에 기반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초학문적 주제와 성취기준 중심으로 개발한 단원의 연계성을 탐색한 후, Unit planner에 적용하여 IB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도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예시를 제안하였다.

첫째, 탐구하기(Inquiry) 단계에서는 PYP의 6가지 초학문적 주제에 기반하여 핵심 개념, 관련 개념, 관련 성취기준, 중심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탐구 목록과 최종 평가 과제를 개발한다. 개념 기반 학습에서 핵심 개념은 개념적 렌즈의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PYP에서 말하는 형태, 기능, 인과 관계, 변화, 연결, 관점, 책임, 성찰이라는 9가지 개념 요소를 활용하여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행하기(Action) 단계는 PYP의 교수 접근 방법과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해당 단계는 IB의 교수 접근 방법(ATT)과 연결되며,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실행하기 단계의 템플릿은 개념적 이해를 위한 탐구 학습을 어떤 흐름으로 구성할 것인지 드러나야 함과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며 드러나는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성찰하는 피드백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식, 기능, 개념적 이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의 수집과 과정 중심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탐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개발하였다.

셋째, 성찰하기(Reflecting)는 탐구의 계획, 과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탐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반성적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성찰하기의 결과는 학습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하고 다음 탐구 단원 운영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성찰하기 단계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템플릿의 내용 중 마지막 단계로 제시되어 있지만 탐구하기, 실행하기, 성찰하기 모든 단계에서 실행하고 수업 과정으로 환류되는 과정임을 생각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협력적인 교육과정 설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PYP에서도 교사들에 함께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한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학년이나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POI와 UOI의 개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단원의 개발이라도 지속적으로 협력 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정책 제언

① 교사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한 연수 개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템플릿은 PYP가 추구하는 개념 기반 학습에 기반하고 있다. IB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수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② 개념 기반 학습에 기반한 수업과 평가의 통합적 설계 예시 자료 개발 및 보급

개념 기반 학습은 같은 주제와 내용이라도 어떠한 개념적 렌즈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기반한 탐구 맥락을 구조화하여 제시한다. 개념적 이해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개념 기반 학습이나 탐구 학습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수업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시 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사의 협력적 교육과정 설계 문화 조성

PYP의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교사, 학생 간의 협력적인 교육과정 구성 문화이다. 특히, POI의 설계와 UOI의 설계는 Unit planner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해당 과정을 전문적학습공동체나 학년(군)별 공동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학교의 교육 공동체에 기반한 공인된 평가 문화 조성

PYP 평가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부여되며 공동체가 협력하여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게 한다. 이는 학생들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방법을 습득하여 학습 과정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피드백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평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연구

- 경남 일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정은 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은주 소답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윤은주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연구

- 경남 일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박정은(통영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은주(소답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윤은주(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정은(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학교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흐름과 더불어 고교학점제는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교육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의 선택권과 다양성 강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입 제도 및 입시 정책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학업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의 보완점 및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구와 학업 설계를 강조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자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문헌 고찰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도입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의 정의 및 도입 배경, 국내·해외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정립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인식에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실제 고교학점제의 주체가 될 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에서 나아가 중학교 교원 및 중·고교 학생까지 실제적으로 느끼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교육과정 만족도를 분석하여 2025년 전면 실행될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나. 설문조사 및 자료 처리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일반고) 교원 및 학생으로 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내용은 고교학점제 하에서 실시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태 및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요구사항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표집학교에 공문으로 배부하였다. 2023년 9월 7일 ~ 9월 21일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레카 3.0을 이용한 문항별 자료 처리 및 수집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경남 일반고에 초점을 맞춘 고교학점제 운영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통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경남 중등 교원 및 중·고등학생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 및 인식 수준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경남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23년 경남 소재의 모든 일반고가 고교학점제 연구 또는 준비학교로 운영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중등 교원 및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조사와 더불어 고교학점제 운영실태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인식 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원(4.66)과 학생(3.78) 모두가 중학교 교원(4.12)과 학생(3.0)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교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학업 설계에 바탕을 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이해도와 인식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과 '현행 대입제도의 불일치 문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경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편제표의 학생 선택과목 편성 유형은 '일부 영역 간 개방형'(69.55%)이 가장 많았으며, 이수과목 편성 시 '학기제로 편성'(32.27%)에 비해 '학기제와 학년제를 혼용'(49.77)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 과목 선택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실시(90.45%)하고 있었으며, 선택과목 다양성에 대해 교원(82.05%)과 학생(44.47%)은 긍정적 응답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과목 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교원에 비해 선택과목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선택과목의 비중을 더 확대하는 의견(33.8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에서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55.23%)와 2순위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31.36%)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과교사 확보'(46.14%)와 '다과목 교사 업무 배려'(25.4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구성·운영'(57.95%)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유지한 채, 업무가 가중(63.92%)되어 실제 진로·학업 상담 시간 부족(13.73%)으로 이어져 운영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및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임, 진로교사, 교육과정부 등 주관 부서의 업무에서 단위학교 차원 모든 교원이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이해 및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안내 강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기획하여 지역에 맞는 운영 사례와 성과 공유 등을 통해 단위학교에 집중된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섬세한 정책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중·고등학교를 잇는 진로 연계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가 대입을 위한 수단을 넘어 본래 취지인 학생의 적성·흥미, 진로 등을 고려한 과목 선택 및 진로 교육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춘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선 중학교 3학년의 진로 연계 교육과 고등학교 진로집중학기를 연동시켜 학생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학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진로·학업 설계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원 수급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강사의 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유연한 교원 정원 운영과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교원과 학생 모두 학교 현장에서 학생 과목 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교원 수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학급 수 기준의 현행 교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교원 증원 배치, 다과목 지도 교사 업무 배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순회전담교사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지역별 교·강사 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한 만큼 **지역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구축을 비롯한 교과순회전담교사의 인원 확대 및 수당 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④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적 문화 구축

단위학교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한 부서 업무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협력적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다과목 지도 교원에 대한 배려, 진로·학업 설계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재조직, 소통강화 등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서진화 진주혜광학교 교사

최미선 합포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임상호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진화(진주혜광학교 교사), 최미선(합포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임상호(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교의 교육적 사명은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참여 가능하도록 학업적, 사회적, 삶의 기술 역량의 세 가지 상호 관련된 기대치를 달성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애 학생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기대치를 달성하는데 있어 많은 정서적, 사회적 및 행동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워 하고 있다. 최근의 행동지원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강조하며 문제행동 발생전 미리 예방하는 중재기법을 교사들이 알고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예방적인 접근을 채택한 학교들은 문제행동이 발생 한 후에 반응하기보다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교수함으로써 문제행동에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문제행동 이후의 반응적이며, 처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전 행동을 바라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ABA)을 통한 긍정적행동지원 프로그램(Positive Behavioral Supports)은 최근 학생들의 도전 행동에 있어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는 물론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긍정적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는 2021년도부터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등 현장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학생들의 도전행동이 점점 심각해지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으로 행동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이론 중심에서 실제적인 행동지원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저해 요인, 활성화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경험한 특수교사 중 장애학생 행동중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5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1) 심층면담 조사내용은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선행연구와 전문가 및 공동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개인적인 측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측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요인 및 저해 요인 측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측면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면담은 연구대상자의 각 학교에 방문하여 5시간 정도 실시한다. 면담 대상은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경험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중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가교사와 나교사, 다교사, 특수학급에 근무 중인 라교사, 마교사로 총 5명을 선정하였고 대상자별로 각 1시간 내외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연구 내용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내용을 설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경험한 개별 교사의 면담을 녹취, 전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 비추어 그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행동중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과정 문해력을 겸비한 교사가 중재교육과정 설계에 탁월할 수 밖에 없다.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행하고 관련 연수를 확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나. 위기학생 전담팀 구성 및 지원체제 구축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팀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 응용행동분석 등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리더십 팀, 실무 팀, 실행 팀 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 학교 기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체제 구축

학교가 예방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지원제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민주적 과정을 통해 만든 학교 생활 규범을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고,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1단계 보편적 중재 활동을 펼친다면 80%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일반학교 교사들을 위한 행동중재 지원 시스템 구축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학부모 민원, 항의를 받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 중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성공 경험의 공유

학생의 행동중재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사들이 모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 행동 중재를 위한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5 정책 제언

①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활성화

다섯명의 교사가 경험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얻어 낸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및 중재교육과정 매뉴얼 개발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재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교육과정 문해력 및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행동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 차원의 위기행동 대응 매뉴얼 개발

학생이 갑작스럽게 심각한 공격행동, 교실 이탈 등을 보일 경우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학교에 위기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위기행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정민 가촌초등학교 교사

이선경 창원상남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박정민(가촌초등학교 교사), 이선경(창원상남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강지명(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주제어 비폭력대화, 사회정서역량, 사회정서학습, 교육회복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고위험군 학생과 더불어 일반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 심리상담 건수뿐 아니라 학교폭력 중 관계적 폭력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고 다양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스마일 키퍼스』 역시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스마일 키퍼스 프로그램은 20명 이상의 학생들과 진행하기에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기 이야기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어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기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급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프로그램이 32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된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실 상황에 적합하고 도덕 교과와 연계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중학년(3~4학년)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일반학급 학생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역량 기준을 적용한 교과연계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시 40분, 6회기의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정서역량 신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업 전·후 사회정서역량 관련 검사지를 배부했다. 검사지의 각 문항은 사회정서역량 척도 문항구성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사회정서역량 사후 검사지를 통한 양적 연구 외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소감문, 진행자와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 내용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정서역량,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헌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백예은(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정서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역량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높여주고 학급의 공동체의식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폭력대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중학년 (3~4학년)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신장을 위한 학급단위 비폭력대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학급에서 적용 가능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회정서역량 5가지의 하위기술을 분석하고 각 하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총 6회기의 활동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골고루 향상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핵

심 사회정서역량과 각 회기별 활동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자료와 활동지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연구 결과

경남 ㄱ초등학교 3학년 O반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사회정서역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paired-t 검정을 실시하여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을 적용 후 사회정서역량 평균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6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소감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알게 되었으며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정서학습이론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설문 결과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사와 전문가의 면담을 통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1차시 80분의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교과	도덕, 창체	대상 학년	3-4학년	
차시	차시별 주제	내용	도덕 교과 관련 단원	핵심 사회정서역량
1	마음열기	-비폭력대화 그림책 읽기(비폭력 대화란?) -비폭력대화란? (기린말, NVC의 상징=기린) -비폭력대화의 4요소	4-1. 도덕 공부, 행복한 우리	5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지
	관찰	-비폭력대화 그림책 읽기(관찰 알아보기) -관찰이란?/관찰과 평가 구분하기	3-1. 나와 너 우리 함께	자기인식(연결) 자기관리
2	느낌	-지금 나의 느낌은? -친구의 느낌 공감하기(거울 반영)/알아맞히기 -느낌과 생각 구분하기/느낌말로 표현하기	3-1. 나와 너 우리 함께	자기인식(연결)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연결)
3	욕구	-느낌이 생기는 이유 알아보기(욕구) -욕구 낱말 빙고(욕구 낱말 알아보기) -욕구로 표현하고 공감하기(거울반영) -욕구산책/학급이 함께 채우고 싶은 욕구 찾기	4-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자기인식(연결)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연결)

4	연결/부탁	-부탁과 강요 구분하기 -자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듣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 -부탁하기/부탁하는 것을 선택하기 -학급에 부탁하는 말 쓰고 규칙 만들기	3-3.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 4-2. 공손하고 다정하게	사회적 인식(연결) 관계관리 책임있는 의사결정
5	내 마음 표현하기	-비폭력 대화의 4요소로 내 마음 표현하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일기 쓰기	3-3. 사랑이 가득한 우리집 4-4. 힘과 마음을 모아서 4-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자기인식(연결)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연결) 관계관리 책임있는 의사결정
	갈등을 바라보는 자세	-나를 자극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자극하는 표현을 듣고 받아들이는 4가지 방식		
6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하기	-잘 듣기와 듣지 않기 활동/의사소통과 오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 역할극 하기 -소감 나누기/감사하기		

5 정책 제언

①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단위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단기 프로그램의 적용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연간 단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비폭력대화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과 연결하며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협력으로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② 학년별 교과연계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각 학년별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학년마다 교과에서 관련 요소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학년별 교과별 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비폭력대화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③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적, 금전적, 환경적 지원

학년 초 교육과정 수립 시부터 학급 세우기를 통해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시기별, 행사별 계기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비폭력대화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와 더불어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와 문해력 관계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현미 명도초등학교 교사

설은정 김해대청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현희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강성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와 문해력 관계 분석

연구책임자	김현미(명도초등학교 교사), 설은정(김해대청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현희(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강성희(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문해력, 읽기 태도, 독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문해력을 현대인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꼽고 있으며, 문해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문해력에 관한 학습자료와 진단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투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해력 진단 도구와 문해력에 관한 학습자료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기초 문해력을 진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는 과도기이다. 중학교는 교육 체계에서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문해력이 약한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해력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6학년 학생들의 문해력을 진단하고 문해력 신장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문해력을 신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 중 독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읽기 태도와 문해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해력 신장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유의미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 읽기 태도를 진단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읽기 태도와 문해력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지역 초등학생의 문해력 실태 및 읽기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경남지역 초등학생의 지역 및 성별에 따른 문해력과 읽기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경남지역 초등학생의 문해력 수준과 읽기 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경남 소재 시지역 6학년 학생 51명, 군지역 6학년 학생 49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읽기 태도 및 문해력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 문해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기초 문해력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읽기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읽기 태도 검사지에서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문해력 검사와 읽기 태도 검사를 실시 한 후 기술 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경남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문해력 및 읽기 태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문해력 검사 및 읽기 태도 검사를 통하여 경남지역 6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 및 읽기 태도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경남지역 학생들의 성별 및 지역에 따른 문해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해력 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경남지역 학생들의 성별 및 지역에 따른 읽기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읽기 태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독립표본 t-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경남지역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읽기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학생들의 문해력에 읽기 태도와 독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경남지역 초등학생의 문해력 및 읽기 태도 검사 결과

경남지역 초등학생 문해력 검사 결과 45점 만점에 평균 34.97점으로 비교적 높은 문해력

수준을 보였다.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알아보는 7개의 문항에 따른 응답 결과 일주일 동안 수업 시간을 제외한 글 읽는 시간의 평균은 1~2시간 정도이며, 보상에 의한 책 읽기나 의무적인 책 읽기가 아닌 자발적인 이유로 책 읽기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독서지원환경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구해서 읽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이나 도서관의 독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서를 할 때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의 도움이나 영향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위험환경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학생들의 독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책 읽기보다 재미있는 놀이와 책 읽기보다 중요한 공부가 많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책을 읽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항 응답을 살펴보면 시간이나 독서 환경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및 지역에 따른 문해력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문해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문해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의 질과 기회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에 따른 문해력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 초등학생들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질이 시, 군 지역에 상관없이 평등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별 및 지역에 따른 읽기 태도 차이 분석 결과

읽기 태도의 3가지 하위 영역의 문항들이 지역과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의 남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른 읽기 태도 문항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를 위한 지역 및 학교의 시설이나 지원 환경 등이 지역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독서 환경이나 지원 실태 등이 학생들의 독서 양이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문해력 수준에 따른 읽기 태도 비교

문해력 검사 결과에 따라 문해력 수준 상위 25%의 학생과 하위 25% 학생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읽기 태도 하위 영역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문해력 수준에 따른 독서 실태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 수업 시간 외 글을 읽는 시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해력 상위 집단은 일주일에 평균 2~3시간 글을 읽는 반면에 문해력 하위 집단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2시간 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책을 읽는 시간이 학생들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서 지원 환경이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다만, 학교나 독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문해력 하위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환

경적 지원보다는 개별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문해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수준에 따른 독서위험환경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해력 하위 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해 책 읽기보다 재미있는 놀이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이는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에 대한 차이는 지속적인 독서 태도를 형성하고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 읽기는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문해력이 낮은 집단 학생에 비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이는 첫 번째 영역인 독서 실태에서 문해력이 높은 학생이 독서의 양이 많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정책 제언

① 경남지역 학생들의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해력 검사 도구 개발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해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급별 학년 수준에 맞는 문해력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② 학생 개별 맞춤형 문해력 지도 방안 마련

문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과 연계하여 문해력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들의 문해력 지도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학년 수준에 맞는 문해력 지도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③ 독서 교육의 방향성 전환

도서관 현대화, 학교 도서 예산 확보 등 물리적인 독서 환경 조성에 힘써오던 독서 교육의 방향을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삶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독서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년별로 제시되었던 권장 도서 및 독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문해력 수준에 따른 권장 도서 추천, 독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주상래 진주혜광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강성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주상래(진주혜광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강성희(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기초학력, 학교생활, 재능, 다양성, 가치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기초학력을 학교에서 보장하려는 목적은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학력에 미도달 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뜻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생의 내·외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는 기초학력 미도달의 원인을 탐구해보고 기초학력에 미도달한 학생들도 자존심의 상처 없이, 자신의 유능함을 깨우치고,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기초학력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학생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학생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따른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생활지원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3 연구 내용

•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적요인-신체적·정서적 장애(발달장애, ADHD, 학습

장애, 정서적 부적응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건강장애, 정신질환), 학습습관의 부재 등

•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는 외적요인-가정적 요인(부모의 가치관과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위치), 학교요인(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요인), 디지털 매체요인, 교육정책 요인 등

각각의 요인이 발생한 원인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원방법을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기초학력과 직접적인 관계인 교과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예술활동, 진로활동,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균형있게 평성하고 모든 교육활동의 성취를 균등한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 공평한 가치평가를 받는다면 학생들은 성적에 의한 우열이 나누어지지 않고, 나와 다른 강점을 가진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가진 강점과 다른 친구가 가진 강점과 협업하는 공동체 능력이 발달할 것이다. 서로가 윈윈하는 경험을 한다면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 양성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학교교육은 교과학습 재능 계발뿐만이 아니라 예술과 체육 재능을 비롯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도록 지원해야한다. 다양한 재능이 가진 가치를 공평하게 인정하는 교육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정책 제언

① 기초학력에 미도달하는 학생의 내적 요인에 따라 학교생활을 지원함

-신체적·정서적 장애 요인은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 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습장애, 정서적 부적응이 있다. 장애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해야한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은 뇌병변 장애와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가진 학생은 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교육적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실패경험으로 인해 정서적인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공하기 쉬운 과제는 세심한 과제 분석을 통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비슷한 수준의 또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교사(부모)의 기대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다.

-학습습관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습관 형성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가정이 함께 노력한다. 학습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신체 활동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② 기초학력에 미도달하는 학생의 외적 요인에 따라 학교생활을 지원함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기 등이 있다. 가정은 학생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사회이다. 학생의 성격, 자존감, 가치관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위치와 학생의 학업성취가 서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가정적 요인은 발생한 경우는 부모교육과 교육복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요인 등이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 교사의 태도, 교사와 학생과의 믿음, 교육활동에 적합한 학교환경이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즐겁고 긍정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과 같은 학생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노력보다는 학생이 가진 장점을 찾고 그것이 더 성장하도록 돕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교사(학부모)는 학생이 건전한 내용의 스마트폰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학생학력성과, 교육, 예산 할당, 교육과정 등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지원을 위한 가장 실천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다. 교육정책방향은 모든 학생 저마다 가진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전인적 성장을 향해야 한다. 학생의 재능은 각자 다르며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발달 시기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특정 능력이 발달된 학생에게만 유리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평

가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마치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달리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토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기 규칙만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헤엄을 잘 치는 거북이도 존중받고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도 존중받는 각자의 재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란 밀양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양재영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영란(밀양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양재영(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농어촌, 미래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경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를 열고, 소수 학생의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경남 온라인 학교'가 이론적 수요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나아가 학생 맞춤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둔다.

기존의 고교학점제 연구들은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마저도 개설하지 못하는 농어촌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쟁점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특성을 정비하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의 변화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써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보고서 및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다양한 선행연구 및 법령정보 등 다양한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자문단' 풀을 활용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 학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성화 계열의 학교를 포괄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한 현 교육 체제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방향 설정과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기간 내 지속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 연구진과 연구 협력진 간의 연구 내용 점검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한 연구 수행 및 방향 설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연구 내용

가.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실태분석

아직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수업은 수업 제공 형태와 주체에 있어 제한적이다.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는 교사 역량 강화뿐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차원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런 지원책이 실현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시행 후 정책적으로 '수업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교실과 오프라인 수업'의 의미에서 '인근 학교나 온라인, 지역사회'까지로 확대되면서 기술한 온라인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교과별로 전공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실정에 더하여, 학년(급)당 학생 수가 아주 적어 선택과목별로 분반하여 수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형편에 맞추어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학생 수요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적성 · 진로에 맞는 학업 설계를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학교와 학교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행 중이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학생을 위한 지원, 교사를 위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실태를 학생 관점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반수의 학생이 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참여 이유로 응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 활동의 제한, 실시간 수업 참여 부담, 수업 시간의 제약 등을 공동교육과정의 어려움으로 꼽았고, 수업 지원체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학교의 통신 네트워크, 수업 관련 기자재, 시스템 편의성의 모든 영역에 대해 '적절하다'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농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실태를 교사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사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의 수요 및 요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제도에 대한 교사의 이해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이전 연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업 주요 활용 자료는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수업 일정 조정이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제하고 학생이 관심과 진로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3년 동안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도심의 학교와 비교해 볼 때,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학교가 지정해 주는 과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학생을 위한 지원과 교사를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모색해 보았다.

5 정책 제언

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현재 경상남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 선정 시 농어촌 지역의 학생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읍·면 소재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이분화시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학교 규모나 대도시와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읍,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로 이분화시켜 보장하기보다는 읍, 면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중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실시한다든지, 경남지역 대도시 소재 학교, 중소도시 소재 학교, 읍·면 단위의 소재 학교 등으로 더욱 세분화시켜 우선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②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도 이탈자를 막기 위한 인식개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전-수업 중-수업 후'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수업 전 일선 학교에서는 수강 신청 전 '담임교사(혹은 진로 교사)→교과 교사→교육과정 담당 교사'와의 3단계 시스템의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기 수업 중에는 1교 1명의 공동교육과정 관리 교사를 한 명 지정하더라도 학생 1명의 멘토 교사 1명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수업 참여를 체크하고 독려한다든가, 학습 내용의 이해도를 살펴보는 등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수업 후 미이수자는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였으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아 미이수'와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③ 지도교사의 수급을 폭넓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강사 수급은 수요에 비해 강사를 모집할 수 없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의 희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022.3.1. 이후 교육과정 내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사만 인사이동 시 교육활동 경력점(1년 0.2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교육과정 외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승진가산점이나 인사 이동가산점과 같은 인센티브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교사들을 움직여 학생 수요에 맞추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할 수 있게 하리라 본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미희 장유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갈등 해결을 위한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신미희(장유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비폭력대화, 갈등 해결, 또래 중재 프로그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에 있다. 갈등을 잘 대처한다면, 교우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은 가족보다 또래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 또래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또래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또래 중재에 큰 이점이 된다. 비슷한 또래가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면 자신의 관점, 언어, 태도가 잘 이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 말하지 못하는 갈등도 또래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비폭력대화는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비폭력대화의 기반한 중재의 의도와 목표는 (Kinyon, :asater,2014) 첫번째는 우선 자신과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을 통해 양측은 상처로부터의 치유가 일어난다.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얻게 된다. 그리고 문제 당사간 동의한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까닭으로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방법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문헌 연구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이수받은 비폭력대화 과정 1~3과정, 중재과정, 스마일키퍼스, Life 과정의 자료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시중에 나온 많은 비폭력대화 책을 통해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프로그램을 1차로 개발한다.

본 연구자에 의해 1차로 개발한 또래 중재 프로그램을 교사집단과 비폭력대화 센터 강사에 의해 타당성을 점검받고자 한다. 교사집단도 본 연구자와 동일하게 비폭력대화를 이수하고 학교에서 비폭력대화를 사용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수업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연구 내용

학령기에 또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정서조절능력, 사회적 기술과 공감능력이 있다. 정서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하는 정서 상태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갖추어져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란 협동, 나누기, 도와주기, 차례 지키기, 교환하기, 사회적 문제해결 등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 능력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공감 능력이 높은 아동은 상황에 따른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래 수용도가 높고 교유관계의 질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또래 중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폭력대화의 4가지 요소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다. 관찰은 나의 생각과 판단 및 선입견을 섞지 않고, 상황을 보거나 들은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느낌은 우리의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체적 느낌(떨리는, 답답한 등)과 정서적 느낌(외로운, 슬픈 등)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욕구는 삶에 생동감을 불어주는 에너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하다. 기본적인 물, 음식, 잠 이 밖에도 자기 구현을 통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결, 사랑, 존중,

돌봄 등 욕구가 필요하다. 부탁은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폭력대화의 요소를 갈등중재 프로그램에 놀이와 접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총 8회기 18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단계	주제	회기	목표	활동 내용
준비하기	관계 맺기 및 수업 활동 규칙 소개	1회기 (2차시)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 서로 연결 짓고, 수업 활동의 규칙을 함께 정한다.	-나의 이름 네 글자 만들기 -서로의 강점 찾기 -<몸>글자 읽기(정답 없음) -잘 듣기와 안 듣기(경청연습) -소문내기(비밀보장)
	자기 이해하기	2회기 (2차시)	‣자신만의 배지를 만들며,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의 좋은 점 공유 -변하고 싶은 동물은? -나만의 배지 만들기 -나만의 배지 자랑하기
배워가기	비폭력대화 4요소 알기	3회기 (4차시)	‣비폭력대화의 4가지 요소를 안다.	-경험에서 비폭력대화 4요소 찾기 -게임으로 4요소 익히기
	갈등 이해 및 상대 공감하기	4회기 (2차시)	‣갈등을 이해하고, 상대를 공감하여 봅시다.	-갈등 OX퀴즈(갈등 이해) -나의 갈등 온도(갈등 반응) -듣기 싫은 병명 -놀림 당하는 사람의 느낌 욕구 알기
	갈등과 친해지기	5회기 (2차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음을 안다.	-화난 자세로 멈추기 놀이 -꼬마 마법사 놀이(싸우는 개와 고양이 화해시키기) -갈등을 역할극 표현하기 -동화로 갈등 해결 연출하기 -인간 매듭짓기(연결)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기술 익히기	6회기 (2차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법을 생각한다.	-win-win 놀이 -새로운 갈등 해결 방법 알기 -갈등 속 욕구 알기 -갈등 중재자의 태도 알기 -<연결 반영> 연습하기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 모델 익히기	7회기 (2차시)	‣탐정수첩을 이용하여 또래 중재 방법을 익힌다.	-화난 경험 나누기 -분노 이해하기 -분노 온전히 표현하기 -중재자 수첩으로 역할극
실천하기	비폭력대화 도래 중재 적용 계획 세우기	8회기 (2차시)	‣학급에서 또래 중재 적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운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회의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환경 구성

5 정책 제언

① 교육과정에 비폭력대화 또래 중재를 가르칠 수 있는 시수 확보

본 프로그램은 18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이 시수를 확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도덕과의 갈등해결 단원, 국어과의 의사소통 단원 및 창의적 재량활동 등으로 재구성으로 시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시안을 제공한다.

② 교사 대상 또래 중재를 위한 비폭력대화 연수 실시

현장에서는 비폭력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비폭력대화의 철학과 대화 기법을 익히게 되는 연수로써 이 또한 매우 필요한 연수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게 되면 현장에서는 비폭력대화로 적용한 연구를 각자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비폭력대화 그 자체의 연수도 필요하지만, 비폭력대화를 접목하여 이루어진 실제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또래 중재를 위한 비폭력대화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연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비폭력대화의 여러 철학과 대화 기법 중 학급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래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선별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또래 중재자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또래 중재를 위한 비폭력대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된 교사가 필요하다. 이는 훈련된 교사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교육받고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 또래 중재를 위한 비폭력대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 수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마을 교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학급이나 학교에서 또래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지혜 제황초등학교 교사

김송이 산인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지혜(제황초등학교 교사), 김송이(산인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직원 회의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 상황의 학교에서는 교직원 또한 비대면 상황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고 이는 학교문화에 녹아들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학생 중심 개별화 수업을 위한 학교 공동체와의 협력은 지속적인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의 논의에 있어 교사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 방법의 다양성,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사 간의 다양한 회의를 통한 결정과 의견 나눔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잘 이끌기 위해선 학교 구성원과 학교의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을 스스로 성찰하며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면서 교실 수업, 학급 운영, 학생상담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교사가 올바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수용될 수 있는 회의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의 실태를 분석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조사하여 상호 존중되며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경남 전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회의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 요건 및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일반 학교와 행복학교 간의 민주적 회의 문회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적 회의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학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교직원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요인 및 저해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경남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2023년도 기준 경상남도에 위치한 전 초등학교 관리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실 교직원은 설문조사에 제외하였다. 경남 초등교원 56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교사 294명, 부장교사 124명, 관리자 144명의 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고 분석하였으며 경남 초등학교 교직원 회의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일반학교와 행복학교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나. 경남 행복학교 교사 대상 심층 면담 조사

본 연구의 심층 면담 대상은 행복학교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소속 교사로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5명의 교사를 선정하였다. 심층 면담 조사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개방 코딩 - 범주화 - 범주 확인' 과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내용

경남 전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요건, 교직원 회의 현황, 구성원

의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리더십, 교직원 간의 관계, 경남 교육정책 이해 7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회의문화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직원 회의의 주요 내용 현황, 교직원 회의 발언자, 교직원 회의의 민주성 정도에 대한 인식, 교직원 회의의 민주적 운영 요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민주주의 정책의 이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일반 학교와 행복학교 간의 민주적 회의문회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행복학교 교직원 회의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교직원 회의의 민주적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민주적 의사결정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첫째, 경남 지역의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직원 회의의 운영 현황과 민주성 정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 교직원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업무전달이 가장 많았으며, 안건 결정이, 연수 및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업무 전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직원 회의의 민주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아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관리자와 부장교사와 비교하여 일반교사가, 행복학교와 비교하여 일반학교가, 소규모학교와 비교하여 대규모 학교의 민주적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리더십, 구성원의 관계 4가지 요건을 분석한 결과 행복학교에서 모든 요건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경상남도의 학교 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본 결과 많은 교원이 경남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모르고 있으며 학교 민주주의 지수진단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많은 교직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형식적인 진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정책 제언

①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수 실시 및 학교 현장 지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을 상명하달식의 결정으로 정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닌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관리자 자격 연수 시 학교 민주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이나 퍼실리테이션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달식 연수로 민주적인 리더십 형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 현장에 전문가를 지원하여 회의에 전문가가 직접 참석시켜 회의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전체의 협력적인 분위기와 참여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직원 회의문화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토의·토론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직원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내 교직원이나 관리자 중 한 명이 퍼실리테이션 연수를 이수하여 교직원 회의 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회의 전 안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회의 참가자가 회의내용에 대해 사전 숙지하여 안건에 대해 숙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의견을 민주적으로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③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에 관한 정책 및 매뉴얼 마련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보와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회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의 교직원 회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타지역의 모범사례나 경남 지역의 민주주의 지수진단 점수가 높은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연수내용에 반영 및 자료집 보급을 통해 일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도 학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저 경력 교사나 소수 교사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직원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형식적인 학교 민주주의 지수진단이 아니라 진단 결과를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배움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현정 북면초등학교 교사

안윤주 충무고등학교 교사 교사

책임연구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백기열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진양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배움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 분석

연구책임자	김현정(북면초등학교 교사), 안윤주(충무고등학교 교사)
책임연구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백기열(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진양(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배움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배움 중심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삶과 연계된 참여·협력형 배움 중심 수업,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배움 중심 수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관련 연수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및 아이북을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 등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21년부터 '미래역량 함양',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학교 현장에 다시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배움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배움 중심 수업 관련 정책의 기여도 및 만족도,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정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배움 중심 수업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 활성화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사들의 '배움 중심 수업'과 '경남교육청 배움 중심 수업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으며, 배움 중심 수업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셋째,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연구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연구 방법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의 성격 규정	• 배움 중심 수업 이해 • 탐구 문제 설정
⇩	
타시도 정책 탐색 및 정책 분석	• 2023 타시도 배움 중심 수업 정책 탐색 • 경남교육청 배움 중심 수업 정책의 변화 및 분석
⇩	
설문조사 및 분석	• 학교급별 설문조사 실시 • 정책별 설문조사 내용 분석
⇩	
질적 사례 수집	• 학교급별 교사 사례 수집 • 심층 면접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연구 결과 제시	• 배움 중심 수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 • 효과적인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안착을 위한 제언

3 연구 내용

경남의 배움 중심수업 정책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 초중고 교사 168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과 배움 중심 수업 정책에 관한 인지도, 경남교육청의 배움 중심 수업 정책이 배움 중심 수업 실천에 기여한 정도 및 효과, 배움 중심 수업 실천 및 교사의 자발적 연구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좀 더 깊이 있게 교사의 입장에서 배움 중심 수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함에 있어 정책의 기여도와 정책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행복학교 중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총 3개교에서 교사 1명씩 총 3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메일로 심층 면담 질문지를 전달한 후 행복학교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행복학교 배움 중심 수업 실태, 수업에서의 학생 주도형 수업 태도 양상, 학생 주도형 수업 활성화 방안,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움 중심 수업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배움 중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교사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즐겁게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 핵심 역량, 성취기준에 적합한 수업 모형과 수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배움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꾸준히 수업을 나누면서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관해 성찰하여 배움 중심 수업으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이 배움 중심 수업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배움 중심 수업과 관련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업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배움 중심 수업 관련 연수는 교사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정책으로 조사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의 연수를 확대하고 단위 학교별 및 수업 탐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교사의 자발적 문화 조성이 계속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움 중심 수업에서 아이북을 활용한 수업 연수와 도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배움 중심 수업에서 아이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북 사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배움 중심 수업에 잘 활용된 사례에 대한 연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실습형 연수, 배움 중심 수업에 활용한 사례집을 배포하여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이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면서도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 외에 학급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찾거나 좋은 과제를 생각하거나 수업이 어려운 반에 대해 어떻게 함께 수업을 잘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다섯째, 배움 중심 수업 진행 흐름이나 구체적인 매뉴얼, 수업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가 배움 중심 수업이 필요하고 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배움 중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좋은 과제는 어디에서 찾아 활동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등에 대해 어려워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가 많다. 전체적인 배움 중심 수업 진행에 대한 흐름이나 메뉴얼, 수업 모델 등을 제시하면 자신의 학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일상 수업 나눔에 대한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수업을 나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나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구성원간의 수업 나눔의 의미에 대해 같은 철학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월 학교 워크숍에서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의미, 수업 나눔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학교 비전이나 철학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일상 수업 나눔도 자유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5 정책 제언

① 단위 학교별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내 배움 중심 수업 연수 지원 체계 관련 정책을 제안

설문과 심층 면담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별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배움 중심 수업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지만 물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집합 연수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단위 학교별로 연수를 받고 싶어도 원하는 강사를 수급하는 문제가 어렵고 강사를 모셨더라도 학교에 꼭 맞는 내용으로 연수를 열기 어려우므로 단위 학교별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연수에 대한 정보 및 체계적인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② 수업 탐구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수업 탐구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많이 있지만 정작 전문적 학습공동체끼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연구한 지식과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 수업 탐구 전문적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교과 전문성,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좋은 과제 및 평가 등 수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때로는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배움 중심 수업이 활성화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애라 북면초등학교 교사

김현정 마산동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홍기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장애라(북면초등학교 교사), 김현정(마산동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홍기표(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학령인구 감소, 작은학교 지원 정책, 작은학교 종합지원센터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적 효용성의 측면에서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면에서나 작은 학교의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며 보존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 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했고, 2022년 입학 인원이 한 명뿐인 초등학교도 전국 140곳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학교의 효용성만을 강조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고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얼마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각성과 위급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 어떤 교육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리적 통합을 넘어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의 방안은 없는지 등을 연구하여 경남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 작은학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검토해보고 어떤 정책을 확대 또는 축소 적용할 것인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할 것인지 등의 방향 도출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통계 자료 및 추계

자료를 분석했다. 국내외 정책 및 사례는 서적, 연구 자료, 논문, 기사, 보고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분석했다. 작은 학교 교사 및 작은학교 관련 정책(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통합학교, 온라인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경남교육청,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등을 인터뷰하여 현장의 요구와 실태를 파악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 향후 작은학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를 통계 자료 및 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4 연구 결과

①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방을 소멸하게 만들고,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경남의 시군별 학령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남해와 고성은 5년 안에 학령인구의 20% 정도가 줄고, 2023년 현재 학령인구가 5,000명이 되지 않는 하동, 함양, 합천, 산청, 의령 지역 역시 모두 10%를 훨씬 웃도는 학령인구가 감소된다. 특히 경남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의령은 5년 후 전체 학령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의 대도시도 향후 5년 동안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없고, 창원 역시 20,161명의 학령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체 학령인구의 13.55%가 줄어드는 수치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고 2023년 18만 명인 경상남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0년 후인 2033년 9만 명으로 줄어 반토막 나고 만다.

경남의 농어촌 지역은 현재 남아 있는 학교들이 각 면의 유일한 학교인 경우가 많아 통폐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등학교 작은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8개 시지역 모두 10% 이상의 학교가 작은학교이고 밀양시는 50%가 넘는다. 농어촌 10개 군지역은 모두 작은학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합천의 경우 무려 80%가 넘는다. 경남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작은학교 비율은 각각 19.4%, 6.56%인데, 초등학교의 상황이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소규모화로 이어지면 급격히 그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시, 군 가릴 것 없이 경남의 모든 학교가 작은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 확대 운영해야 한다.

② 국내외 소규모 학교 정책 및 우수사례의 시사점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은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교 자체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공동학구제', '소규모특인교제도(小規模特認校制度)'와 같은 공동학군을 설정하여 중·대규모학교로부터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통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통학 버스나 택시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학교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내에 구축하여 작은학교에서 이관 가능한 행정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등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있다.(제주, 경남 등)

지역사회 연계형 사례에서는 지역협동조합이나 자치회가 학교를 중심에 두고 운영될 때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호주의 경우 온라인수업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으며, 원격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있다.

호주의 학교 종류 다양화와 교원 배치 최소화, 학교 행정의 중앙 집중화 등을 통한 학교 운영비 절감은 극소규모학교의 재정 비효율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며, 부득이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통폐합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① 작은학교 종합지원센터 구축

작은학교 지원 정책 관련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며, 도내 군지역은 전체 학교가 작은학교로 축소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역교육청에 담당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지역교육청에 군 단위의 '작은학교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복합적인 사업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행정 지원 차원을 넘어 '작은학교 지원'을 최상위 정책으로 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이 작은학교 지원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면,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연계하며,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차원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②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각 학교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군 단위 지원팀을 '작은학교 종합지원센터' 내에 통합 운영한다. 특색 사업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수급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각 학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적용

㉮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학생수 부족으로 인해 시도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정책을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군별 공동교육과정, 인접한 학교를 연합하는 교육과정,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등 다양한 범위의 공동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중학교는 진학을 고려하여 학교를 통폐합 한 결과 초·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서로 인접해 있는 특징이 전 지역에서 드러나므로 통합학교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급 간 인적 교류나 교육과정 연계를 개선한 농어촌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 다양한 학교 형태와 교육 환경,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모델 개발 필요하다.

㉯ 온라인 학교 확대 적용과 교육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학교를 통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습자가 어디에 있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남 전체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 지역과 연계한 거점 학교 중심의 활성화 모델 적극 적용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 학교 중심의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를 소멸 위기 지역에 적극 적용하고 지역협동조합, 자치단체 등을 구성한다. 하나의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고, 인접한 학교들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역 문화 및 행사와의 연계, 주변 시설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정책연구)

경상남도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안착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지은 진영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진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이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경상남도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안착 방안

연구책임자	최지은(진영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진란(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이정은(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통합교육과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통합운영학교와 관련한 연구는 대다수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통합운영학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대도시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도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 김해와 양산에서 개교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2곳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양산과 진주에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개교를 준비 중이다. 두 학교 모두 신도시 개발지구 내 개교할 예정으로 대규모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이다. 진주의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개교가 결정되기 전부터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불만과 문제점에 대한 우려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심하여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는 앞서 운영된 농어촌형 통합운영학교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바로 학생 수가 초등과 중등을 합쳤을 경우 1,000여명을 넘거나 이에 가까운 수준의 대규모 학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농어촌형 통합운영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상남도의 대규모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개교할 경상남도의 도시형 통합운

영학교가 미래형 학교의 한 모습으로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경상남도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와 현장 안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 분석으로 기존 국내 및 국외 통합운영학교 관련 단행본, 논문, 지역 교육청의 연구 및 공문서, 현재 운영 중인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계획서 및 운영 성과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경상남도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2곳과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타시도 대구의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1곳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통합운영학교 현장의 고민과 갈등, 운영 실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의 면담 자료를 활용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근무 중인 교원의 대면 심층 면담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였다.

3 연구 내용

우리보다 먼저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한 해외 각 국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인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970년대 학교 체제의 획기적인 개혁 이후 지금의 9년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체제가 완성되어 핀란드의 모든 학생들은 종합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핀란드 종합학교는 오랫동안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은 학교와 교사들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통합 운영학교 통계를 살펴보면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전체 48개 학교에서 60개 학교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설립된 대규모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후 신설된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도시의 재개발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근 학교 분산 배치와 학생 통학이 어려워진 지역의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통합한 형태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로는 서울, 충북, 인천, 강원도 등에 운영 중이며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 관련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

울의 경우 2019년 3월, 대형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시형 H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개교하였다. 그러나 통합운영학교로서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학교의 신설 개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되었고 개교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기간도 채 2달이 되지 않은 신설의 초·중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보니 교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남도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위해서 지역별로 3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대상 학교인 김해 J초·중학교는 김해시 ○○읍에 위치한 학교로 2021년 3월 개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 대상 학교는 양산 G초·중학교로 2020년에 초등학교 13학급, 중학교 7학급 규모의 통합운영학교로 개교하였다. 2020년에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2023년 2월까지 운영하였다. 세 번째 연구 대상 학교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교한 P 초·중학교로 경남 지역의 통합운영학교와 비교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2021년 3월에 개교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겸임 요원 14명을 공모 발령하여 앞선 경남의 두 통합운영학교와 달리 사전에 개교 준비를 할 수 있어 교원들의 시설 설계 변경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되었다. 현재 초·중 동일하게 학사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발한 초·중 연계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위 세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를 토대로 현장 안착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설문 조사 결과로는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를 묻는 질문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의 통합 운영, 초·중학생 생활 지도의 통합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교 시설 및 학사일정, 시설의 공동 사용 항목에서 통합 운영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학교(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통합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학교(지역)별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통합 정도를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개교 준비 기간 동안 사전 발령 받은 교사들이 통합운영학교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통합운영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교한 학교에서 공동 시설의 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적었고 초·중 교육과정 연계, 교사 간의 상호 교류 등에서도 훨씬 더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초·중 통합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초·중 교육과정의 차이, 학교 공동 시설의 협소 및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21년에 대구, 김해에 개교한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2곳에 대한 교육정책연구소 면담자료와 2020년에 양산에 개교한 도시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관리자를 본 연구자가 심층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학교 현장을 파악하였다. 면담 내용은 주로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성을 바탕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애로 사항 및 통합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3개 학교의 심층 면담 자료를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도시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 및 학교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고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과 중등의 교육 수준 및 목표 등이 상이하여 통합교육과정 운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운영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넷째, 통합운영학교의 활동 공간 협소 및 통합운영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한 시설의 문제점이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사들의 경우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이 취약하여 만족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낮았다.

5 정책 제언

①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원 간에 소속감 증대 및 친목 도모, 상호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및 학교 급간을 아우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통합운영학교 교원 간에 친밀도와 상호 교류가 높을수록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②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 및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

초·중 통합운영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및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하다. 타시도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사례와 같이 초·중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모델을 제시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형 학교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③ 다양한 교사 유인책으로 내신(혹은 승진)가산점 부여와 통합운영학교로

의 내신 전보시 사전 발령이나 사전 안내, 교원의 추가 배치, 협의회 구성

일반 학교에 비해 업무 강도가 큰 통합운영학교 근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통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④ 초·중 통합운영학교 공동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유휴공간 및 충분한 학교 공동 시설(체육 시설)을 확보

학교 공동 시설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공동 시설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미래형 학교 공간의 지속적 활용방안 사례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은주 웅남중학교 교사

조현희 남정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미래형 학교 공간의 지속적 활용방안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정은주(웅남중학교 교사), 조현희(남정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동욱(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장학사)
주제어	미래형 학교공간,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혁신적 학교공간이 어떤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혁신적 학교공간을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 조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활용 방안을 탐색해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을 활용한 교과 수업 설계 및 구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교과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의 지속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자료를 통해 이론적 배경 및 방향성을 숙지하였다. 다양한 학교공간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의 장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지원 업무를 통해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수·학습 공간 및 수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본 연구에 참고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미래형 학교공간을 활용한 교과별 수업 사례를 조사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혁신된 학교 공간이 다양한 수업 활동을 구현해내는데 있어 가지는 장점과 지속적 활용을 위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혁신된 미래형 학교공간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학교급별, 교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활동과 필요한 공간의 모습, 스마트교실 구축의 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는 창체, 국어, 미술, 중학교는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는 국어, 과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활용 사례 및 지속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어과에서는 독서 활동과 연계한 통합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수학과는 소집단 협력 학습, 모둠 활동, 실험·실습, 스마트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 수업, 사회과는 스마트교실을 활용하여 토의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수업, 과학과는 발표공간, 프로젝트실,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실로 구성된 과학중점 융합수업 특화 공간에서 정보검색 및 프로젝트 활동, 산출물 제작,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 일반 교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리터러시 능력 향상 미술 수업 사례도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미래학교의 학습공간은 교과별 학습공간에 대한 공통분모가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 교과의 학습공간은 공통적으로 협의 및 의사소통 공간, 정보탐색 및 자료 제작 공간, 공연 및 발표 공간을 필요로 한다. 미래학교 공간혁신은 무엇보다 교실을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획기적인 공간을 많이 구현한다 해도 결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은 교실이다. 교실 공간의 혁신이야말로 실제적인 교육혁신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미래학교 공간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실제적인 수업 시나리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기획 및 공간기획의 과정에서 학년별, 교과별 교사들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단계가 필요하다.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해 정

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자체의 공간 연수,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각종 수업시연, 관련 도서 탐독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5 정책 제언

① 혁신적 공간 활용 수업 설계 연구 확대

미래형 학교 공간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공간을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정책 변화와 블록 타임 시간표 운영, 교육과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공간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토론 공간에서 제작도 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공공 빅데이터를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유연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신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능력 향상 등의 전문성 계발로 혁신된 공간과 스마트교실을 활용한 수업 설계 연구를 확대 한다면 혁신된 공간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② 혁신적 공간 활용 수업 사례 홍보 및 방식 개선

앞으로는 구축된 혁신적 공간을 어떻게 교수·학습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 활용 교과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및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학교급별 수업 사례, 교육과정 혁신과 연계된 공간 활용 교과수업 사례 발굴 및 홍보, 교사 연수 지원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학교별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공간 활용 교과 수업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적 공간활용 교과 수업 우수 사례' 공모대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수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활용 지원 사이트 등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③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유지 보수 시스템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지속적 관리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간을 조성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나 이후 유지·보수에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사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공간 조성이 이루어 진다면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④ 혁신적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위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기존의 강의 중심 설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이 가능한 수업을 위해서는 공간 혁신이라는 환경적 조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혁신적 공간이 있더라도 새로운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려면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가 전제 되어야 한다. 학생 관리와 학습 활동 피드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 소인수 학급의 장점이 크다는 것을 수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최신 스마트환경이 갖추어진 수업에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자기 주도 표현 활동들이 가능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업을 실생활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수업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여러 공간을 활용해도 학생 관리의 어려움이 적다는 환경적 맥락도 작용했다는 것을 통해 공간의 유형 및 활용이 학생 수와 관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 연구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주 상일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현희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 연구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영주(상일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김현희(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경계선 지능 아동, 기초학력, 협력 수업, 협력체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이 학교 안팎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수업 내 지원과 예방 차원의 노력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교실 수업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중요하며,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낙오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보정 및 지도를 통해 빠른 시기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 지원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업 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를 하였다.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체제를 구안하였다.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후 초등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 4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협력 수업을 진행하여 읽기 유창성과 기초 수리력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 내용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의 특성을 조사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전략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선도(시범)학교의 협력 수업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 효과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선도 및 시범학교의 협력 수업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수업 모형으로 수정·보완하여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 체제를 구안하였다.

초등1, 2학년 국어 교과서 내 읽기 유창성 및 역할극 학습 단원을 발췌하고, 역할극이 가능한 경계 존중 그림책을 선정하여 읽기회복프로그램 절차를 접목한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초등1, 2학년 연산 영역 학습에 필요한 문해 지도 내용을 분석하고, 입말 바탕의 자기주도적 연산전략 학습 과정을 개발하여 기초 수리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창원시 소재의 두 개 학교의 경계선 지능 아동 4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첫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개별 맞춤형 수업은 초등 저학년 국어과와 수학과 전 차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9 회기의 협력 수업을 진행한 후 읽기 유창성과 기초 수리력 검사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기 후반으로 갈수록 4명 중 3명의 학생이 학습 전략 구상과 수업 참여 태도 등의 학습 양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개별 맞춤형 수업이 연간 지속되었을 때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개별 지도와 집중 지원만으로 초기 문해력 교육을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그림책 역할극을 통한 읽기 유창성 키우기' 프로그램은 읽고 쓰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수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집중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낱말 익히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초학력 전담강사가 초기 문해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신경학적 요인으로 인한 한글미해득 학생을 지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회기 초반에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던 학생이 읽고 쓰는 활동에서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학생은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에서 일반군으로 선별되었으나 한글미해득으로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다. 이런 경우 한글미해득 심각 수준으로 난독증도 의심되므로 전문적인 별도의 초기 문해력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 수업을 진행할수록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 지능 아동 외에도 학습 부진 심각 수준의 학생들 뒤에 가려진 느린학습자가 많았다. 협력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초학력 전담강사는 경계선 지능 아동뿐 아니라 학급 학생들을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시 개별 지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초학력 전담강사는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친구의 것을 베껴서 답만 쓰는 학생, 놀이 방법을 몰라 교실 가장자리를 맴도는 학생 등 담임교사의 눈에 띄지 않지만 개별 지도와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었다.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면밀한 관찰을 통해 발굴되지 않았다면 차후 기초학력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넷째,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의 협의 시간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협의는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주별 근무 시간 중 1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의 삼자 대면 협의는 한 번도 하지 못하였다. 기초학력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계선 지능 아동과 같은 느린학습자의 학습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교실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과정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공유되어야 한다.

다섯째,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는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 관찰을 통해 학습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 개별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협력 수업 모형으로 구안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강사 대상 연수도 담임교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책무이고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의 중심 역할이기 때문이다.

5 정책 제언

① 경계선 지능 아동의 수업 내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 협력 수업 모형 개발

본 연구는 기존의 협력교사제 협력 수업 모형 중 교수-관찰 유형과 교수-지원 유형에 제한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에 적합한 경남형 협력 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② 초기 문해력 전문 교사 양성 및 풀아웃 방식의 개별화 수업 활성화

발생적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한글미해득 수준이거나 난독증 경향을 보이는 학생은 풀아웃 방식의 개별화 수업을 한다. 초기 문해력 교육이 가능한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 초기 문해력 전문 교사는 학교에서 문해력 관련 협력 수업과 풀아웃 방식의 개별화 수업을 맡는다.

③ 담임교사의 기초학력 지원대상자 선별 및 진단 권한 강화

담임교사에게 학부모 동의 없이도 기초학력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초학력 지원대상자 선별은 1학기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진행한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적 진단을 위한 기관 연계를 통해 실시한다.

④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의 대면 협의 시간 지정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강사의 협의 시간을 주 1회 이상 필수 지정한다.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강사-학습코칭강사의 삼자 대면 협의 시간을 월 1회 이상 지정한다.

⑤ 교사의 경계선 지능 아동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개발 체제 구축 연구 필요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 교사 양성 과정은 반드시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 방식이어야 한다. 양성된 전문 교사는 기초학력 전담강사 연수와 소속 학교에서 수업 내 지원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며 학교 내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실행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1학년 담임 연임제 및 우선권을 부여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대안학교 집중 지원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민우 합천평화고등학교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최재규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대안학교 집중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이민우(합천평화고등학교)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최재규(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대안교육, 대안교육 지원센터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다양성이 강조되고 공존이 요구되는 미래교육의 당위적 상황 속에서 대안교육의 가치와 그 방향성에 대해 개별 단위 학교에서 오롯이 감내해 내기 어려운 영역의 역할을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안교육의 실효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편·확산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귀결점은 대안교육의 가치라 할 수 있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과연 적합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경남의 대안교육 역사에 있어 그 발자취와 성취를 성찰한 바탕 위에 교육의 3주체가 효능감을 체감하는 대안교육 지원센터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2 연구 방법

대안교육과 대안교육 지원센터 관련 논문, 정책연구, 단행본들을 통해 1997년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대안교육 기관과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대안학교 구성원의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해 이를 유형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시도에 운영 중인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모델을 찾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향후 기관방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설문지설계와 대상과 방식 연구)을 제작, 경남의 제도권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경남 대안교육 지원센터와 관련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해 우선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남 대안교육 연합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고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의 중간단계로서의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인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전환점에 서 있는 경남 대안학교 구성원의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이해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기존 지원체계를 점검 분석하여 여러형태의 대안학교가 존재하는 경남의 상황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대안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된 경남 대안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실효적이고 상호협력적 지원센터 모델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4 연구 결과

①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현장의 요구 분석

본연구를 진행하며 경남의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 대안학교(각종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안교육 활성화와 실효적 지원이 전제된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각 구성원 모두 절반을 넘는 비율로 필요와 매우 필요에 응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에 따른 결과 중 대안학교 교사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우선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의 필요성에 가장 많은 교사가 응답했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와 배치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안학교 진학의 이유와 대안

학교 생활의 만족도 결과는 자율성과 민주성이 기반이 된 영역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같은 연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설립 형태와 성격유형이 존재하는 경남 대안교육의 상황에서 공통의 과제와 개별화된 과제를 조율하고 유연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경남의 대안학교 구성원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② 국내 대안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례 분석

국내 대안교육 지원센터는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탁을 통해 대안교육 기초자료 축적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교와 대안학교 모두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포괄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로 그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 생활과 등의 부서 산하에 대안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내에 내부형 센터를 두거나 외청 형태의 외부형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형태와 다르게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지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경우 대부분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난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복지제공 등의 지원 활동이 주 업무이며 궁극적으로 제도권 학교 공간으로의 복귀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양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한 유형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 관련 업무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독립적인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형태, 부서 내 대안교육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형태, 대안교육과 그 외 업무를 함께 맡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권 대안학교의 총량보다는 대안교육 업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에 따라 지원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비교적 많은 인력과 독립적인 시설을 통해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4개 지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형태로 대안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에 비해 제도권 대안학교의 총량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더 많은 수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관리 지원하고 학교 내 대안

교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등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유기적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단계별로 어떤 형태가 더 목적성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보고 학업 중단 예방과 다양성 교육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안교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남 대안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통한 모델 제시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많은 수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경남의 상황에서 대안학교 교사 혹은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좀 더 거시적인 담론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경남 대안교육 연합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경남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중간단계로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과 AI의 도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한 인간의 사람됨과 공동체의 올바른 성장과 역할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연구, 실험적 교육과정과 교육 본질을 탐구한다는 취지로 국내외 실험적 대안교육 과정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경남의 대안학교에서 우선 운영해 그 결과를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일반화 보편화시켜 다양성과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성 교육지원센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정책 제언

① 경상남도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 방안

기존의 대안학교 협의회(13개교)와 경남대안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안 담당과 대안교육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시작으로 학생의 다양성과 미래 역량 개발이 설립의 목적이자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는 대안교육 지원센터는 학교 내 대안교실(학업 중단 위기 학생), 대안학교(제도권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위탁기관 등)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센터구축 전 영역의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②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 지원센터 운영방안

제도권 대안학교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과 역량을 활용해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해 기존 관리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업 중단 예방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제언

본연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결과를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공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속적인 협업으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의 마중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개별단위에서만 진행해 온 교육활동들이 학교 급별(중, 고)로 심화 연계된 대안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과 특별함을 키워내는 것은 물론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는 작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한 지원체계의 변화가 아닌 그간 대안학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성찰적 접근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전환기에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동영 도계초등학교 교사

서영욱 구암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안혜진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신동영(도계초등학교 교사), 서영욱(구암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안혜진(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장학사)
주제어	온라인, 독서콘텐츠, 독서교육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고, 교사와 학생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이전의 학교가 '대면'을 전제로 했다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 낯설지 않다. 교사는 비대면 수업에 맞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에듀테크 플랫폼에서 교육용 계정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자료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과 중심의 자료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되는 데 비해,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의 연구와 개발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에 대한 인식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 독서교육도 이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교육 인프라, 디지털기기와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미래역량을 키우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중학교 2, 3학년 학생 중 자율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를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탐구 및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탐구, 온·오프라인 독서교육 관련 연수 및 관련 독서, 선행 연구 탐색을 통해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 방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배려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김시윤 글, 뜬금 그림, 크레용출판사) 도서를 선정하여 '건강한 친구 관계 만들기'를 주제로 주제 중심 교과 통합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적용 방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글, 홍승수 역, 사이언스북스) 도서를 선정하여 '깊이 읽는 독서 습관 형성하기'를 주제로 중학교 국어, 과학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나오미 배런(2023)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 능력의 보존과 함양이 읽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읽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 없이 기기만 보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나오미 배런이 제시한 읽기의 유형 중 깊이 읽기(분석적으로 읽기)를 하기 위해 학생들과 디지털 읽기 전략을 세워 온라인 독서콘텐츠인 전자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였으나 교사와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콘텐츠인 전자책 서비스 보급이 본 연구 기간과 맞지 않아 전자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독서동아리를 개설하여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독서 수업 및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단말기, 아이톡톡, 전자책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독서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디지털 기반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으며 디지털기기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었다.

둘째, 아이톡톡을 활용한 온라인 독서동아리는 수업 시간 중에 모든 학생이 동시에 독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실시간 학생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평소에는 톡톡 클래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을 공유하고 수업과 관련된 질문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셋째, 전자책을 활용하여 동시에 같은 책을 수업 시간 중에 읽을 수 있어 수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전자책이 없을 때는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동시에 같은 책을 보고 읽으며 활동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활용할 학년 및 학급 전체 도서를 복본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5 정책 제언

① 경남지역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어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과 나이의 학생에게 연구 주제 및 내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② 온라인 독서콘텐츠 중 전자책을 활용하였지만, 활용 시기가 짧았고 전자책 외의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다양한 온라인 독서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③ 교육과정 재구성 관점 중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독

서교육 활성화 방안만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연구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④ 아이톡톡에서 제공되는 독서 콘텐츠와 교육부 e-북드림 사업인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질과 양이 부족하다. 아이톡톡을 활용한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개인 독서 이력이 이관되어 독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전자책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효혜 신주중학교 교사

황세경 의창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신광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효혜(신주중학교 교사), 황세경(의창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신광수(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과 AI의 영향으로 미디어의 영향력과 정보의 방대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이해, 창의적인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현장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문헌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 중요성,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경남 도내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약 1,5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운영의 어려움,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점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은 5개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교육 방법 등을 관찰하였다. 심층 면담은 4명의 교사와 실시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운영 경험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 내용

①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미디어 이용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② 설문조사 및 미디어 리터러시 중점학교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 경상남도 내 초·중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활성화를 위한 수업 사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업 사례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속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요소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구 결과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는 미디어 교육과 달리 미디어의 본질을 알고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학습자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경상남도 내 초·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 답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 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도움 자료 제작 및 보급이 응답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남도 내 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도움 자료 제작 및 보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앞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중심으로 2023. 사례 중심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도움자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TF 활동을 통하여 초·중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경상남도 내 초·중학교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경상남도 내 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정책 제언

① 교육과정과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참고할 만한 수업 사례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협력하여 컨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및 지원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수의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과 이론, 교육 방법 및 평가, 교육 자원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연수는 교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연수 확대 실시를 통해 교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제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남의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미디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환경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찬희 반송중학교 교사

최상범 주촌초등학교 교사

책임연구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오정훈 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환경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책임자	윤찬희(반송중학교 교사), 최상범(주촌초등학교 교사)
책임연구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오정훈(경상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주제어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과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환경위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경남교육은 4대 전환과제의 하나로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을 선정하였고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안내가 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생태전환교육 실현을 위한 초중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천중심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과제 1, 2, 3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실현을 위한 환경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기 개발된 환경교육 교재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초·중등 환경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연구문제 3. 환경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보완한다.

2 연구 방법

첫째, 경상남도교육청 및 타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교육과정 연계 자료 및 우수 프로그램을 추출하였다.

둘째, 생태전환교육 교과별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추출하였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주제통합 수업 모델을 마련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ECO 꿈나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교실 속 교육과정에 적용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넷째, 추후 수정 및 일반화 과정을 거쳐 실천중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교재로 확산할 예정이다.

3 연구 내용

ECO 꿈.나.무. 프로젝트는 학교 생태계(ECO-system) 안에서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재구성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꿈.틀꿈틀 하천 탐험으로 생명의 존엄성 느껴보기, 둘째, 나.풀나풀 학교숲 생물종 다양성 조사활동 해보기, 셋째, 무.럭무럭 학교 텃밭 운영으로 생명의 신비 알아보기로 구성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활동의 머릿 글자를 따서 ECO 꿈.나.무.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위한 「ECO 꿈.나.무.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앞 하천을 활용한 생태전환 교육과정 - 꿈.틀꿈틀 하천 탐험

학교 앞 하천의 조류 관찰 및 기후변화 위기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하천 탐사 활동이 용이한 7월에는 '○○천 생태 조사 주간'을 운영해 본다.

활동 내용		시기
▪ 기후변화와 ○○천의 철새	- 철새가 일년 내내 보여요	연중
▪ 자연물 생태공예 활동	- 마을에서 채집한 자연물 공예	5월
▪ ○○천에는 어떤 생물이?	- ○○천 안의 식물과 동물	7월
▪ 우리 마을 플로깅	- ○○천 주변 청소 봉사	4, 11월

나. 학교숲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 나.풀나풀 학교숲

학교숲과 학교 인근의 산의 생물종 다양성 조사 활동 및 나무지도 그리기 활동을 진행해 본다. 특히 학교숲은 학교숲 교육 전문가와 연계하여 협력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활동 내용		시기
▪ 학교숲 나무 표찰 만들기	- 나무야 사랑해 표찰 만들기	4월
▪ 학교 뒷산에는 어떤 나무가?	- 학교 뒷산 조사 활동하기	4월
▪ 학교숲 나무 지도 만들기	- 조사한 나무 위치 기록하기	6월
▪ 학교숲 동물 알아보기	- 학교숲 생물종 다양성 알아보기	10월
▪ 학교숲 놀이 하기	- 큰 나무를 이용한 놀이	5, 11월
▪ 학교숲 그림 그리기	- 아름다운 우리 학교숲 자랑하기	10월

다. 학교 텃밭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 무.럭무럭 학교 텃밭

학교 텃밭을 활용하여 1년 동안 농사 활동을 해보고 이를 통해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는 수업을 진행해 본다.

활동 내용		시기
▪ 텃밭 조성 활동	- 고랑과 이랑 만들기, 거름하기	3월
▪ 작물 파종하기	- 봄, 가을 작물 씨앗, 모종 심기	4, 9월
▪ 작물 가꾸고 수확하기	- 김매기, 곁순따기	연중
▪ 매실 액기스 만들기	- 매실 수확 및 유기농 엑기스 담기	6월
▪ 텃밭 정리 활동	- 학기말 텃밭 정리 활동	12월

4 연구 결과

생태전환교육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과정 「ECO 꿈.나.무.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분석하고, 학교가 속한 마을교육공동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전환교육이 학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특히 하천, 숲, 텃밭을 대주제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시기별 운영 내용을 제안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구성 교육과정 속에서 하천과 학교숲, 학교텃밭을 활용하여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삶과 앎이 하나가 되는 배움을 실천하고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다.

5 정책 제언

① 학교 안 환경교육과정 운영 및 실천

경남교육은 4대 전환과제의 하나로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을 선정하였고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환경수업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2023년 부터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지침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주간에 1회성 행사 위주의 개별화 된 환경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운영 연수 및 우수 사례 나눔을 운영하도록 한다.

②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실천을 위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교에서 배운 환경 지식과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그린 멘토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동료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플다이어트와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정 속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있는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의 활동 중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따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서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원특별연수 현장지원형 운영에 대한 정책 제언

교원특별연수 현장지원형은 정책연구형과는 별개로 교육청 내 현장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안의 시급한 업무 속에서 지원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는 전체 연수가 많은 빈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장 지원이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 지원이 시급할 때는 전체 연수 대신 현장지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정하 마산구암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정하(마산구암고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인권교육, 교육과정재구성, 영어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실수업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 내용 분석으로 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을 재구성한다.

둘째,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2 연구 방법

교실수업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인권교육을 심화할 수 있는 1차 자료 및 2차 자료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내용 재구성으로 작성된 배움 실천 중심 학습과정안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인권센터 주관 직무연수에 참가한 인권교육실천 교사단의 검토를 거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의 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 분석

각 출판사별 읽기영역에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학습 소재, 인권교육 내용영역 및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 수업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한 배움 실천 중심 학습과정안 작성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의 읽기 영역 성취기준과 중·고등학교 사회, 역사, 도덕 교과의 성취기준에 인권 반영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인권교육을 위한 성취기준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인류 공동의 목표 17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고려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권교육 학습과정안을 구성하였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편성 내용 분석

창원시 일반계 고등학교 세 곳(남고, 여고, 남녀공학고)의 2023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서를 살펴보고,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실천 여부를 점검해 보았다. 창체활동 중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은 제외하고, 범교과 학습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활동 중심으로 각 학교별 실천 내용을 살펴보았다.

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인권교육 탐색

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은 곧 성인이 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융합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인권교육을 자율활동 중 창의주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 재구성으로 교실수업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인권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을 편성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3. 경남교육인권경영센터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 경남 인권교육 강사단과의 간담회, 학교 업무 담당자와의 컨설팅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의 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속에 인권교육 요소를 파악하였다. 각 출판사별 읽기영역에서 교육과정 학습 소재, 인권교육 내용영역 및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 수업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영어 교과서 읽기 영역의 학습 소재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한 배움실천 중심 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영어를 매개로 인권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기가 어렵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평가준거 및 평가기준의 출발점이 되므로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기준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편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세 곳의 창체활동 하위 범주 자율활동 영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학교 자율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자율활동은 여전히 전학년 방송 시청 및 전달식 교육 형태를 띄고 있었다. 월별 편성 시간을 살펴본 결과 학생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학습 일정을 고려하여 편성하지 않았다. 창원시 세 학교만 분석하여 일반화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율활동에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없었다.

넷째,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인권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은 곧 성인이 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면서 인권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를 학급 중심 자율활동 내용으로 정리해보았다.

5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배움(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재구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인권 관련 연수와 함께, 교사 스스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경험하면서 인권을 일상적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 관련 교과를 통해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인권이 학교교육 전반에서 유의미하게 교육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학교현장 교육인권영향 평가 점검

경남교육인권경영센터에서 제시한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관리자의 인권경영, 학생인권, 교직원 인권 평가에 대한 환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육인권영향평가 지수를 발표하는 결과 중심적인 활동으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현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영향평가의 정성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인권교육

학교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인권교육 시간을 필수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학년 방송 시청 및 전달식 교육 형태를 띄더라도 교육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는 학습 주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창체활동 하위 범주 자율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2시간용 학습 자료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현장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③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인권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기가 어렵다.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교육과정을 강조하면서, 학년 단위 교사 단위의 자율교육과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교과 수업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재구성 역량과 함께 성취기준 재구조화 실습을 체계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미라 제황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책임자	조미라(제황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정연홍(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수정(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장학사)

주제어 인권, 그림책, 학교교육과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교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는 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가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가르친다. 어린이들은 자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만난다. 그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 세상과 달리 여전히 가난과 불평등, 불공정함이 자리 잡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라는 인권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이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에 따르면 보편적인 인권은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나 공장, 집에서 인권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루즈벨트의 말처럼 작은 곳인 학교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인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모든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어린이들은 교실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에서 실제로 인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 사회 교과에서 인권 영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인권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 목록을 구성하고 그림책에서 인권 영역을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권 교육 콘텐츠를 실천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초등 도덕, 사회 교과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 사회 교과 내 인권 영역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인권 영역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 선정 후 콘텐츠를 개발한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책 중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살펴보고 교육 콘텐츠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정한다. 선정한 그림책을 바탕으로 학생 기본 15가지 권리 항목 중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실제 적용하고 평가한다.

4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리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에서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 정한 27개 조항과 학생 기본 권리 15가지를 검토하였다.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우선으로 초등 교육과정 내에서 인권 영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초등 교과 중 도덕, 사회 교과에서 인권 영역 현황을 단원 및 성취기준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인권을 교과로 지정하여 가르치지 않는다. 이에 도덕, 사회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인권 관련 영역을 그

림책 주제와 연결하였다. 그림책과 인권 관련 영역 중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주제를 가진 그림책을 가지고 인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수업에 적용해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책 장면을 보고 "함께 줄넘기를 넘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자신이 생각한 답을 쓰고 다른 학생이 쓴 답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학급 공동체 전원이 커다란 원을 만들도록 하였다. 원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공동체 구성원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게 하고 그 생각 중 공통점을 찾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우리 반에서 생각한 답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무엇인지 물으니 "함께", "협력", "마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은 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편견을 주제로 구성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편견 찾기 활동에서 한 학생은 여자 화장실 픽토그램에서 여자만 치마를 입을 수 있고 모든 여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아닌데 치마를 입고 있다는 성 고정관념을 찾았다. 교실에서 비선호 행동을 자주 일삼는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친구들이 나는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일본인이라고 말했다."라는 자기 경험을 풀어놓았다. 이에 편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1가지 모습만 생각하지 않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직접 보고 듣고 놀아야 한다고 하였다. 2차시로 구성된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피부로 느껴졌다.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 콘텐츠를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적용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인권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의 주제와 인권 관련 영역과 적합한 활동을 제시하여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편견'과 관련된 주제로 개발된『집 안에 무슨 일이?』인권 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급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는 등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정책 제언

① 다양한 형태의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 콘텐츠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보급되어야 한다. 각 학교와 각 학급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인권 감수성이 각기

다르므로 학급과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인권 교육 콘텐츠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제공

그림책을 활용하여 개발한 인권 교육 콘텐츠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학교, 학급에 따라 다양한 사정과 상황이 존재한다.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급에 인권 교육 콘텐츠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학교와 학급 사정에 맞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면 개발한 인권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교사 연수를 통해 인권 교육 콘텐츠를 소개할 수도 있고 PDF나 PPT 형태로 배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접근 방법 제공으로 개발된 인권 교육 콘텐츠를 활요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③ 학교 현장과 교육청, 교육부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교육부가 인권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현장에서 운영되는 인권 교육은 따로 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진행된다.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좀 더 명확하게 운영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인권 교육을 따로 시간 내어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 교육부의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교육 놀배움 활성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하언주 평거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홍기표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교육 놀배움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하언주(평거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홍기표(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주제어	토박이말, 스마트기기, 놀배움, 카훗, 클래스카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토박이말 교수·학습자료는 토박이말 빛깔입히기(4권), 토박이말 딱지, 말판놀이 등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거나, 매년 경남교육청에서 토박이말 교육 관련 연구, 보급하고 있는 토박이말 관련 자료집 등이 있다. 여기에 토박이말 이끎학교, 울력학급, 학생동아리 등으로 선정되어 부채, 가방, 거울, 컵 등을 토박이말을 넣어 꾸미거나 학습지를 활용한 토박이말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 매년 이끎학교, 울력학급, 학생동아리를 선정하고 토박이말 교육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토박이말 교육자료를 나누고 함께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 교사의 노력과 수고로 토박이말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프린트를 해서 활용해야 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예산지원이 없다면 토박이말을 넣은 다양한 만들기 활동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토박이말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토박이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운영되었던 이끎학교, 울력학급, 학생동아리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경남의 토박이말 교육 방법 및 자료 등을 개발함으로써 토박이말 교육 일반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및 토박이말 중심 교육청인 진주, 창원, 양산의 토박이말 교사연수에 참여한 교사 6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찾아가는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을 통한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카훗'과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 후 49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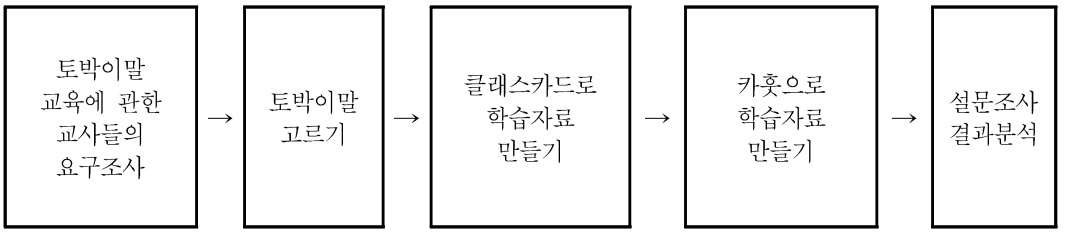
3 연구 내용

가. 문헌 분석

토박이말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목적 등을 조사하고, 토박이말 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토박이말(고유어) 관련 성취기준 및 활동 등을 분석하고, 토박이말 교육 활동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토박이말 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한다.

나. 카훗과 클래스카드 등 토박이말 놀배움 방법 연구

2023년 토박이말 교육 중심 교육청인 창원, 진주, 양산의 교사연수를 통해 토박이말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토박이말을 고른 후 토박이말을 익힐 수 있는 놀배움으로 클래스카드와 카훗의 학습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진주교육지원청 26개 학급과 창원교육지원청 내 초등학교 7개 학급에서 '클래스카드와 카훗을 활용한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을 실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놀배움 자료의 효과와 보완할 점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토박이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토박이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토박이말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토박이말을 가르칠 때 수업자료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학생들은 클래스카드와 카훗으로 토박이말을 익히니 재미가 있고, 토박이말을 잘 익힐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순위로 인해 토박이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클래스카드와 카훗으로 토박이말 교육을 할 때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토박이말 놀배움에서 학생들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토박이말 관련 앱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만, 기존에 개발된 클래스카드나 카훗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토박이말을 재밌게 반복적으로 익힌다면 토박이말 어휘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정책 제언

① 토박이말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토박이말’이라고 하면 어렵고 낯선 옛말이라는 인식이 많아 토박이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고, 토박이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토박이말 교육을 통한 바른 우리말 이해와 언어적 민감성을 높이며, 이해하기 쉬운 순우리말로 교과서나 일상생활 속의 어려운 한자나 영어 등을 다듬는 노력도 꾸준히 필요하다.

② ‘찾아가는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 등을 통한 현장 지원 필요

토박이말 교육의 현장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을 통해 토박이말에 대해 알리고, 기존 개발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훗, 클래스카드 등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놀배움을 알려나간다. 토박이말 교육 이끎학교, 울력학급, 학생동아리 뿐만 아니라 토박이말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

박이말 진주 갈침이 밴드' 등을 통해 다양한 토박이말 놀배움 수업 자료를 모으고, 나누며 기존 개발된 토박이말 수업 자료 공유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③ 토박이말 교육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진주, 창원, 양산, 거제 등 토박이말교육 중심 교육청으로 지정된 교육청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토박이말 교육 연수를 실시해야한다. 이를 통해 토박이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토박이말 교육 이끎학교, 울력학급, 학생동아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④ '클래스카드'와 '카홋' 등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안내 필요

'클래스카드'와 '카홋' 등은 토박이말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시간에 활용이 가능하기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보급한 아이북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게 이뤄질 수 있는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의 한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명희 구봉초등학교 교사

박해영 팔룡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이지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강명희(구봉초등학교 교사), 박해영(팔룡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이지영(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마을 연계 교육과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필요,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 필요,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증대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미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마을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돌봄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역할이, 학교는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됐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의 상호 연대의 시간과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 참여 방식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졌다.

또한, 행복교육지구는 프로그램을 넘어 학교 문화 시스템의 변화 지원과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의 교육과정을 본질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다양한 고민 끝에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인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지만, 마을이 수업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마을의 수업 자료를 내 수업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에도 마을에 관한(마을과 지역 자체에 대해 배우는), 마을을 통한(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배우는) 교육을 통해 자랑스러운 지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을 위한(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의 터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배움의 결과가 그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한 노력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통하여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교육과정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경남 마을교육과정 이해자료, 지역 특성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후 우수사례 학교의 실제 수업 및 나눔 보고회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교사와 마을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경남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 내용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경남 지역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남의 7개교(초등: (양산) 화제초, (창원) 창원한들초, (김해) 장유초, (김해) 구봉초, (고성) 대흥초, 중등: (김해) 봉명중, (창원) 구암중)의 실제 수업 및 나눔 보고회에 참여하여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들의 교사와 마을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와 운영에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며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4 연구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 편성·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 단순히 시간의 확보만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이 자기 삶의 터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배움의 결과가 그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남 지역의 사례와 수업을 관찰하고, 참가 주체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지속하기 위한 요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교류와 소통이다. 교류와 소통에 앞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면도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성된 곳도 있었고,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이는 학교와 마을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했다. 그리고 교사와 마을 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줄일 방법이었다.

처음 마을을 알기 위해 했던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활동들이 경험과 평가가 쌓이면서 마을에서 의미 있는 확장성을 가져왔다.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 공부하며 지역의 여러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이를 또 지역에 나누면서 학생들도 마을 교사들도 지역의 주체로서 서는 경험을 하게 했다. 주체로 활동하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5 정책 제언

① 지자체의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학교와의 만남 자리 마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마을 활동가[1]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1) 한국직업사전의 정의: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운영한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활동가의 역량이 커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활동에 대한 역량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배움의 결과를 지역민과 나누고,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말하는 지금의 지역 이야기와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생생하게 느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과 배움의 결과를 지역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은 학생들의 배움에 적합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적인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할 것이다.

② 교육지원청의 교사 연수 시행 및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여건 조성

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장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 연수에서 마을의 자원을 안내하고, 다양한 형태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접해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하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과 마을의 여러 자원을 연결할 방법을 나누고, 또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삶과 밀착된 마을 연계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교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 계획· 실천 역량 강화

학교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를 넘어 이웃 학교, 지역교육공동체와 만나고, 교육과정의 마을 자원을 목록화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교육공동체의 경험들이 만나면 시작의 어려움도, 운영의 미숙함도 줄어들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 활용 수업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송주희 제황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박훈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행복마을학교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 활용 수업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송주희(제황초등학교 교사)
자문위원	위미나(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박훈영(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주제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연계 교육과정,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멜레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경남미래교육 추진전략은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구축한 것, 즉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단체, 지역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복마을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군 단위 소규모 학교가 겪는 열악한 교육과 돌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전국 최초로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카(Car)멜레온'은 수업 공간과 작업장, 영화관, 공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체험식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2년간 '카(Car)멜레온'을 통해 경남 각지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소기의 성과는 이루었으나 학생들의 앎과 삶을 일체화하여 상생하는 배움을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취지와 동떨어진 단발성 체험활동 중심 운영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작업장 차량 '카(Car)멜레온' 활용 수업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지향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경남교육청과 타 지역의 마을교육과정 자료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카멜레온 운영 담당자 및 마을강사 면담 및 학생 설문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경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참여관찰자로 현장에서 카멜레온 활용 마을강사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마을 연계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경남교육, 2019)

이동식 작업장 학교 '카(Car)멜레온'을 활용한 체험 활동은 윤기숙, 배근해(2020)가 제안한 행복마을학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중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각화' 라는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취지에 부응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다수의 사람과의 모임과 접촉이 제한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가치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카(Car)멜레온의 지원 대상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체험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다. 2022년 도내 초중학교 44개교 1,761명 학생, 2023년 1학기에 도내 30개교 1,940명 학생, 2학기에 도내 6개교 29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원하였다.

그중 2023년 상반기 카멜레온 활용 수업 메이커, 목공, 새활용, 사진, 코딩 등 5개 강좌를 1회 이상 관찰·분석하고 사후 협의회를 실시하여 수업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카멜레온 운영 담당자 및 마을강사 면담 및 학생 만족도 조사 설문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현장에서 참여관찰자로서 5개의 수업을 관찰하여 분석하고, 담당교사와 마을강사 면담과 참여 학교 학생과 교사 설문을 통해 살펴본 카메레온 활용 수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시민 양성의 기회 확대

카멜레온 활용 강사협력 수업은 탄소중립과 새활용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코딩·메이커 활동 기후 위기 알림 티셔츠 만들기, 목공으로 생활 소품 만들기, 자투리 자원의 새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생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각 학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생태환경교육 요소와 연결하여 국어 글쓰기, 도덕 이웃과 함께 하는 삶, 사회 시민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장비와 도구 활용 체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

카멜레온 활용 마을강사 협력 수업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장비와 도구를 수업에 활용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노작 활동과 체험적 배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노트북을 활용하여 실루엣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디자인하여 레이저(종이) 커팅기로 출력한 후 카멜레온 차량에 탑재된 열프레스기로 티셔츠에 입히는 메이커 수업, 전기 회로도에 따라 코딩하여 전구에 불을 켜 보고 3D펜으로 평면을 입체로 만들어보는 코딩 수업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생활 속 다양한 장면에서 코딩과 메이커가 두루 응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량에 탑재된 스크롤쏘와 드릴, 망치 등을 활용해 나무를 가공하는 체험을 하는 목공 수업과 쓰임새를 다한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수업은 노작활동을 통한 일의 즐거움과 가치를 경험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구와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포토프린터기로 출력하여 프로필 앨범을 만드는 사진 수업은 협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코딩, 메이커, 목공 활동은 초등 실과교과 <기술 - 시스템> 영역과, 사진, 새활용 활동은 초등 미술교과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생의 소질 계발과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카멜레온 활용 수업은 코딩, 메이커, 목공, 사진, 새활용 이라는 5가지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학교나 주변에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접해보지 못한 활동을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라.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카멜레온 차량은 2023년 1학기에 경남의 30개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1,940명, 2학기에 6개교 29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원하였다. 이 중 전교생이 모두 체험 활동에 참여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밀양 숭진초(34명), 화개중학교(40명)등 14개교이다. 이처럼 카멜레온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농어촌 소외계층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①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카멜레온 활용 마을강사 협력 수업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카멜레온을 마을교육공동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양적 수요보다 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연계 프로젝트를 현장과 함께 개발하고 프로젝트 안에서 카멜레온 활용 수업이 필요에 따라 2회차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수십 종류의 다양한 장비와 도구를 다루는 카멜레온 활용 수업의 특성상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지도와 안전을 위한 보조 인력과 예산이 확충이 필요하다. 학교 예산 안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현장연구)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은화 갈전초등학교 교사

윤승연 봉명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지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연구요약 2023. 경남교육정책 교원 특별연수 연구보고서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장은화(갈전초등학교 교사), 윤승연(봉명중학교 교사)
자문위원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연구협력관	전지영(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주제어	행복학교,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행복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경남의 미래형 학교로서 행복학교 1기, 2기를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에 맞추어 행복학교 3.0 운영을 시작하였다. 행복학교 3.0은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천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과 협력의 교육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교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천과 실현되는 행복학교, 미래지향적인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행복학교 일반화를 목표로 하여 전체 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학교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정착과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행복학교의 철학을 주제로 한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뿐만 아니라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교사의 자발적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잘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행복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복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를 면밀하게 탐색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서로 필요한 경험을 배우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을 밝히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드

러나는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설문지 분석, 면담하였다. 행복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관한 2022, 2023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학습공동체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행복학교 평가지표를 반영한 수정 설문지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운영의 실제 관찰, 기술 및 해당 학교 근무 교사와 면담하여 심층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행복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에, 2022.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결과보고서, 2022. 행복학교 운영사례집, 2022.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 문화혁신 추진 계획, 2022.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 문화혁신 평가지표 편람, 2023.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 분석을 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류하고 탐색해 보았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과 영향에 관한 설문지 참고하고(Hipp,&Huffman(2009)이 개발한 전문가 학습공동체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한 송경오, 최진영의 수정 설문지를 활용)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복학교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수정 사용하였다. 개인 배경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차이 비교하기 위하여 유레카를 이용하였고,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 중 2곳을 선정하여 참여 관찰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을 담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실제를 관찰하고 기술하고 해당 학교 근무 교사와 면담을 시행하여 심층적인 사례를 수집하였다. 참여 관찰 학교의 면담 결과는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4 연구 결과

첫째, 경남의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행복학교의 철학, 토론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비중이 교육과정

과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배움, 관계, 교사 성찰, 언어, 수업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에게 있어 교육철학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육과정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과 인식이 모두 높았다. 이는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결과가 보고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행복학교에서 실제로 수시 운영되고 있는 배움중심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등에 관한 교육과정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학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성찰을 주제로 하고, 학년 부장 교사, 전담, 비교과 교사, 관리자, 행정실 직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행복학교로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성찰하며 협의하는 철학에 대해서 나눔이 있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사전, 사후 협의를 포함한 수업 나눔과 학년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포함하여, 이수 시간을 인정받는 직무연수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학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그 외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두 일정한 시간에 고정하여 운영하여 정례화하였고, 일과 중에 종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구성원이 솔선수범하여 수업을 먼저 열고 전입 교사가 배움 중심 수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비전을 만들고 회의 규칙을 함께 제정하며, 월 1회 주제 꾸준한 다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교육활동 평가회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과 학년의 요구를 자세히 살피고 개선점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반영하는 등 교사 학습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일곱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중요성과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동료 교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선행이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을 개별적인 연구와 실천이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적인 역량과 학생들의 성장을 교사 공동체 속에서 도모해야 한다. 자발성의 이유로 몇몇 교사만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형태 및 조직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천하는 행복학교 교사들을 확산시켜 일반 학교에

서도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와 같이 행복학교를 경험한 교사들은 행복학교를 다시 일구거나 일반 학교에서 행복학교 철학을 확산시키고 행복학교 일반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

① 배움 중심 수업,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이 변화되고 수업으로 협력하려는 교사 문화의 전파를 통해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학교 조직 체계를 업무 중심이 아닌 배움 중심 수업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중심의 학습공동체 조직체계로 변화시키는 환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업무량 감소를 위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과 관련된 학교의 공모사업들을 교육과정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 안으로 넣어서 단일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업무 경감, 형식적인 교육활동 등에 대한 학교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대한 검토와 축소가 이뤄질 때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것은 교육적 고민과 방향성을 같이 공유한 교사 간 소통과 교류, 관리자와 리더 교사들의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 끌어낼 수 있다. 관리자와 리더 교사들의 민주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한 맞춤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③ 협력적인 교직 문화와 민주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시간을 일과 중으로 정례화하고, 교육과정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사전·사후 협의회를 포함한 사례연구 형태의 수업 나눔으로 세밀하게 운영하여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④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넘어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갖추는 데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력적 교육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배워 나가며 자기 주도 능력을 길러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전문성은 신입생 학급 수의 감소로 존재와 운영의 위기를 맞은 행복학교에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될 것이다.

경남교육정책 연구목록(2015~2022)

2015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교육방안 (중도입국학생들을 중심으로)
2		진로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 검토 연구보고서
3		학교시설을 통한 생태친화적 건강학교 운영 방안 (청소년 감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감성화 중심으로)
4	현장 연구회	초등학교 업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업무분장 방안 (교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5		소규모학교 교무업무전담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6		학업스트레스치유 및 스마트폰 중독 방지 방안 연구
7		(초등) 평가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과정 중심 수시평가 안착 방안 모색
8		배움중심수업 정착 방안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전략을 중심으로)
9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제도 개선방안
10		소통 · 공감 ·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배움터(학교 민주주의 실현)
11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회 및 동아리 개선 방안
12		수업연구교사제도 개선방안
13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4	학습 연구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문화의 특징 및 실현 방안 탐색
15		책읽기 문화조성을 위한 교과 연계 독서교육 방안 탐색 (초 · 중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16		교원업무정상화 실천방안 탐색
17		중등행복학교 정착 과정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18		초등행복학교에서의 민주적 학교문화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2016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2		경남교육청 환경교육활성화 방안
3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경남의 구도심 및 농산어촌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5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6		학교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2016. 경남교육청 추진사업 진단 분석
7	용역연구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8	현장 연구회	학생 독서토론 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
9		경남형 학력관 정립에 관한 연구
10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 운영 방안
11		중3, 고3 학생의 학년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12		경남형 교원 생애주기별 직무연수 활성화 방안
13		연구학교 효능감 분석 및 개선 방안
14		학교협동조합의 도입 및 정착 방안
15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개선 방안
16		현장과 소통하는 컨설팅 장학 활성화 방안
17		학교 행정실 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
18	학습 연구년	행복학교의 교직원 회의 문화에 대한 해석적 분석
19		행복학교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20		현행 승진제도에 대한 경남교원노조 교원의 인식 실태와 선출보직제 사례 연구
21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22		통합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개선 방안
23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습공간을 위한 리노베이션 방안 연구
24		학교 텃밭 가꾸기를 통한 환경교육 방안 탐색

2017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경남 행복교육지구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
2		미세먼지 실태분석 및 교육적 실천 방안 연구
3		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
5		행복학교 성과 분석 연구 - 경남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6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첨 배정 방법 변경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7		학교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2017. 학교 단위업무 진단 분석 연구
8	자제연구 (수시)	'나는 알바다'경남 고등학생들의 청소년 노동에 관한 연구 : 노동실태 및 노동인권 중심으로
9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분석
10		행복교육지구 운영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연구 : 김해 내외동 지역을 중심으로
11		행복교육지구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12	용역연구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따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 연구
13		학교단위에서의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14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15	공동연구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16	현장 연구회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17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학습지원 방안 연구 - 국어, 수학, 기초학력 중심으로 -
18		교직원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연구 -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
19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교재 개발 연구 - 초등학교 중학년 중심으로-
20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 개선 방안 연구
21		학교지원센터(담당)의 역할과 방향 연구
22		경남 초등교원의 다문화 인식 실태 분석을 통한 다문화 교육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23		토의토론식 수업을 적용한 과정중심평가 확산 방안 연구
24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중심수업 확산 사례 연구
2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권교육 강화 방안 연구
26	학습 연구년	행복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갈등 경험에 따른 사례 연구
27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대처 실태 조사 연구
28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연구
29		학생, 학부모, 교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연구 -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중점으로 -
30		온작품 읽기 활동이 학급구성원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2018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중학교 남녀공학 운영 실태 및 교육적 효과 분석
2		소통과 공감의 업무분장을 통한 민주적 학교조직문화 개선 방안 연구
3		경남놀이정책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4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속 행사활동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5		경남의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고 고입 배정 방식 변경에 따른 학생 인식 조사 연구
6		방과후 학교 순회강사제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7		학교부적응 학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위(Wee) 프로젝트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8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9		경남 중도입국학생의 학업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10	용역연구	난독증 학생지원 방안 연구
11		영재교육 효과성 연구 - 경남을 중심으로
12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13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14		역량중심 미래 교육에 대비한 수업 및 평가 전문성 제고 방안
15		행복마을학교 안착을 위한 국내외 마을학교 사례 분석 연구
16	공동연구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17	현장 연구회	경남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모색
18		경남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모델 연구
19		도·토·리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20		살아있는 역사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경남지역 역사' 연구
2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22		회복적 학교 만들기
23		학교자치를 위한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24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문화다양성교육 방안 연구
2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의 인식 차이 연구
26		2015개정교육과정과 IB PYP 비교분석을 통한 경남교육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연구
27	학습 연구년	행복학교 지속가능성 찾기
28		학교관리자 및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연구
29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30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여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31		경남 초·중등 교원들의 수업혁신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요인 분석
32		경남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사업 사례 연구
33		수학체험센터(마루)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2019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2		김해행복교육지구 성과분석
3		경상남도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강화 개선 방안 연구
4		미래교육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 경남지역 초등학교중심
5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
6		경남 학교민주주의 지표 개발 및 실행 방안
7	현장 연구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고등학교 토론 수업 적용방안 모색
8		더불어 함께하는 학급공동체 DUHAM+운영을 통한 학생 주체 자치활동 실현 방안
9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플레이코스 프로그램 개발
10		마을교사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11		초·중등학교 교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12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13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활성화 방안
14		학부모 학교참여에 기반한 문학유산답사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5	학습 연구년	경남 교장공모제 사례에서 본 민주적인 학교문화 성찰
16		교사독서토론과 민주적 학교문화의 관계
17		경남 메이커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8		대안학교에서의 과정중심 평가 적용 현황 분석
19		행복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 연구
20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방안 연구
21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고양 방안 연구
22		경남 회복적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천 사례 연구를 통한 현장 정착 방안
23		경남 중고등학교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연구

2020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학교공간혁신 방안
2		경남형 회복적모델학교 교육과정 개선방안
3		경남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4		지역사회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5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6		학교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
7		초·중 통합운영학교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발
8		학교업무적정화 정책 효과성 분석 -경남 선도학교 운영정책을 중심으로-
9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
10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 양산, 밀양, 남해 행복교육지구
11		경남 마을교육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 연구
12	종단연구	2020.경남교육종단연구 실행방안 보고서
13		2020.경남교육종단연구 초등학생용 교육정책조사 설문 문항 개발
14	현장 연구회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15		교육현장 내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양성평등 문화 활성화 방안을 중심
16		교사 수준 교육과정,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 -6학급 소규모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보장 실천 기록
17		'운동화 신은 뇌'훈련이 ADHD 초등학생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18		SW-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방안 연구(소규모 학교 중심)
19		국어와 동아리활동·진로활동을 연계한 통일평화 감수성 함양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연구
20		비폭력대화 기반의 어울림 프로그램 실행 연구:자기이해와 공감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21		과학 토의·토론과 미디어를 적용한 학생참여중심의 S.A.F.E.한 과학수업 만들기
22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산 운영의 발전 방안 연구
23		놀이와 배움을 잇는 교육과정 실행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 경남 공립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교사 역할 중심으로-
24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문화 혁신 방안
25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26		경상남도 학교자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교육 3주체 중심-
27		마을주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한 지속방안 연구
28		회복적 학교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29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30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EE·ESD) 활성화 방안 연구 -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사례 분석-
31		2020. 코로나19와 함께 한 행복마을학교 운영 사례 연구
32		경남 행복교육지구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학생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33		행복학교 학교주도적 학교평가 사례연구 - 2020학년도 초등 행복학교 중간평가 대상을 중심으로-
34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 방안 연구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중심으로

2021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방향 연구
2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학습권 보장
3		블렌디드 수업의 현장 적용방안 연구: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4		세대 간 교직문화 경험 및 인식 차이: 경남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의식 및 교직활동을 중심으로
5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개발
6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고 연계 중학교 교육자료 개발
7		2021. 경남 학생인권 실태 조사
8		반 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9		도민 소통 중심 경상남도 교육청 홍보 활성화 방안
10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11		경남행복교육기구 사업성과 분석: 진주, 사천, 고성, 하동 행복교육지구
12	종단연구	2021.경남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결과분석: 학생역량 및 영향변인 분석
13		2021.경남교육종단연구 중학생용 교육정책조사 설문 문항 개발보고서
14		2021.경남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교육정책조사 기초통계 분석, 코드북 및 사용자메뉴얼
15	현장 연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등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적용중심
16		아이톡톡을 활용한 경남형 고교학점제 정착방안 마련
1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방안
18		배움을 알아가는 마을교육과정 - 앎과 삶이 하나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이야기
19		자율형 종합감사 자율점검표 적정화 연구
20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1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방안 연구
22		공립유치원 민주적 운영 방안
23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24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원을 위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25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	학교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원 갈등 양상 분석
26		초등학교 보건실 이용자 지도과정 분석을 통한 보건지도 모형 제시
27		2015개정 초등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그림책 수록 양상 분석
28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적용 연구
29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 개선방안 연구
30		학교자치 정착을 위한 경남 중등학교 사례 연구
31		회복적또래조정 활동의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연구
32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33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 -김해 J초등학교 학생 사례비교, 분석
34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지원 현황 분석-경상남도교육청 정책 중심으로
35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36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37		찾아가는 행복마을학교 프로젝트 수업 활용 방안
38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우리 지역 마을교육과정 개발
39		지역(학교) 특성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행복(나눔)학교를 중심으로
40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 가이드북

2022년

순	구분	연구과제
1	자체연구	경상남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실태와 과제
2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3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4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마음밭 일구기」개발
5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연구
6		경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모델 개발 연구
7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8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팀 효율적 운영 방안
9		작은학교-마을 생태계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10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육활동 지원센터 실태 및 재구조화 방안
11	종단연구	2022.경남교육종단연구 중학교 1학년 교과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12		2022.경남교육종단연구 중학교 1학년 교과 학업성취도 결과분석 및 수직척도화 점수 개발
13		2022.경남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결과분석: 학생역량 및 영향변인 분석
14		2022.경남교육종단연구 3차년도 교육정책조사 문항개발
15		2022.경남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교육정책조사 기초통계 분석, 코드북 및 사용자메뉴얼
16		경상남도 초등학생의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7		경남교육종단연구에서의 초등학교 학생역량의 잠재전이 분석 및 주요 변수 추이분석
18	현장 연구회	아동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돌봄 체계 마련 사례연구 -경남행복마을학교 사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9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교육 방안 모색
20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 담당 교사의 경험 분석
21		미래를 대비하는 에듀테크(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교육 방안 모색
22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방법 탐구
23		e스포츠를 활용한 언택트 체육과 경쟁활동 교수학습모형 개발

24		KEE(K-Economy Education)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금융이해력 함양하기
25		메타버스 플랫폼 'ZEPETO, ZEP'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26		교과융합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방안 연구
27		학생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위한 AI플랫폼(아이톡톡)의 효과적 활용방안 탐색
28		섬진강을 따라가는 문화·역사·환경 교육 콘텐츠 연구 -마을 보호수와 환경을 중심으로-
29		아이톡톡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안 연구
30		행복나눔학교 교육과정 일반화 방안 연구
31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어촌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 연구
32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정보화 업무 지원 방안 연구
33		학교 장부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34		인공지능(AI) 도시건설 프로젝트가 중학생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35		통영의 건축 및 지역 환경 공간을 활용한 학생 배움 공간의 확대 방안 연구
36		2022.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37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	경남 학생자치 활동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38		코로나19 상황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39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방향 탐색 -학교 안,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40		합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
41		지역사 계열별 수업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가야사를 중심으로
42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중학교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
43		수업서클레시피(CCR)를 적용한 회복적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
44		경남지역 초, 중, 고 학생들의 생태교육 경험 및 요구조사를 통한 생태전환교육 정책 제언
45		행복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평가 일원화 방안 연구
46		경남 행복마을학교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47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48		기초학력을 높이는 초기 문해력 교육방안
49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51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우리 아이(AI) 유튜브로 잇다, 유튜브를 읽다-
5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제규정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중학교를 중심으로 -
52		실천중심 수업자료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53		생태환경교육 선도학교의 생태전환교육 현황 및 확산 방안
54		미래교수학습에 따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유형 연구

2023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7권

요약보고서

발 행 일 2023년 12월 19일 인쇄
2023년 12월 19일 발행

발 행 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원 장 **이수광**

기 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소 장 **차재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이정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성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교육연구사 **정대수**

연구지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사무운영주사 **유창호**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누리집 : https://gnfe.gne.go.kr/
전 화 : (055)570-5601
전 송 : (055)570-5509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s://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